한양도성
역 사 산 책

한양도성 역사산책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박수진(성북문화원)
윤경섭(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위가야(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최우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준석(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
이승준(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학사과정)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5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자는 2014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양도성
역사산책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발 간 사 6

서론: 한양도성 이야기를 시작하며 8

한국의 옛 도성 15

한양도성의 입지조건과 축조과정 27

한양도성의 입지조건 29

한양도성의 축조과정 39



차 례

한양도성의 문 53

사대문과 사소문 55

문에 얽힌 이야기 81

한양도성의 산 103

백악과 인왕 105

남산과 낙산 136

도성의 시장들 159

한양도성의 파괴와 복원 207



한양도성은 조선 500년의 도읍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한양도성 안에는 왕이 사는 궁, 행정이 이루어지던 관청,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살던 거주지와 그들을 위한 크고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좁은 의미의 한양도성은 수도 한양을 둘러싼 성城을 의미합니다. 이 성을 경계로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나뉘었고, 성벽을 따라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러한 역사성이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6년 개관한 성북문화원은 지금까지 지역사의 발굴·정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북의 문화재』(1998),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1998), 『선잠제의 역사와 의례』(2002), 『선잠단과 길쌈 이야기』(2010),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2013) 등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북구라는 지역을 넘어 한양도성의 이야기를 담은 『한양도성 역사산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북이라는 이름이 한양도성이 있기에 만들어졌고, 성북구의 지역적·역사적 정체성이 한양도성의 '성밖'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양이 도읍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도성의 건축, 도성을 둘러싼 산과 성벽, 사람과 물산이 드나들던 사대문과 사소문, 일제 강점기 이후 도성의 파괴와 복원 등 최대한 많

발간사

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이야기는 쉽게 정리하려고 하였고, 새로운 이야기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도성의 모든 이야기를 짧은 시간과, 제한된 지면의 한계로 담지 못한 것은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벽마을 주민들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자료도 제공해졌습니다. 집필진은 몇 차례나 도성을 답사하며 사진을 찍고, 자료를 찾고 모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움을 주신 주민들에게는 감사를 전하고, 집필진의 노고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한양도성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양도성의 운명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한양도성 역사산책』이 우리가 앞으로 한양도성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12월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서론: 한양도성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양도성.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수 있다. '한양漢陽'은 조선의 수도가 있던 지역의 이름이고, 도성都城은 수도都를 둘러싼 성城이란 의미이다. 즉 한양도성은 '수도 한양을 둘러싼 성'을 의미한다. 이 한양도성은 말 그대로 높고 긴 성벽으로 둘린 채, 500년이 넘는 조선왕조의 수도로 기능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도 올라 있다. 그렇다면 한양도성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현재 서울의 원형이 된다는 점이다.

조선의 수도가 되기 전에도 지금의 서울 지역에는 사람이 살았다. 현재의 서울 권역 내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 가장 오래된 유적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의 유적인 암사동의 선사유적지이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계급이 분화되기 이전의 시대, 즉 국가 탄생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수도' 서울의 원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잇는 백제의 성이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축성연대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 두 성이 모두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현재 서울 권역 안에



1840년대 김정호가 제작한 《수선전도》에 보이는 한양도성의 모습

있는 성이면서, 한 국가(백제)의 수도, 즉 도성(수도 성)의 역할을 한 최초의 성이다. 그러나 475년 위례성은 고구려 장수왕의 군대에게 함락되고, 그 이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모두 1980년대까지 백제의 수도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모두 역사성은 있을지언정, 지금의 수도 서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고려도 지금의 서울에 남경을 설치했다. 처음 설치는 문종 대(1067)였으나 곧 폐지되었다가, 숙종 대 다시 남경설치가 논의되어 숙종 9년(1104)에 공사가 완료된다. 숙종은 직접 남경에 행차하여 백관들과 조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고려시대 남경은 '남쪽 수도'라는 명칭과 다르게 수도 개경은 물론, 서경인 평양보다 중요성이 떨어졌다. 또한 지금과 같이 수도를 둘러싼 성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의 서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아야 한다. 우선 조선의 한양은 수도로서 기능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긴 했지만 지금도 그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의 서울은 한양에 비해 많이 넓어졌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한양이 확장되며 형성된 것이다. 더욱이 확장된 서울에서도 행정의 중심 청와대는 경복궁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한양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흔히 도성이라고 넓은 공간을 높게 둘러싸고 있는 벽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도성을 이루는 것은 성벽만이 아니다. 임금과 왕족이 살며 국가 행정의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는 궁궐과 관청, 역대 임금의 신위를 모신 종묘,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시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한양도성이라고 하면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떠

올리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성벽의 의미 역시 작지 않다. 성벽은 그 자체로 안팎의 공간을 나누었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왕이 거처하고 있는 도시임을 상징했다.

성벽은 18.6㎞가 넘는 긴 거리를 북악산(해발 342m), 인왕산(해발 338m), 남산(해발 262m), 낙산(해발 125m)의 네 개 산을 오르고 내리며 잇고 있다. 가장 높은 북악산이 해발 342m정도로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악산과 인왕산은 지세가 높이에 비해 험한 편이고, 예전에는 경복궁, 현재는 청와대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남산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대비하기 위한 봉수대가 있을 만큼 중요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낙산과 함께 공원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했다. 문은 도성 안팎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도성은 처음부터 8개의 문으로 설계되었다. 동서남북 네 곳에 큰 문大門을 두었고, 그 사이 네 곳에 작은 문小門을 두었다. 대문과 소문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고, 역할이 나뉘었다.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드나들며 만나고 헤어지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고, 8개의 문을 따라 난 길을 따라 많은 물산이 한양으로 모여들었다.

도성으로 둘러싸인 한양은 조선 최대의 도시였다. 도성 안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다. 도성 안과 근교의 생산물로만은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다. 또한 왕이 사는 곳이었던 한양은 모든 세금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다. 사람이 모이고, 재화가 모이는 곳에는 시장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도성의 문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시장 가운데 일부는 근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왕조가 멸망하며, 또 도시가 확장되며 도성은 급격히 그 위상을 상실했다. 왕의 통치 공간임을 나타내던 성벽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그 의미를 상실했다. 또한 편리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차가 다니기에 성벽은 거추장스런 구조물일 뿐이었다. 도시의 확장은 성벽을 더욱 무력화시켰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사대문 안, 이제는 좁아진 성벽 안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양의 크기를 그대로 두고 주변을 경기京畿로 두는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듯 사람들은 '서울'안에 살기를 원했다. 결국 한양도성 곳곳을 허물며 도시는 확장되었다. 그리고 한양은 더 이상 예전의 한양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도 경성으로 자리한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양도성은 더욱 많은 부분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었고, 60년대~8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집중화로 서울에서 한양도성이 갖는 의미는 급격하게 퇴색되었다. 서울은 이미 조선시대의 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다시 한양도성의 의미를 찾는 다고 하면 어느 누군가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한양도성은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조선왕조의 통치 공간을 상징하기 위해 백성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졌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을 결정했다. 그러다 조선왕조가 멸망하며 도성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갔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었다. 산업발전과 도시화의 명분 아래서 '옛 것'인 한양도성은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의 시대의 끝에, 혹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와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금까지 한양도성이 시대에 맞게 부침을 겪었다면, 앞으로의 한양도성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양도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양도성은 그 매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한양도성이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한양도성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며 살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이 책의 내용이 될 것이다.

(박수진)



01

한국의 옛 도성

한국의 옛 도성

도성都城 이란

도성都城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도성'은 '수도首都'를 가리킨다. 도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임금이나 황제가 있던 도읍지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데서,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서울)'을 이르던 말"이란 설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좁은 의미에서 도성은 '성곽城郭'자체를 가리킨다. 이 때의 성곽은 왕이 평상시 거주하는 궁성과 관부 및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즉 도성이라는 한자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도都'와 '성城'이 각각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도성을 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앞으로 설명할 한국의 옛 도성들은 좁은 의미의 도성, 즉 도성과 도성 바깥을 경계 짓는 성곽들을 가리킨다.

먼저 성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연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무력한 존재였으므로,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시설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흙으로 제방을 쌓았고, 맹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깊은 도랑을 파거나 나무 울타리를 둘렀다. 이것이 성의 기원이 되었다. 성은 도시가 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내성內城을 의미하는 '성城'과 '외성外城'을 의미하는 '곽郭'이 합쳐진 성곽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성곽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國'이란 글자는 '口(사람을 의미한다)'를 '戈(병력을 의미한다)'로 지키고 '口'와 그 주위를 곽郭으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의 상형象形이라고 한다.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 성곽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성곽이 가리키는 것은 곧 도성일 것이므로 국가의 성립과 도성의 건설은 '표리일체表裏一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 도성의 특징

한국 도성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은 산의 지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도성은 고조선의 왕검성이다.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성은 지금은 성터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견고한 것만 믿다가 나라의 대가 끊어졌다"는[1] 기록을 보면, 험준한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성이었을 것이다. 그 성터 및 성곽들이 남아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도성들은 산성이거나, 방어용 산성이 평지에 조성한 거주용 성과 함께 하나의 세트로 도성제를 구성하고 있거나, 평산성平山城이란 형식으로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져 하나의 도성을 이루고 있다. 한양도성(서울성곽)은 북악산을 중심으로 인왕산, 남산, 낙산을 연결하면서 축조된 평산성이다.

반면에 중국의 도성은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단 대체로 네모꼴의 평면구조에 북쪽에는 왕궁이 남쪽을 바라보고 자리 잡았으며, 왕궁의 남문과 외성의 남문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주작대로朱雀大路 또는 남북대로를 기준삼아 좌우로 대칭의 형태를 이루는 바둑판 모양의 구획을 가지는 도



산지에 위치한 오녀산성

성의 구조는 동아시아 도성제도에서 일종의 표준이 되었고, 한국의 도성들 역시 대체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도성이 자리 잡은 위치만큼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지형적 차이, 즉 산간지역이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도성이 가지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방어기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역사는 외침外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의 침입에 시달려 왔다. 이 때문에 나라의 중추를 이루는 도성의 방어기능이 중시되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대적으로 삼국시대의 도성들에서 이후 고려·조선의 도성들보다 좀 더 방어기능이 중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삼국시대에는 외침 이외에 삼국 간의 항쟁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고려와 조선의 도성에서는 도성이 가지는 또 다른 기능인 왕권의 상징, 즉 왕실과 국가의 표상으로서의 기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숭례문을 비롯한 한양도성의 문루들은 지금은 고층 빌딩 숲에 둘러싸여 왕년의 위용을 쉽게 느끼기 어렵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큰 건물들이었을 것이고, 그 위용이 자연스럽게 그 도성의 주인인 왕의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게 했을 것임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한국의 옛 도성들

이제 현재 그 유적이 남아있는 도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옛도성의 모습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현존하는 한국의 옛도성들 중 그 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도성들이다.

『삼국사기』 등의 기록이 전하는 고구려 건국설화에 따르면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은 졸본卒本 지역에서 처음 나라를 세웠다. 이 지역은 지금의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현集安縣 환인桓仁분지 지역으로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인 시가지 동북쪽 8.5km 지점에 위치한 오녀산성五女山城을 주몽이 졸본에 도읍하면서 축조한 흘승골성紇升骨城으로 보고 있다.

오녀산성에 직접 가서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 성은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건국 직후부터 주변의 소국들 및 중국의 현도군과의 투쟁 속에서 국가를 발전시켜나갔으므로, 그 첫 도성을 방어에 유리한 험준한 산성에 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가 오녀산성에 도성을 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기록대로라면 고구려는 건국한지 꼭 40년이 되는 유리왕 22년(A.D.3)에 졸본의 동남쪽인 국



몽촌토성(방어용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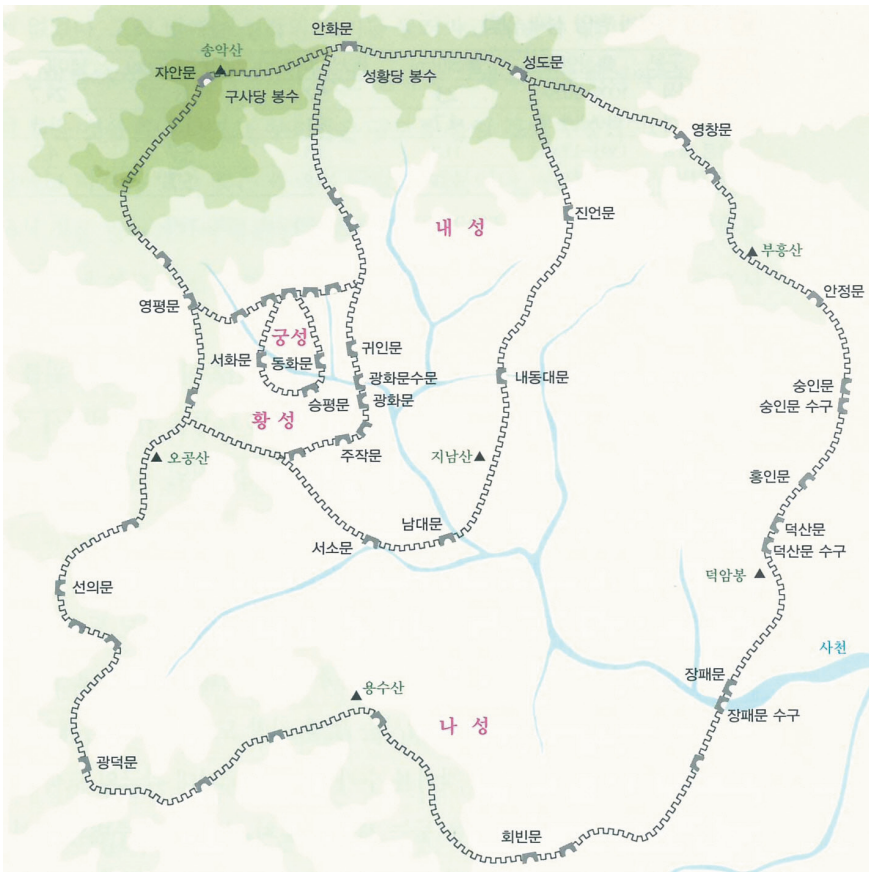


풍납토성 (거주용 평지성)

내 지역으로 천도했다. 그 지역으로 생각되는 지금의 집안현 통구通溝분지에 고구려의 도성으로 여겨지는 성들이 남아있다. 국내성國內城과 그 서북쪽 2.5km 떨어진 산 속에 위치한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도성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거주용 평지성과 방어용 산성이 하나의 세트로 도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모습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국내 지역의 고구려 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69년 후인 장수왕 60년(472)에 천도한 평양의 도성들인 안학궁성安鶴宮城과 배후의 대성산성大城山城 또한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곽 운용방식이 당시 중국인들의 눈에는 대단히 특이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 중국의 역사서인『주서周書』에 고구려인들은 평시에는 평지에 살지만 적군이 침입하는 날에는 비축된 양식과 무기가 있는 산성에 들어가 살았다고 따로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평지성과 산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도성 양식은 비단 고구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경쟁했던 백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의 첫 도성이라고 기록된 위례성慰禮城이 지금의 한강 유역에 남아있는 어느 성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에 남북 방향으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

이 한성기 백제의 도성들이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 두 성은 거주용 평지성(풍납토성)과 방어용 산성(몽촌토성)의 도성 양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고구려의 도성들과 같았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백제 건국설화는 온조왕이 원래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남하하여 한강 유역에서 백제를 건국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개성 성곽 평면도

백제의 도성 양식이 비슷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는 시조 혁거세赫居世 거서간居西干이 쌓은 금성이 첫 도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은 지금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현존하는 신라의 도성은 경주 시내에 위치한 월성月城인데 『삼국사기』는 파사婆娑 이사금尼師今 22년(101)에 월성을 축조해서 왕이 옮겨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평지성인 월성은 고구려·백제의 경우와는 달리 주변에 방어용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산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없는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 성이 월성과 세트를 이루는 산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월성 주변에는 동쪽에 명활산성明活山城, 서쪽에 서형산성西兄山城, 남쪽에 남산성南山城, 북쪽에 북형산성北兄山城이 있고, 이 성들이 월성과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성의 외곽을 두른 방어용 성곽을 나성羅城이라고 부르는데 월성을 사방으로 호위하듯 애워싸고 있는 이들 성곽들이 월성의 나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 옛도성의 특징 중 하나인 평산성, 즉 평지의 성과 산성이 합쳐진 듯한 양식은 고구려가 평양에 축조한 평양성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왕궁이 위치한 내성內城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북성北城, 중앙관청이 위치하고 귀족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성中城,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거주구역이었을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북성 안에는 기린굴麒麟窟이라 부르는 동굴이 있는데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또한 조선 시대 시인들이 다투어 찾았던 부벽루浮碧樓도 이곳에 남아있다. 현재 북한 사적 제1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니 훗날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평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온

다면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삼국시대의 혼란을 정리한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도읍을 지금의 개성 지역인 송악군松岳郡(개경)으로 옮겼다. 개경開京은 해발 489m의 송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구릉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 일종의 분지 지형이었으므로, 개경의 도성이 이러한 자연지세를 이용하였을 것임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은 일이다. 왕건의 아버지인 왕륭王隆이 후고구려의 왕 궁예弓裔를 설득하여 쌓은 발어참성勃禦塹城이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려 황성皇城은 산의 지형을 따라 축조되었다. 훗날 거란의 침입으로 도성 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황성의 외곽 지역을 두르는 나성을 축조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현종顯宗 11년(1020)에 강감찬姜邯贊의 건의로 추진되어 9년만인 현종 20년(1029)에 완성되었다. 전체 둘레가 23km에 달하고 축조사업에 참여한 연인원이 30여만명을 헤아릴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성이었던 고려 나성은 규모뿐만 아니라 견고함으로도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고려사』에는 나성의 견고함을 칭송하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 거란의 성종이 개경에 침입해서 궁궐을 불태웠다. 고려의 현종이 개경을 수복하고 나성을 쌓자 나라 사람들이 기뻐서 금강성金剛城이란 노래를 불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몽골병을 피해 강화로 천도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도 한다. '금강성'이라고 한 것은 그 성의 견고하기가 쇠같이 굳음을 말한 것이다.[2)]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의 도성과 고려시대 개경 도성을 좁은 의미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곽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고구려의 도성이 평

지의 거주성과 산지의 방어성이 짝을 이루는 형태에서 평지성과 산성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백제의 도성이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과도기를 거쳐 고려시대에 궁성(내성)과 나성(외성)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형태로 정착된 한국식 도성은 조선 건국과 함께 진행된 한양도성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위가야)

참고문헌

대한문화재연구원 엮음, 『삼국시대 고고학개론 I 』, 진인진, 2014

임기환 외, 『한국의 도성 – 도성 조영의 전통』, 서울학연구소, 2003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김태식,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영사, 2001

박순발, 『백제의 도성』,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기획편집위원회 편, 『고구려 유적의 어제와 오늘 –도성과 성곽』, 동북아역사재단, 2009

심정보,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9

차용걸, 『백제 지역의 고대산성』, 주류성, 2005

한국고고학회, 『한국 고고학 강의(개정 신판)』, 사회평론, 2010

신안식, 「고려전기의 축성과 개경의 황성」『역사와 현실』38, 한국역사연구회

이상구, 「한성부의 도시 계획과 공간 구성」, 『서울 2천년사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1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주석

1. 『사기』 권115, 조선열전
2. 『고려사』 권71, 악지, 금강성



01

한양도성의 입지조건과 축조과정

한양도성의 입지조건과 축조과정

한양도성의 입지조건

태조 이성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백관百官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는 신하들의 요청에 못이긴 척 왕위에 올랐는데, 『조선왕조실록』은 그가 조선의 태조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날의 풍경을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 태조 어진(국보 제317호)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 등이 부축하여 호위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더욱 간절하게 권고하였다. 이 날(7월 17일) 태조가 마지못하여 수창궁壽昌宮으로 들어가니 백관百官들이 궁문宮門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殿으로 들어가 왕

위에 오르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하朝賀를 받았다. 육조六曹의 판서判書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殿上에 오르게 하고는 말했다.

> "내가 수상首相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직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匹馬로도 피할 수 있지마는,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卿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사람을 보좌하라."(『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17일)

태조는 후세에 찬탈자의 오명을 남기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것 같다. 구구절절한 변명도 변명이지만, 그가 신하들의 조회를 처음으로 앉아서 받은 날이 즉위한 지 20일이 넘게 지난 8월 11일이고, 그것도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므로 마지못해 앉았다는 기록은[1] 그가 얼마나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8월 13일 태조는 도평의사사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명하였다.[2]

태조가 천도를 명령한 8월 13일 이전의 실록에는 천도 후보지를 논의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양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천도 후보지로 결정된 것이라 하겠는데, 그 까닭은 한반도에 자리 잡은 왕조의 수도로서 한양이 가지는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었을 것이다.

한양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수도 개경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서울京인 남경南京이 설치될 정도로 중시되어 온 곳이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에서 직접 도선을 언급할 정도로 풍수지리 사상이 성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산 자의

터전을 다루는 양기풍수陽基風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풍수론에 입각하여 고려 조정에서는 수도인 개경의 지기地氣의 쇠퇴를 막기 위해 다른 곳의 왕성한 지력地力을 빌려 개경의 지력을 연장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이경離京과 이궁離宮을 건설하고 왕이 일정 기간 동안 그곳으로 순주巡駐하는 것이었다. 남경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 문종 21년(1067)에 설치되었고, 이후 숙종 9년(1104)에는 지금의 경복궁 북쪽에 궁궐이 완성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남경으로의 천도 계획이 실제로 세워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천도가 실행되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 천도는 물론 풍수론에 기반을 둔 것이기는 했지만, 천도가 필요한 다른 이유로 한양이 가지는 군사적 이점, 즉 외적 방어에 유리한 지형조건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왕 8년(1382) 비록 5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한양 천도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극심했던 왜구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곧바로 닿을 수 있는 개경보다는 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한양이 유리하다는 것이 천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양이 천도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한양이 풍수론적으로 명당인 동시에 교통이 편리하고 방어에 유리하다는 인문지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신증동국여지승람』은 한양의 지리적 조건을 이렇게 적고 있다.

> 북으로 삼각산을 진산으로 삼은 한양 땅은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끌어안은 지세요, 남쪽은 한강으로 띠를 삼고 왼쪽으로 관령이 인접해 있으며 오른쪽으로 발해를 둘렀으니 그 형세가 한반도의 으뜸이다. 과연 산과 강의 지세가 험준하여 다른 곳보다 백 배나 훌륭한 땅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李重煥(1690~1756)은 그가 지은 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수도 한양의 지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함경도 안변부의 철령에서 나온 하나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오륙백 리를 달리다가 양주에 이르러 여러 작은 산이 되었다. 다시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돌아들면서 갑자기 솟아나 도봉산 만장봉이 되었다. 이곳에서 다시 남서쪽을 향해 나아가면서 잠시 끊어진 듯하다가 우뚝 솟아서 삼각산(지금의 북한산으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백운대가 되었다. 이곳에서 한 가지가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만경대가 되었으며, 한 가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악산이 되었다.
>
> 풍수가들은 이 형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을 꿰뚫는 목성木星(산 정상이 둥글면서도 우뚝 솟은 산)의 형국이고 궁성의 주산이다.
>
>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의 세 방향으로 모두 큰 강이 둘려 있으며, 서쪽으로 바다의 조수와 통한다. 여러 곳의 큰 강이 모두 모이는 그 사이에 백악산이 서리고 얽혀 있어서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이라 일컫는다.(이중환, 『택리지』, 경기)

실록은 태조가 천도를 서두르는 모습을 적고 있다. 태조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명령한 8월 13일에서 겨우 이틀이 지난 8월 15일 한양에 남아 있는 고려 때의 궁실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3]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태조는 새 도읍지가 개경만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한양 천도 이야기를 꺼낸 것도 한양에 이미 과거 고려의 왕들이 사용하던 궁실이 남아 있었으므로 별다른 준비 없이 신속한 천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태조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감행한 숙청의 현장이었던 개경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양이 새로운 도읍으로 결정되다

태조의 천도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 9월 3일 개국공신인 배극렴과 조준 등은 태조에게 백성들의 고통이 크니 한양의 궁궐과 성곽이 완성되기를 기다린 후에 도읍을 옮기자는 건의를 올렸다.[4] 태조는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한양 천도 계획은 중지되었다.

배극렴 등의 건의는 도성을 한양으로 옮기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태조 2년(1393)에는 느닷없이 한양이 아닌 계룡산 지역이 천도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태조는 계룡산 천도 계획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천도 후보지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1월 19일에 개경을 출발하여 2월 9일에 계룡산에 도착했다.[5] 태조는 계룡산에 5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지세를 살피고는 새 도읍 건설을 명령했다.

태조와는 달리 신료들은 천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실록에 이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6]

태조가 아직 계룡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던 2월 1일 이른 새벽 지중추원사 정요가 찾아와서 현비(신덕왕후 강씨)가 아프고, 평주와 봉주 등지에는 도적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올렸다. 태조가 언짢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변방의 장수 누가 도적에 대해서 보고했는가?"

그런데 정요는 대답을 못했다. 실록은 그 까닭을 적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태조의 행차를 개경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한 것이 아닐까 싶다. 태조가 그 속마음을 알아챈 것이다. 그는 대신들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 "도읍을 옮기는 일을 세가대족世家大族들이 다 싫어하니 핑계를 대서 이를 중지시키려 한다. 재상宰相은 송경松京에 오래 살았으니 도읍을 옮기고 싶어 하겠는가?"

남은南誾이 나서서 신하들은 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도적은 그들이 가서 토벌하겠으니 태조는 계룡산에 가서 도읍을 건설할 땅을 보시라고 설득했지만, 태조는 개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겼다. 그러면서 대신들을 질타하는 말을 잊지 않았다.

>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역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예로부터 왕조王朝가 바뀌고 천명天命을 받는 군주는 반드시 도읍을 옮기게 마련인데, 지금 내가 계룡산鷄龍山을 급히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 때에 친히 새 도읍을 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후사後嗣 될 적자嫡子가 비록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도읍을 옮기려고 하더라도, 대신大臣이 옳지 않다고 저지沮止시킨다면, 후사後嗣 될 적자嫡子가 어찌 이 일을 하겠는가?"

다급해진 남은 등은 현비의 병도 나을 것이고 도적 또한 염려할 것이 없다는 점괘를 들고 간 끝에 겨우 태조의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태조가 그래도 정요는

처벌하고 가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이 역시 남은이 설득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동 끝에 시작된 계룡산 천도 사업도 공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인 12월에 중지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기좌우도 도관찰사 하륜이 계룡산은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쳤고 풍수상으로도 물길의 방향이 좋지 않다고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태조는 중신들에게 그 의견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하였고, 산수의 형세와 길흉 관계를 검토한 결과가 하륜의 주장에 부합하자 계룡산의 도성 공사를 중지시켰다.[7)]

태조는 계룡산 천도를 반대한 하륜이 직접 다음 후보지를 알아볼 것을 명령하였다. 하륜이 추천한 후보지는 한강 주변의 무악 남쪽오늘날의 연희동·신촌동 일대)였던 모양이다. 태조 3년(1394) 2월 무악의 지형을 확인하고 온 조준 등이 땅이 좁아 도읍지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으나 하륜이 뜻을 굽히지 않아, 태조가 직접 가서 무악을 보고 결정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8)]

태조는 8월 11일 무악에 행차하여 지세를 살피고 천도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지만, 다시 한 번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쳤다.[9)] 태조의 심복이라 할 수 있던 정도전마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지리의 성하고 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천도를 서두르지 말 것을 주장했다.[10)] 하지만 태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남경의 옛 궁궐터에 들러 지세를 살펴 본 후 이곳이 왕도가 될 만한 곳이라 말하고 왕사王師 자초自超무학대사)의 동의를 구했다. 자초는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소서"라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신하들도 입을 모아 "꼭 도읍을 옮기려면 이곳이 좋습니다"라며 태조의 뜻에 반대하지 않았다.[11)]

개경에 돌아온 태조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것을 청하는 도평의사사의 의견

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한양 천도를 결정했다.[12] 10월 25일 개경을 떠난 태조는,[13] 3일 후인 10월 28일 한양에 도착했다.[14] 한양에는 아직 종묘와 사직·궁궐·성곽 등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태조의 결정을 미룰 수는 없었던 것이다.

천도가 이루어진 다음 해인 태조 4년(1395) 태조가 머무를 궁궐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1월 29일 사직단의 공사를 시작했고,[15] 9월에는 태묘와 궁궐이 완성되었다.[16] 10월 7일에는 정도전이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짓고 그 뜻을 태조에게 써서 올렸다.[17] 12월 28일 태조는 새 궁궐 경복궁에 들어갔다.[18] 남은 것은 도성의 안팎을 나누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켜낼 성곽의 축조였다.

무학대사와 한양천도에 얽힌 이야기들

한양천도에 얽힌 여러 전설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조선 초기의 고승이었던 무학대사다. 『순오지旬五志』라는 책을 보면 태조와 무학대사가 처음 만나던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태조가 안변에서 잠시 살았는데, 꿈에 여러 집의 닭이 일시에 울고,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세 서까래를 졌으며, 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졌다. 태조가 놀라 잠에서 깨었는데 곁에 한 노파가 있었다. 태조가 노파에게 꿈 이야기를 하려 하자 노파가 손사레를 치며 말했다.

> "말하지 마십시오. 장부의 일은 보잘것없는 여인이 알 바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 굴 안에 기이한 중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해몽을 해 줄 것입니다."

태조가 설봉산에 가보니 과연 굴이 있었고 그 안에 도를 닦는 중이 한 사람 있었다. 태조가 그 중에게 인사를 하고 꿈 내용을 말하니 중이 축하하며 말했다.

"여러 집의 닭이 일시에 운 것은 높고 귀한 지위를 얻으실 징조입니다. 세 서까래를 진 것은 '왕王'자요,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떨어진 것은 왕이 될 징조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시면 안됩니다."

닭이 우는 것을 높고 귀한 지위를 얻을 징조라 한 것은 그 우는 소리가 '높고 귀한 지위高貴位'의 독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태조가 중에게 사례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 중이 바로 무학대사였다. 태조는 훗날 왕위에 오르자 그를 불러 왕사王師로 삼았다.

무학대사는 당대 제일의 풍수가로 이름이 높은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태조는 새 도읍지를 보러 다닐 때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며 지세가 어떠한지를 물었다고 한다. 태조가 무악으로 행차했을 때의 일이다. 실록은 태조가 무학대사를 장막 안으로 불러 함께 밥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양에 있는 옛 고려의 남경 궁궐터에 들른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이곳이 새 도읍지로 어떠한지를 물었다. 그는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만 합니다"라며 태조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몇 달 전 계룡산에서 태조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눈치도 없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무학대사였다. 전 날 태조와의 식사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실록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른바 '야사野史'에는 무학대사가 한양도성의 자리를 잡던 때의 이야기가 전한다. 태조의 명을 받아 한양으로 들어온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십리 부근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소를 몰고가던 농부가 하는 혼잣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이 놈의 소 미련하기가 꼭 무학같구나."

무학대사가 농부에게 가서 까닭을 물으니 농부는 이곳에서 십리쯤 더 가야 명당이 나온다고 대답했다. 무학대사가 그 말에 따라 십리 쯤 더 가서 인왕산 부근에 도착하니 과연 천하의 명당이었다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로 도성자리를 살피던 무학대사가 비봉碑峯에 이르러 '무학오심도차無學誤尋到此(무학이 잘못 찾아 이곳에 이를 것이다)라는 여섯 글자가 크게 새겨진 비석을 보고, 길을 바꿔 만경대에서 정남쪽의 산줄기를 따라 곧바로 백악산 아래 도착하여 세 곳의 산줄기가 합쳐져 한 들이 된 것을 보고 그곳을 궁성터로 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한양도성의 입지를 둘러싸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대립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인왕산 서쪽 기슭에 그 모양이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바위가 하나 있다. '선禪바위'란 이름도 그 모양 때문에 붙은 것이다. 이 바위는 옛 한양도성을 경계로 생각하면 도성 바깥에 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무학대사는 이 바위를 성 안쪽에 두고 싶어했다고 한다. 이 때 정도전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그는 태조에게 "이 바위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면 불교가 성할 것이고, 성 밖으로 내보내면 유교가 흥할 것입니다"라며 바위를 성 안에 들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태조가 그의 말을 따르니, 무학대사는 "이후로는 중들이 선비의 책보따리나 짊어지고 다니겠구나"라며 탄식했다고 한다.

무학대사와 정도전은 어느 산을 한양의 주산으로 삼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고 한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백악산과 남산이 좌청룡 우백호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도전은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남쪽을 향하여 앉아[南面] 다스렸다는 이유로, 백악산을 주산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

다. 무학대사는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이 지나서 반드시 내 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옛적 신라의 의상義湘대사가 예언하기를 "도읍을 선택하는 자가 만약 중의 말을 믿게 되면 오래 갈 것이고, 정씨 성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면 5대를 가지 못하여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200년이 못가서 나라가 어지러워 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며 정도전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한양도성의 입지를 두고 대립하는 전설은 훗날 정도전이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후에 그를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였을 것이다. 무학대사는 태조의 의견에 따라 한양의 지세가 도읍지로 합당하다 말하면서도, 여러 사람에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을 권할 정도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 인물이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인물들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유학자들이었으므로, 당시 불씨佛氏라 매도되던 승려가 몸을 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정도전에게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퍼부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의 축조과정

도성을 짓다 – 태조 시기 한양도성의 축조

태조가 머물 궁궐이 한창 지어지고 있던 태조 4년(1395) 윤9월, 도성 축조를 위한 임시 특별 관청으로 도성축조도감이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성을 쌓을 자리를 정하게 하였으며,[19] 본인이 직접 여러 차례 산에 올라 성을 쌓을 곳을 관찰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20] 이를 토대로 이듬 해인 태조 5년(1396) 정월부터 전국

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정해진 구역에 성벽을 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1월 9일에 도성의 주산인 백악산과 오방五方의 여러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도성 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1] 실록은 이 때 동원된 인부들의 숫자와 성벽의 축조 방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다.[22]



〈도성도(都城圖)〉, 《광여도(廣輿圖)》(19세기 전반)

먼저 인부는 경상도·전라도·강원도 및 평안도의 안주 이남과 함길도(지금의 함경도)의 함주(지금의 함흥) 이남 지역에서 총 11만 8천 70여 명을 동원하였다. 국방상의 이유에서 평안도와 함경도의 북부 지역에서는 인부를 동원하지 않고, 도성에서 가까운 황해도·경기도·충청도는 차후의 보완 축조 및 수리와 관리를 위한 예비 인력의 동원지로 남겨두었다. 도성축조도감에서 성터를 측량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업 구역을 배분하였는데, 600척을 한 구역으로 해서 각 구역마다 천자문千字文의 글자를 한 글자씩 할당하였다. 모두 97자가 사용되었는데, 백악산 동쪽의 천天에서 시작하여 백악산 서쪽의 조弔로 끝났다. 전체 둘레가 5만 9천 5백 척이었는데 당시에 사용한 영조척營造尺이 한 척에 약 30cm가 좀 넘었으므로 성벽 둘레의 길이를 오늘날 사용하는 수치로 환원하면 대략 18km가 된다. 천天부터 일日까지는 함경도, 월月에서 한寒까지는 강원도, 래來에서 진珍까지는 경상도, 이李에서 용龍까지는 전라도, 사師에서 조弔까지는 평안도에서 뽑혀 온 인부들이 담당하게 하였다.

공사는 철저한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한 글자 600척을 여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두 글자마다 한 사람씩 감역監役을 두었다. 그 위로 판사判事와 부판사副判事가 각각 한 명씩, 사使와 부사副使 그리고 판관判官이 열 두 명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감역을 비롯한 감독자와 축성 단위별 내역을 성벽을 구성한 돌에 새겨놓게 한 것이다. 일종의 공사 실명제가 실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축성 내역이 새겨진 돌들은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 남산 동측 성벽에 경상도 구역 표시인 곤자육백척崑字六百尺, 검자육백척劍字六百尺 등의 문자가 있고, 낙산 성벽에도 결성結城, 동복同福 등의 지명을 볼 수 있다.

감독이 철저한 만큼 축성에 동원된 인부들의 형편 또한 세심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처음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감독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부들에게 작업

을 시켰으나, 태조의 명령으로 야간 작업이 금지되었다.[23] 또한 태조는 추위가 심해지자 "얼어서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이제부터는 바람 불고 눈내리는 날은 역사를 시키지 말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24] 공사 기간이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이라는 단시일 안에 끝나도록 계획된 것도 농번기를 피해 백성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사가 마무리 되던 2월 27일에는 성문 밖 세 곳에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 죽은 인부들의 혼령을 위로하고, 그 집의 세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었다.[25]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하였다. 북쪽은 백악산(342m) 정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 내려가는 산줄기, 동쪽은 타락산(125m)의 남북으로 뻗은 능선, 남쪽은 목멱산(265m) 정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낮아지는 산줄기, 서쪽은 인왕산(338m) 산줄기를 잇는 식으로 성벽을 쌓아나갔다. 높고 험한 곳은 돌로 쌓



한양도성의 각자성석 (남산 구간)

았는데 높이가 15척(약 4.5m)이었다. 평탄한 산에는 흙으로 쌓았는데 하단 너비가 24척(약 7.8m), 상단 너비가 18척(약 5.4m)에 높이는 25척(약 7.5m)였다. 사람과 물자 및 물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성문과 수문을 설치했는데, 각각 사방으로 4개씩 큰 문(숭례문, 돈의문, 숙정문, 흥인지문)과 작은 문(소의문, 창의문, 혜화문, 광희문)을 설치하고, 지대가 낮은 동쪽에는 2개의 수문을 설치하였다.

공사는 농한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동대문(흥인지문)과 그 부근은 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했다. 지대가 낮아 밑에 돌을 포개어 올리고 그 위에 성을 쌓는 작업이 다른 곳 보다 고됐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을 10여 일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동대문은 일단 미완성인 채로 두게 되었다.[26]

1차 공사에서 축조된 성벽은 기대보다 견고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6월 2일 축성 제조提調였던 이성중李誠中이 성을 쌓은 것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27] 7월에 장마가 들자 성을 쌓은 것이 부실의 이유였다. 7월에 장마가 들자 두 차례에 걸쳐 수구와 옹성이 무너지기도 하였다.[28] 이 때문에 태조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8월 6일 경상도·전라도·강원도에서 인부 7만 9천 4백 명을 징발하여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1차 공사 때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게 하였다.[29] 공사는 9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공사에서는 무너진 부분을 개축하고, 미완성이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 외에도 수문을 하나 더 만들고, 4대문과 4소문의 누대를 짓는 작업이 진행되었다.[30] 이후에도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되어 도성 축조가 시작된 지 3년 만인 태조 7년(1398) 중순에야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양 도성은 완공된 일 년이 채 못 되어 도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8월 26일,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정도전을 숙청하고 실권을 잡았다.



자연석을 활용한 태조 시기의 성벽 (남산 구간)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정변이다.[31] 태조는 9월 5일 둘째 아들인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32] 왕위에 오른 정종은 이듬 해인 정종 1년(1399) 3월 7일에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 실록은 상왕이 된 태조가 가마를 타고 한양을 떠나는 길에 사랑하던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처음에 한양으로 옮긴 것은 오로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과 의논한 것이었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33]

한양 환도는 태종 5년(1405) 10월에 이루어졌다.[34] 태종 이방원은 정종 2년(1400) 11월 13일 정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는데, 이 날 오대산에 가 있던 태조가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는 태종에게 "네 형이 한양에 천도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려는 뜻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 네가 내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한양 환도를 권유하였고, 태종이 그 뜻을 따르겠다고 대답하니 술을 따라주었

다고 한다.[35]

이후 도읍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개경, 무악, 한양 중 한 곳으로 후보지가 모아졌고, 종묘에서 돈을 던져 길흉을 점친 결과 개경과 무악이 각각 2흉 1길, 한양이 2길 1흉이 나온 끝에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것이다. 이 날 태종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 마디 남겼다.

> "나는 무악에 도읍하지 아니하였지만, 후세에 반드시 도읍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0월 6일)

태종이 어째서 이런 말을 남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누구보다도 큰 공을 세웠던 하륜을 달래기 위한 말이었거나, 태종 자신이 좀 더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지가 무악이었을 수도 있겠다. 반면에 누구보다도 한양 환도를 바라마지 않던 사람이 있었다. 태조였다. 그는 한양으로 환도하는 일정을 아뢰러 찾아온 태종을 환대하며 술자리를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36]

도성을 고치다 – 세종 시기 한양도성의 개축

한양 도성은 태종의 아들인 세종 때에 와서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개축되었다. 세종 3년(1421) 6월에 든 장마로 도성의 수문이 흙으로 막혀 물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정진鄭津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문 한 곳을 더 개설하자고 요청했다.[37] 또한 8월에는 공조판서 최윤덕崔閏德이 다음 해 봄에 성곽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세종은 최윤덕의 말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한 번 공사를 시작하면 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국론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쉽게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물어진 곳을 급히 막는 것만을 허

락하였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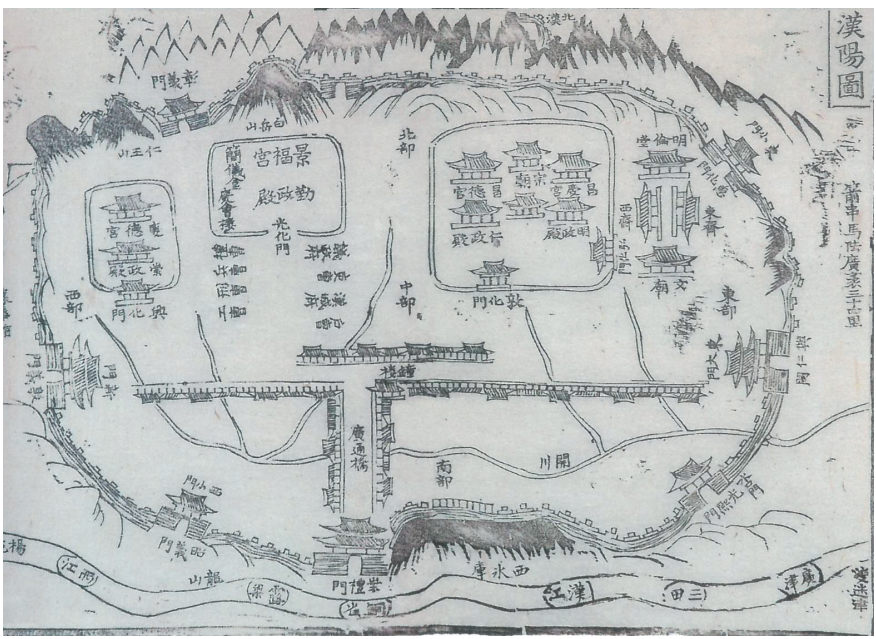
하지만 그 해 10월 상왕인 태종의 명에 의하여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이 설치되어 도성 개축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39] 도성을 개축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에서 토성土城 부분을 모두 석성石城으로 고쳐쌓아야 한다는 의견과, 토성이라 하더라도 단단하게 쌓으면 문제가 없고 모두 돌로 고쳐 쌓는다면 인력이 많이 들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였고, 절충안으로 모두 돌로 쌓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외국사신들이 볼 수 있는 사현沙峴으로부터 남신南山까지의 구간 만이라도 돌로 성을 쌓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40]

도성수축도감에서 내려진 결론은 전부 돌로 고쳐쌓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성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2만 5천 5백 35척이고, 석성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3천 9백 46척이었다. 토성부분은 기존에 있던 성곽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 쌓아야 하므로 매 척당 15명의 인부를 배당하고, 수리만 하면 되는 석성부분은 이보다 적은 매 척당 5명의 인부를 배당한다고 했을 때, 40만 2천 7백 55명이 필요했다. 여기에 각 구간별로 인원 배분이 상세하게 정리된 보고가 상왕인 태종에게 올라갔고, 그대로 수용되었다.[41] 하지만 처음 성을 쌓을 때 두 차례에 걸쳐 동원된 인원이 20여만 명인데, 개축에 40여 만 명의 인부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0여 만 명을 줄이게 되었다.[42]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에서 동원된 32만 2천 4백명이란 숫자는 전체 길이 23km로 한양 도성보다 규모가 더 컸던 고려 나성羅城 축조 때 동원된 23만 명을 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부 동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성 개축은 세종 4년(1422) 1월 14일에 목멱산과 백악산의 산신山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43]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44] 처음 도성

을 쌓을 때와 마찬가지로 천자문의 글자가 할당된 구역별로 인부들이 배치되어 작업을 진행했다. 도성 개축이 시작된 이유가 먼젓번에 쌓았던 도성의 절반가량이 무너진 데에 있었으므로, 감독이 한결 엄격해졌으며, 책임소재를 묻는 것도 철저해졌다. 처음 보고된 도성 개축 계획에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면 바로 돌려보내 줄 것이나, 단단하게 쌓지 아니한 자는 감독 이하의 모두를 중죄로 다스릴 것이며, 만일 고쳐 쌓은 뒤에 무너지면 처음에 쌓던 사람을 시켜 다시 쌓게 할 것"이란 내용이 있었는데,[45] 실제로 2년이 지난 세종 6년(1424)에 함경도 북청부에서 맡아 쌓은 부분의 도성이 무너지자 그곳을 쌓은 사람들이 다시 불려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이 있었다.[46]

공사는 예정된 기간이었던 40일을 이틀 단축한 38일 만인 2월 23일에 마무리



〈한양도(漢陽圖)〉, 《천하도(天下圖)》(1822)

되었다. 계획대로 성벽은 모두 돌로 쌓았는데 태조 때의 성벽보다 1척 높아졌다. 또한 수문 2칸을 더 설치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했으며, 서전문西箭門을 헐고 돈의문敦義門을 수리하였다.[47] 흥미로운 것은 성벽 전체의 길이가 태조 때의 5만 9천 5백척에서 6만 8백 92척 8촌寸으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1,392.8척의 성벽이 늘어난 셈인데, 토성 부분을 허물고 돌로 새로 쌓는 과정에서 성벽의 외연이 확장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태조 때와 세종 때 사용한 척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처럼 큰 공사를 겨우 38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던 만큼 인부들의 고통과 희생은 적지 않았다. 공사 기간에 각 도 군인의 사망자 총 수는 872명에 달하였다. 또한 이번 개축 공사 중에 인부 동원이 너무 많아서 도성에 쌀이 귀해지고, 먼 지방 사람들은 소·말·베 등으로 쌀을 바꾸어 먹어도 굶주려서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공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중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았다.

세종 때의 도성 개축 이후 작은 규모의 도성 수축은 이따금씩 있었으나 대규모의 수축은 없었다. 18세기 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도성을 수축하였는데, 숙종 30년(1704)부터 6년간에 걸쳐 대대적인 수축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영조 21년(1745)에는 40여 곳의 무너진 곳과 성벽 위의 여장女墻에 대한 수리 공사와 함께 방어가 취약한 부분에 치성雉城이 축조되었다. 이후 도성의 수축 공사는 19세기를 거쳐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기 얼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때의 성벽들을 구분하기

태조 때의 성벽은 자연석을 거칠게 가공하여 쌓은 것이다. 아래쪽에는 넓은 돌을 놓고 위쪽으로 갈수록 작은 돌로 쌓았는데 위로 갈수록 조금씩 들여쌓는 방법을 썼다. 돌과 돌 사이의 틈은 작은 쐐기돌로 메웠다. 돌은 주로 화강암과 편마



태조시기 성벽



세종시기 성벽



숙종시기 성벽



순조시기 성벽

암 두 종류가 사용되었으며 거의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가져다 썼다. 태조 때의 성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남산 지역이다.

세종 때의 성벽은 태조 때의 그것보다 가지런히 정리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석재 가공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래쪽에는 장방형(직사각형)으로 된 돌을 쌓았는데 좌우상하로 닿는 접촉면을 가능한 한 늘리기 위해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내밀고 끼워지도록 그랭이 공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랭이 공법이란 인공석을 자연석에 맞추어 깎아 맞물리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태조 때와 마찬가지로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들여쌓는 공법을 썼고, 석재는 모두 화강암이다.

숙종 때의 성벽은 돌을 한 변이 45cm 정도의 정방형(정사각형)에 가깝게 규격화하여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40~60㎝로 불규칙한

모습이 나타난다. 돌을 다듬어 완전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ㄱ'·'ㄴ'자의 형태로 만든 것도 많이 보이는데, 석재 간의 마찰면을 늘려 성벽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태조나 세종 때와는 달리 성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석재의 종류는 세종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화강암이다. 숙종 때 성벽의 가장 큰 특징인 여장이 여러 곳에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장이란 성 위로 올려진 낮은 담장을 말하며 '성가퀴'라고도 한다. 성밖의 상황을 살피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현대에 복원된 여장은 모두 이 숙종 때의 성곽에 남아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확연히 구분 가능한 성벽 개축의 시기를 태조, 세종, 숙종 때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서 성벽을 쌓은 돌의 크기가 정형화.(가운데 점) 규격화되는 시기가 순조 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시기 성돌은 한 변이 60㎝내외로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다.

(위가야)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연려실기술』

『택리지』

한국역사연구회 편,『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육백년사』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7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육백년사』문화사적,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8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2천년사』1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2천년사』1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이성무,『조선왕조사』1, 동방미디어, 1998

신정일,『다시쓰는 택리지1 경기·충청편』, 휴머니스트, 2004

이원명,「한양 천도 배경에 관한 연구」『향토서울』43, 1984

이원명,「한양정도와 풍수지리설의 성격고」『인문논총』1, 1995

이태진,「한양 천도와 풍수설의 쇠퇴」『한국사시민강좌』14, 일조각, 1994

한영우,「한양 천도의 민족사적 의의」『향토서울』45, 1998

주석

1.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1일
2.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3일
3.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3일
4.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9월 3일
5.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19일, 2월 9일
6.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2월 1일
7.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2월 11일
8.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2월 23일

9.『태조실록』권6, 태조 3년 8월 11일
10.『태조실록』권6, 태조 3년 8월 12일
11.『태조실록』권6, 태조 3년 8월 13일
12.『태조실록』권6, 태조 3년 8월 24일
13.『태조실록』권6, 태조 3년 10월 25일
14.『태조실록』권6, 태조 3년 10월 28일
15.『태조실록』권7, 태조 4년 1월 29일
16.『태조실록』권8, 태조 4년 9월 29일
17.『태조실록』권8, 태조 4년 10월 7일
18.『태조실록』권8, 태조 4년 12월 28일
19.『태조실록』권8, 태조 4년 윤9월 13일
20.『태조실록』권8, 태조 4년 윤9월 25일;『태조실록』권9, 태조 5년 1월 4일
21.『태조실록』권9, 태조 5년 1월 9일
22.『태조실록』권9, 태조 5년 1월 9일
23.『태조실록』권9, 태조 5년 1월 9일
24.『태조실록』권9, 태조 5년 1월 20일
25.『태조실록』권9, 태조 5년 2월 27일
26.『태조실록』권9, 태조 5년 2월 28일
27.『태조실록』권9, 태조 5년 6월 2일
28.『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7월 3일, 7월 5일
29.『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8월 6일
30.『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9월 24일
31.『태조실록』권14, 태조 7년 8월 26일
32.『태조실록』권14, 태조 7년 9월 5일
33.『정종실록』권1, 정종 1년 3월 7일
34.『태종실록』권10, 태종 5년 10월 11일
35.『정종실록』권6, 정종 2년 11월 13일
36.『태종실록』권10, 태종 5년 10월 5일
37.『세종실록』권12, 세종 3년 7월 3일
38.『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8월 24일
39.『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10월 13일
40.『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10월 25일
41.『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10월 29일
42.『세종실록』권14, 세종 3년 12월 10일
43.『세종실록』권15, 세종 4년 1월 14일
44.『세종실록』권15, 세종 4년 1월 15일
45.『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10월 29일
46.『세종실록』권25, 세종 6년 8월 5일
47.『세종실록』권15, 세종 4년 2월 23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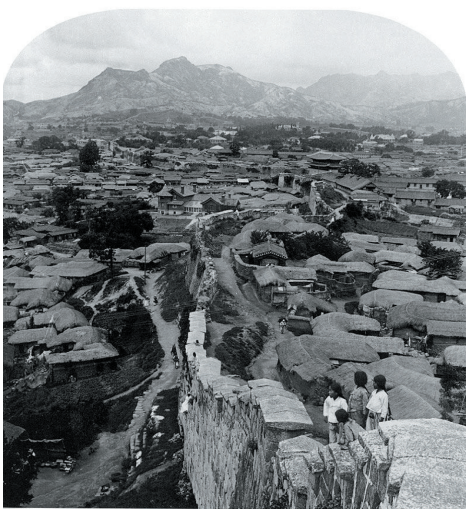
한양도성의 문

한양도성의 문

사대문과 사소문

모든 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다. 따라서 모든 성은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다.

한양도성 역시 적을 막기 위한 구조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다. 16㎢의 넓은 공간을 18㎞가 넘는 긴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양도성은 단 한 번도 방어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다. 오히려 왕의 통치의 공간을 표시하며, 안팎의 사회·정치적 차별을 정당화 하는 구조물로 역할을 했을 뿐이다.



1900년대 초반 한양도성

하지만 성은 완전히 고립된 공

간은 아니다. 성의 안팎은 문을 통해 연결되었다. 성문을 통해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다. 특히 한양도성은 지금의 서울과 같이 자급자족을 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지방에서 모여든 물자를 소비하는 '소비도시'였다. 그러기에 성의 안팎을 연결해주는 문의 역할을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한양도성은 처음부터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총 8개의 문으로 계획되었는데, 그것은 조선이 목덕木德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목덕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8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태조 5년 가을에 도성을 쌓는 공사가 끝나자 인부들을 돌려보내는 기사와 함께 사대문과 사소문의 이름이 등장한다.

> 정북正北은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은 홍화문弘化門이니 속칭 동소문東小門이라 하고,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이니 속칭 동대문東大門이라 하고, 동남東南은 광희문光熙門이니 속칭 수구문水口門이라 하고, 정남正南은 숭례문崇禮門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小北은 소덕문昭德門이니,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 하고, 정서正西는 돈의문敦義門이며, 서북西北은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태조실록』권10, 9월 24일 기묘)

위에 보이는 한양도성 사대문의 이름은 유학의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따서 이름을 따서 정도전이 지었다고 전한다. 인의예지는 동서남북 순으로 들어가 있다. 동쪽의 興'仁'之門, 서쪽의 敦'義'門, 남쪽의 崇'禮'門, 북쪽의 숙청문이 그것이다. 북문은 본래 홍지문興智門이나 홍지문弘智門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숙청문으로 이름이 정해졌다. 일설에 따르면 지智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是非之心을 의미하는데, 당시 위정자들이 백성들이 똑똑해 지는 것이 싫어 공경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의 숙청肅淸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한양도성과 함께 만들어진 8개의 문은 시간이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남았다. 하지만 남은 이야기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문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사대문

숙정문

한양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본래 이름은 숙청문이다. 태조 5년(1396) 완공되었다. 북대문으로 불릴 만도 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이용하는 사람의 수



현재의 숙정문. 위의 누각은 1975년 복원한 것이다.

가 적어서 '대문'으로까지 불리지 못하고 '북문'으로 주로 불렸다. 숙청문에서 숙정문으로 바뀐 이유와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숙정문肅靖門이란 이름은 중종 18년(1523) 6월에 처음 등장하여 그 이전에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왕조실록』에는 그 이후에도 숙청문이란 문 이름이 드물지만 사용되고 있다. 숙정문이 사용되기 이전 마지막으로 숙청문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중종 4년(1509) 4월이다.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은 모두 문루가 있지만, 숙정문은 문루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 정북쪽 문을 숙정문이라 하는데, 위에 집 지은 것架屋이 없으며 닫아둔 채 다니지 않는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 제1권)

위의 기록을 보면 가옥, 즉 문루가 없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다만 태조 대에는 문루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1975년 복원 당시 문루를 만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1530년에 발간된 것이니 만들어진지 150년도 되지 않아 문루가 없어진 것이다. 한양도성의 다른 문은 문루가 낡으면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유독 숙정문만 없이 방치한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숙정문은 태종13년(1413) 풍수상에 이유로 막아버렸다. 세종 4년(1422)에는 다시 숙정문을 열어 군사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하였지만 1530년 당시에는 다시 막혀있었다. 연산군 10년(1504)에 '숙정문을 막고 오른쪽에 새 문을 만들라.'는 전교가 있었지만, 옮겼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평소에는 막혀 있는 숙정문이었지만 풍수지리 상 북쪽이 음陰과 물을 의미하

였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문을 열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숙정문 관련 기록은 대부분 문을 열고 기우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또한 음陰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한다.

> 숙정문은 곧 양주의 북한산으로 통하는 곳인데, 그 문 역시 지금은 폐치閉置되어 있다. 이 문이 어느 때에 폐치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문을 개통하던 당시, 성 안 마을에 남녀 간의 음란한 풍조가 자꾸 일어나므로 폐치하였다고 한다.(『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

위 기록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년~1856)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내용이다. 이것을 보면 숙정문은 조선 후기까지 폐쇄되어 있었다. 또한 그 이유를 '음란한 풍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숙정문이 음陰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10호로 지정되었는데, 1968년 북한 간첩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1.21 사건으로 일반의 출입이 차단되었다. 2006년 4월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군사 통제 지역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이 가능하다.

흥인지문

본래의 이름은 흥인문이다. 고종 대 동쪽의 지세가 약하다고 하여 한 글자를 추가하여 흥인지문이 되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동대문으로 많이 불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흥인문과 동대문이 섞여서 사용된다.

흥인지문은 태조 5년(1396) 한양도성이 만들어질 때 함께 건설되었으며, 단종 1년(1453)에 고쳐짓고改作, 고종 6년(1869)에 나무의 부재가 전체적으로 썩어 전면



1902~1903년 사이의 흥인지문. 왼쪽으로 옹성이 보이고,
지붕 오른쪽으로 동대문 화력발전소 굴뚝이 보인다.

적으로 다시 보수 공사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흥인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문을 둥글게 둘러싼 옹성이다. 옹성은 한양도성의 8개의 문 가운데 유독 동대문에만 설치되어 있다. 본래 성문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한 장치인 옹성은 조선 초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태조 6년(1397) 1월 27일에 이성계는 직접 흥인지문에 나아가 옹성을 세울 자리를 살피고 있으며, 옹성이 완성된 후인 4월 28일에도 역시 직접 행차하여 옹성을 둘러본다.

이렇게 유독 흥인지문에만 옹성이 있는 것은 동대문이 낮은 곳에 건설되어 지세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태조 5년(1396) 2월 28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동대문에는 지세가 낮으므로 밑에다가 돌을 포개어 올리고 그 뒤에 성을 쌓았으므로, 그 힘이 다른 곳보다 배나 되었다(『태종실록』권9, 5년 2월 병진).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흥인지문은 낮은 지세 때문에 공사에 많은 노력이 투자되었다. 동대문의 낮은 지세는 조선 왕조의 골칫거리였다. 성리학 국가를 표방한 조선이었지만, 한양의 도읍지 선정부터 풍수지리는 사용되었고, 왕릉의 위치 역시 풍수에 의해 결정되곤 했다. 동대문의 옹성은 '흥인지문'이라는 이름과 함께 허약한 지세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

흥인지문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것을 공포라고 하는데, 동대문은 기둥위에만 공포가 있는 주심포 양



오늘날의 흥인지문(사진출처: 문화재청)

식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는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숭례문이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종 대 전면적으로 수리하면서 조선 후기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흥인지문이 보물 1호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 문화재 정책 때문이다. 총독부는 남대문을 조선보물 1호, 동대문을 조선보물 2호로 지정하였는데, 해방이후에도 일본의 문화재 관리체계가 이어지면서 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숭례문이 국보1호로, 동대문이 보물 1호로 지정되었다. 흥인지문이 숭례문과 함께 헐리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가 흥인지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숭례문

한양도성의 정문이고 남쪽에 있는 큰 문이라고 하여 남대문으로도 불렸다. 흔히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고 여겨지기도 하나,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문집에도 숭례문과 남대문은 혼용되고 있다.

한양도성의 다른 문들과 같이 태조 4년(1395)에 짓기 시작하여 태조 7년(1398)에 완성되었으며, 세종 30년(1448)과 성종 10년(1479)에 두 번에 걸쳐 크게 수리 하였다. 돌을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 홍예(아치) 모양의 문이 있고,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목조로 된 누각을 올렸는데, 성종 이후 크게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 조선 초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도 하다.

성종 10년(1479) 숭례문을 수리할 당시 숭례문에도 옹성을 쌓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



1900년대 초반의 숭례문. 홍예문 안으로 전차길이 놓여 있다.

- 동부승지 채수가 아뢰었다.

"숭례문을 요즈음 중수하려고 하는데, 아울러 옹성甕城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좌승지 김승경이 말했다.

"중국은 비록 역참이라도 모두 옹성을 쌓았습니다. 숭례문은 중국 사신이 출입하는 곳이니, 옹성을 쌓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 우부승지 유순은 아뢰었다.

"숭례문은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옹성이 없었으니, 모름지기 쌓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임금(성종)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민력民力이 넉넉하지 못하니, 어찌 한결 같이 중국과 같을

> 수 있겠는가? 만약 옹성을 쌓게 되면 마땅히 민가를 헐어야 하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도적이 이 문에 이른다면 이 나라가 나라의 구실을 못할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쌓지 말게 하라."
> (『성종실록』 권100, 10년 8월 기해)

이 기록을 보면 동부승지 채수와 좌승지 김승경은 중국의 사신들이 오는 곳이니 중국에 관례에 따라 옹성을 쌓을 것을 건의한다. 이에 우부승지 유순은 처음부터 옹성이 없었으니 쌓지 말자고 대답한다. 논의를 다 들은 성종은 우리의 국력이 중국과 같지 않고, 옹성을 쌓기 위해서는 민가를 헐어야 하며, 숭례문을 방어할 정도면 이미 나라가 망할 정도이니 옹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하며 옹성을 쌓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턱대고 중국을 따라하지 않고, 공사 때문에 수고로울 백성을 생각하는 성종의 태도가 인상적이다.

한편 이 기록은 숭례문이 한양도성 정문의 역할을 하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숭례문을 '중국 사신이 출입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다. 당시 중국 사신들이 머물렀던 태평관은 바로 남대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의 사신들은 한양에 들어올 때 주로 돈의문 쪽으로 왔으나 한양에 머무는 동안은 숭례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숭례문을 사용한 것은 중국 사신뿐만 아니었다.

> 이 날은 둑제纛祭의 재일齋日이라, 예조에서 출사出仕하지 아니하여, 왕복하는 동안에 때가 늦추어지니, 왜노倭奴들이 노하여 말하기를, '예조에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니 우리는 가겠다.' 하고 드디어 숭례문을 향하여 태평관 앞에 머물렀다가 태평관으로 들어갔다.(『중종실록』 권62 23년 9월 경자)

위의 기록을 보면 일본 사신은 숭례문을 지나 태평관에서 머물고 있다. 일본 사신이 중국 사신들이 머무는 태평관에 머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출입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북쪽의 숙정문이 음陰을 의미하여 물의 기운을 상징했던 것과 반대로, 숭례문은 양陽, 즉 불의 기운을 의미했다. 따라서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화기를 막기 위해 숭례문을 닫았으며, 비가 많이 내리면 숭례문을 열어 비가 멈추기를 기원했다.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숭례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전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1934년 일제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일부가 포탄에 맞아 파괴되었지만 크게 상하지 않아 복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인해 2층 누각 거의 전부와 1층 누각 일부가 소실되었다. 2010년부터 복원작업이 시작되어 2013년 4월 복원이 완료, 일반에 복원되었으나 복원의 부실 논란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돈의문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 서쪽에 해당하여 서대문이라고 불렸다. 태조 5년(1396) 한양도성이 완공될 때 같이 완공되었다. 태종 13년(1413) 6월 서전문西箭門이 완성되며 폐쇄되었다. 태종 대 돈의문의 폐쇄는 이숙번과 관련이 있다.

>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은 큰 공을 이룬 뒤에 세운 공을 믿고 교만하여 같은 반열의 재상들을 종처럼 볼 뿐 아니라 임금이 불러도 병이라 칭탁하고 가지 않았다. … 돈의문敦義門 안에 큰 집을 지었는데, 인마人馬 소리가 싫다 하여 아뢰어서 문을 막고 사람의 통행을 금하니…(『용재총화』 제3권)

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숙번은 자신의 집 주변을 드나드는 사람과 말소리가 듣기 싫어 한양도성의 문을 막아 버린 것이다. 이후 이숙번은 귀향을 가고, 세종 대 한양도성을 다시 개축하면서 서전문은 헐리고, 돈의문은 다시 복구된다.

세종 대 개축되어 존속하던 돈의문은 숙종 37년(1711) 문루가 낡아 대대적으로 다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문이라는 뜻의 '신문' 혹은 '새문'으로 불렸다. 광화문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길을 '새문안길'로 부른 것도 이때부터이다.

조선 초부터 수리를 거쳐 이어져 오던 돈의문의 완전히 파괴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이다. 일제는 전찻길을 확장하면서 서대문 구간을 복선화 하려 하였고, 이를 명분으로 돈의문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현재까지도 한양도성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았다.

돈의문은 중국으로 가는 사진이 출발하는 곳이었고, 중국의 사신이 도착하는 곳이기도 했다. 돈의문 밖, 지금의 독립문 부근에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慕華館이 있었다. 모화는 '중국華을 사모한다慕'는 의미이다. 그 앞에는 본래 홍살문이 세워져 있었는데 중종 32년(1537) 개축 후 청기와를 올리고 이름을 영조문迎詔門, 즉 '조서를 맞이하는 문'이라고 하였는데, 곧 이름이 바뀌게 된다.

> 33년에 중국 사신 설정총이, "맞이하는 것은 조詔·칙勅·뇌賚 등이 있는데, '조'라고만 이름하는 것은 치우친 것 같다." 하면서, 고쳐 현판을 써서 영은迎恩이라고 걸었다. 후에 명 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고쳐 현판 글씨를 썼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제2편)

위의 기록을 보면 영조문은 명나라 사신 설정총이 보기에 부적절한 이름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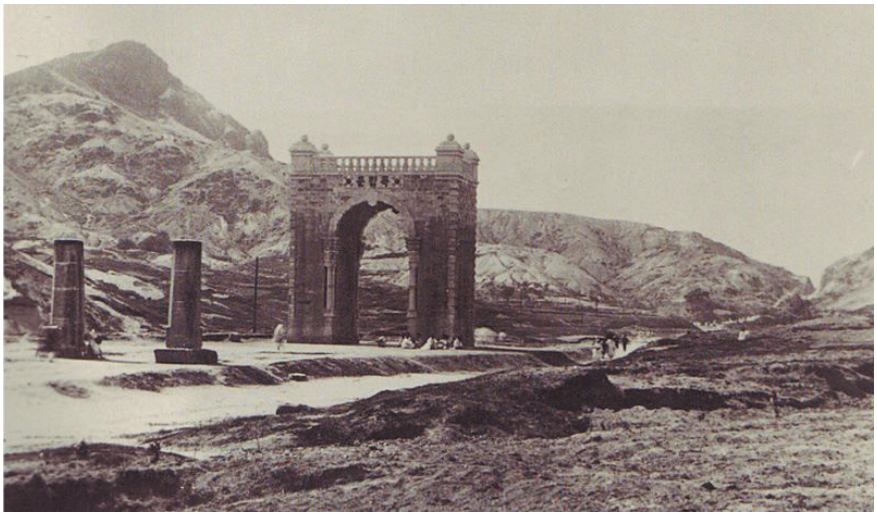


1903년 돈의문 바깥 풍경

다. 그래서 설정총은 '은혜恩를 맞이하는迎 문門'이라는 뜻의 영은문으로 현판을 바꿔었다. 뒷날의 현판 역시 명나라 사신이 직접 써서 바꾼 것이다.

조선의 왕은 중국사신이 오거나 갈 때, 친히 이곳 모화관 까지 와서 사신을 맞이하고, 전송하였다.

>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칙서를 맞이하였다.(13년 8월)
>
> 임금이 몸이 편치 못하여 백관들이 하천추전賀千秋箋에 배례하고 모화관에서 전송하였다.(13년 9월)
>
> 임금이 왕세자 및 백관들을 거느리고 장동아를 모화관에서 전송하였다.(13년 11월)
>
> 윤봉이 토표 5마리를 가지고 서흥을 향하여 떠나가니, 모화관에 거둥하여 전송하고, 정연鄭淵에게 명하여 의주로 동반同伴하여 보냈다.(13년 12월)



1900년대 초반의 독립문. 앞에 영은문의 돌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다.

위의 기록은 모두 세종 13년(1431)의 기록이다. 세종은 13년에만 3번에 걸쳐 직접 모화관에 나아가 중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전송하고 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신하들을 대신 보내어 전송시키고 있다. 이때 왕의 출입은 당연히 돈의문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모화관과 영은문 이름의 담긴 의미와, 중국 사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당시 조선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대한제국시기 독립협회는 모화관을 허물고 이곳에 독립문을 세우는데, 이때의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영은문의 돌기둥은 독립문 앞에 남아 있다.

(박수진)

사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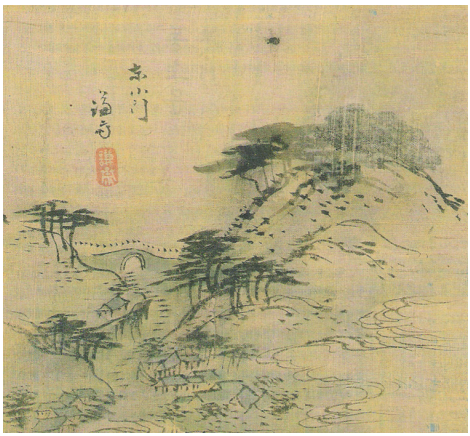
혜화문

혜화문惠化門은 한양도성의 동북쪽 소문으로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한다. 혜화문의 본래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다. 성종 14년(1483)에 창건한 창경궁의 정문을 홍화문이라 하면서, 혼동을 피해 중종 6년(1511)부터 혜화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북대문인 숙청문(숙정문)이 풍수상의 이유로 닫혀있었기 때문에, 혜화문이 도성의 북문 역할을 담당했다. 혜화문은 한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가도와 이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보통 도성의 대문을 지키는 병사가 30명이고, 소문은 20명이었는데, 혜화문을 지키는 병사의 수는 예외적으로 30명이었다. 또한 『동국여지비고』 경도조에는 혜화문을 숭례문·흥인문·돈의문과 함께 도성의 정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혜화문은 도성의 소문이었지만, 사실상 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혜화문 바깥 풍경



〈동소문도〉(겸재 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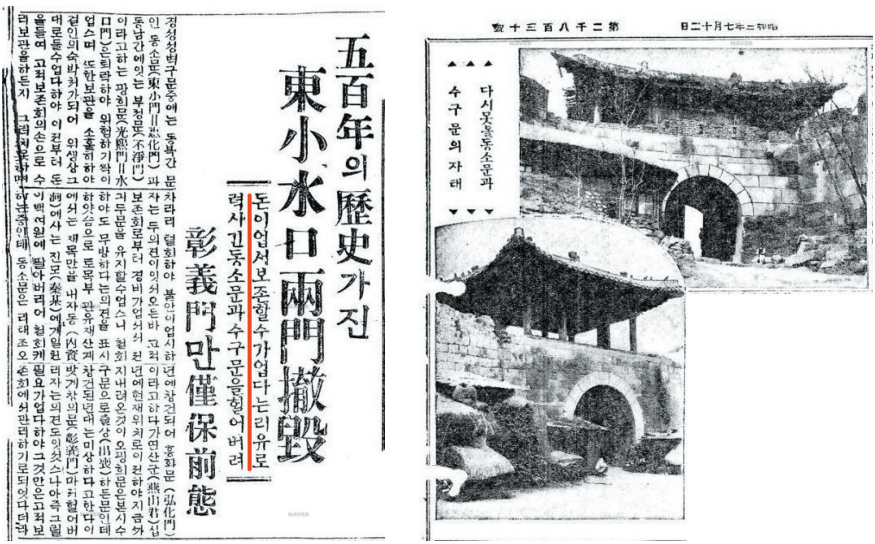
혜화문의 문루는 한양도성의 축성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소실된 것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혜화문은 본래 여진족의 사신이 도성을 출입할 때 사용하던 문이었다. 그러나 여진족이 청을 세운 후에는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던 사대문 즉 돈의문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혜화문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문루가 소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불탔다는 것이다. 만약 임진왜란 때 문루가 불에 탔다고 한다면, 혜화문의 문루는 소실된 채로 150년이나 방치된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 20년(1744)에 문루를 새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혜화문에 옛날에는 문루가 없어 임금이 어영청에 명해 이를 창건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문루가 없던 당시의 모습은 겸재 정선의 동소문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조 30년경 겸재 정선이 그린 <동소문도>는 현재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루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린 그림임에도 문루를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혜화문의 홍예 천장은 다른 문들과 비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통 홍예 천장에는 용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혜화문에는 용이 아닌 봉황이 그려져 있다. 옛날 혜화문 밖 삼선평三仙坪 일대에는 새들로 인한 농사의 피해가 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들의 왕인 봉황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혜화문은 도성의 동북쪽 문으로 한말까지 기능하다가 두 번에 걸쳐 파괴당한다. 이에 관한 신문 기사는 참으로 서글프다.

> 경성 성벽의 문들 중에는 동북간 문인 동소문과 동남간에 있는 부정문이라고 하는 광희문은 낡아 위험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보관을 소홀히 하여 거지의 숙박처가 되어 위생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여 이전부터 돈을 들여 고적보존회의 손으로 수리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철거하여 불안이 없어 하자는 두 의견이 있어왔던바 고적보존회로부터 경비가 없어서 두 문을 유지할 수 없으니 철거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토목부 관유재산계에서는 재목만을 내자동에 사는 진모에게 1200여 원에 팔아버려 철거하게 하는 중인데 동소문은 태조 5년



五百年의歷史가진
東小、水口兩門撤毀
돈이업서보존할수가업다는리유로
력사깁흔소문과수구문을헐어버려
彰義門만僅保前態

다시못볼동소문과 수구문의자태

1928년 7월 12일 『동아일보』 기사

에 창건되어 홍화문이라고 하다가 연산군 10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오.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일제강점기 1928년 혜화문은 보존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루가 헐리고 말았다. 이어 1939년에는 일제가 전차 선로를 연장하면서 남아있던 홍예마저 헐어버렸고, 이 과정에서 혜화문은 완전히 그 모습을 잃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혜화문은 1994년 원래의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복원한 것이다. 그런데 복원이라기보다는 모형건축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혜화문 현판의 원본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혜화문에 걸려있는 현판은 우리의 수준 낮은 문화재 복원 의식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복원된 혜화문

광희문

광희문光熙門은 한양도성의 동남쪽 소문으로 수구문水口門 또는 시구문屍口門이라고도 불린다. 수구문은 태조 때부터 사용된 이름으로 오간·이간수문이 근처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고, 시구문은 도성 안의 시신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수구문은 태조 때부터 사용된 명칭인데, 본래의 이름인 광희문 보다 널리 쓰였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 숙종 16년(1690)에 곽제숭이 남소문을 다시 열기를 청하자 임금이 공조판서 오정위를 보내 살펴보게 하였다. 오정위는 돌아와 숙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뢴다.

> "늙은이를 불러 물어 보니 어느 곳은 문 터이고 어느 곳은 군보軍堡 터라 하였고,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살펴보면 동남에 광희문光熙門이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남소문의 이름인 듯합니다.

여기서 오정위는 광희문과 남소문을 혼동하고 있다. 또한 성문의 터와 군영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많이 황폐해졌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광희문보다 수구문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에서 광희문이라는 이름이 세종 이후, 숙종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광희문의 문루 또한 한양도성의 축성과 함께 만들어졌지만 언제 소실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숙종 37년(1711)에 광희문의 문루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한다. 예조판서 민진후가 숙종에게 수구문을 개설하고, 문루도 조성할



2014년 개방된 광희문

것을 청하였다. 숙종은 이를 윤허하면서도, 문루는 재목을 갖추어 추후에 조성할 것을 명한다. 이때 광희문의 문루를 만들기 위한 재목을 돈의문의 문루 조성에 사용하는데, 이를 보면 조선시대 문루를 조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 숙종 45년(1719) 민진후가 세자(훗날의 경종)에게 수구문의 옛 이름이 광희문이니, 현판을 걸자고 청한다. 현판은 문루에 거는 것이니, 이때에는 문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광희문의 문루는 숙종 37년과 4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에서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다. 또한 시체는 사대문으로 나갈 수 없었고, 사소문인 광희문과 소의문을 통해서만 도성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광희문은 시구문이라고도 불렸다. 자연스럽게 광희문 밖은 원혼이 떠도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혼령을 위로하기 위한 신당神堂이 많이 자리 잡았다. 오늘날

신당동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광희문의 문루는 1915년을 전후하여 무너졌는데, 혜화문과 같은 이유로 1928년 헐리고 말았다. 오늘날의 광희문은 1975년부터 진행된 복원공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의 홍예석축虹霓石築을 해체하여 남쪽으로 15m 이동했고, 문루도 새로 지었다. 복원공사가 시작된 지 39년만인 2014년 2월 17일 일반에 개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소문

우리는 한양도성의 성문을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소문이 더 존재했다. 바로 남소문이다. 남소문은 오늘날 장충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설립된 이유는 세조 2년(1456)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벌아현伐兒峴은 길이 험하여 한강漢江을 경유하여 건너는 자가 많이 병되게 여기니, 만일 남산南山 동쪽에 새 문을 지으면 왕래에 편하다.

남소문은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건의되었고, 다음해인 세조 3년(1457)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소문은 예종 1년(1469), 설치된 지 12년 만에 임원준 등의 건의에 의해 문이 막히고 만다.

> "도읍을 정하던 당초에 어찌 경영經營할 때에 잘 헤아리지 않고서 이 문을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 문을 설치하였으나, 찻길이 통하지 않아서 큰 이익이 없고, 또 음양가陰陽家가 손방巽方을 매우 꺼리

므로 처음에 이 문을 설치할 때에 불편不便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과연 뒤에 의경 세자懿敬世子께서 훙서薨逝하셨으니, 음양가의 설은 비록 믿을 것이 못되나, 이 문은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소문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음양에도 좋지 않아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숙종 때에 남소문을 다시 여는 것에 대해 논했지만 결국에는 열리지 않았고, 언제 철거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소의문

소의문昭義門은 한양도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소문으로 서소문西小門이라고도 한다. 태조 5년(1396) 한양도성을 축조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의 이름은 소덕문昭德門이다.



1890년대 소의문 밖의 풍경

소덕문이 소의문이 된 사연은『경성부사』에 기록되어 있다. 성종 3년(1472)에 예종의 비 한씨의 시호를 소덕왕후昭德王后라 하면서 이를 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의문의 이름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그보다 오랜 시간이 흐른 영조 20년(1744)에 이르러서이다.

> 소덕문昭德門을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 불렀는데, 옛날에는 초루譙樓가 없었다. 금위영禁衛營에 명하여 이를 짓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보고하므로 소의문昭義門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기사에 따르면 문루를 지으면서 소의문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이보다 앞선 시기인 영조 8년(1732)의 기사[1]에도 소의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문루를 만들고 현판을 달기 전부터 소의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문의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가라는 것 보다, 왕실의 시호를 문의 이름으로 정했다는데 있다.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문은 왕실의 시호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도성 안에서 죽은 자는 소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소의문은 광희문과 함께 도성 밖으로 시체를 옮기는 문이었다. 광희문을 통해 주로 평민들의 시체가 나왔다면, 소의문은 양반들의 시체가 나오는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소의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1914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의해 주변 성곽과 함께 철거되었다. 오늘날에



표지석만이 남은 소의문(소덕문)터

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만 전해지고 있으며, 서소문동이라는 지명만이 소의문을 기억하고 있다.

창의문

창의문彰義門은 한양도성의 서북쪽 소문으로 자하문紫霞門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의 지명이 장의동 이어서, 장의문藏義門이라 불리기도 했다. 창의문이란 의를 드러내는 문이라는 뜻인데, 반면 장의문은 의를 감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흥미롭다.

창의문은 태조 5년(1396) 한양도성의 축성과 함께 건립되었다. 도성의 사소문으로 활약하던 창의문은 태종 13년(1413) 풍수학생 최양선의 상서에 의해 변화를 겪는다. 최양선은 태종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지리地理로 고찰한다면 국도國都 장의동藏義洞 문과 관광방觀光坊 동쪽 고갯길은 바로 경복궁景福宮의 좌우 팔입니다. 빌건대, 길을 열지 말아서 지맥地脈을 온전하게 하소서."

최양선은 창의문이 경복궁의 좌·우 팔에 해당하므로 길을 닫아 지맥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태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창의문은 닫히고 말았다. 닫혀 있던 창의문은 세종 4년(1422) 도성을 수축하면서 다시 열린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시기 도성을 수축할 때, 숙청문과 창의문을 열어 군인들이 출입하는 길을 통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존재한다. 이처럼 공역을 수행할 때에는 왕명에 따라 일시적으로 문을 열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창의문이 백성에게도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종 2년

(1452) 풍수학 문맹검은 장의문이 천주(군주)의 자리이므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아 상시로 닫고 열지 말 것을 청했다. 또한 예종 1년(1469)에는 임금이 병조에 장의문을 열지 못하게 지시하는데 이를 보면 암암리에 창의문 출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시대 풍수지리 사상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창의문을 닫는 공식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창의문을 닫는 이유가 비단 풍수지리 뿐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 9년(1617)의 기사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 선수 도감繕修都監이 아뢰기를,
>
> "이번의 이 이궁離宮의 바깥 담장을 쌓는 것은 주위가 아주 넓어서 대석臺石과 잡석雜石을 운반하여 들이는 공역이 몹시 큽니다. 지난해에 창덕궁



사소문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한 창의문



〈창의문도〉(겸재 정선)

昌德宮을 영건할 때 이미 떠놓고서 쓰고 남은 돌이 많은데, 지금 만약 이를 가져다가 쓴다면 지세가 편하고 가까워서 공력功力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완전히 쌓을 동안에는 창의문彰義門을 열고서 운반하여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무신과 금군 군사를 많이 배정해서 십분 엄하게 지키라."

광해군은 세종이 그러했듯이 창의문을 열 것을 윤허하였다. 그러나 무신과 금군 군사를 많이 배치하여 엄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임금이 직접 방어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창의문의 위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창의문은 조선시대 왕이 거처했던, 경복궁과 덕수궁에 매우 인접해 있고, 산지이기 때문에 적병이 숨어있기에도 용의한 곳이었다. 그런 점에서 창의문은 도성 방어에 있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었다.

광해군의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창의문은 역사를 바꾼 문이 되었다. 광해군 15년(1623) 이귀 등 서인일파는 창의문을 돌파해 창덕궁으로 들어가 반정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이다. 광해군는 반군이 대궐에 들어온 뒤에야 겨우 피신할 수 있었는데, 이는 창의문과 대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창의문은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핵심 거점이었던 것이다.



인조반정의 정사공신이 기록된 현판



홍예문 천정에 그려진 봉황

창의문의 문루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고 한다. 복원과 관련된 기사는 영조 16년(1740)에 등장한다. 훈련대장 구성임이 창의문은 인조반정 때 의군이 들어온 곳이니 개수할 것을 건의한다. 영조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해 봄에 개수를 명했다. 창의문의 문루는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4소문 가운데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2] 또한 영조는 1743년 북교[3]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던 중, 인조반정의 정사공신 명단을 현판으로 걸어 놓을 것을 명했다. 현판에는 1등 공신부터 3등 공신까지 52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현판이 창의문 문루에 걸려 있다.

창의문의 홍예에는 닭의 모습을 한 봉황의 조각이 새겨져있다. 아울러 홍예 천장에도 봉황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혜화문과는 다르게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창의문 밖의 지세가 지네를 닮았다고 하여, 천적인 닭을 그려 넣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의 멋과 해학을 살펴볼 수 있다.

(이승준)

문에 얽힌 이야기



화재 전의 숭례문 현판

숭례문 현판은 누가 썼을까?

숭례문의 현판은 다른 현판과 달리 세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그 글자 역시 명필로 되어 있어 누가 썼는지 의문을 자아내는데, 이 의문은 조선시대부터 있어왔으며, 지금도 누구의 글씨인지 명확하지 않다.

먼저 양녕대군이 썼다는 설이 있다.

> 정남쪽 문을 숭례문이라 하는데, 겹처마요 양녕대군이 현판 글씨를 썼으며…(『신증동국여지승람』1권, 비고편 「동국여지비고」1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대 나온 『동국여지승람』을 수정·보완하여 중종 25년(1530) 발간된 책이다. 국가에서 발간 된 책이고, 숭례문이 세워진 시기와 가장 가까운 자료로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기술』 등도 숭례문의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쓰인 현판이 계속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재기 되었다.

귤산橘山 이유원李裕元이 쓴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화재 이후 현판이 다시 만들어 졌다고 전한다.

> 숭례문이란 현판은 양녕대군의 글씨라고 세상에서 전하는데, 이것은 『지봉유설』에서 나온 말이다. 연전에 남대문을 중수할 때 양녕대군의 사손祀孫인 이승보李承輔 대감이 윤성진尹成鎭 대감과 함께 문루에 올라가서 판각의 개색한 것을 보았더니, 후판 대서後板大書는 공조 판서 유진동柳辰仝의 글씨였다 한다. 아마 이것은 옛날 화재가 난 뒤에 다시 쓴 것인가 싶다.(『임하필기』 35권, 벽려신지薜荔新志)

이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승보가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미 공조판서 유진동의 글씨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유원은 글씨가 바뀐 이유를 '옛날 화재가 난 뒤 다시 썼기 때문'으로 추정까지 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도 있다.

> 숭례문의 편액은 정난종鄭蘭宗이 쓴 것이다. 그렇다면, 국초에 걸었던 편액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양녕대군이 어째서 다시 썼단 말인가. 난리가 평정된 후 괴이한 광선으로 인하여 다시 찾아 걸었다고 하였으니, 정공鄭公은 또 어떻게 해서 그를 써서 걸었단 말인가. 하물며 정공은 세조 때 사람으로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비판碑版이나 종명鐘銘을 어명에 의해 많이 썼으니, 숭례문의 편액도 그의 글씨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글자체를 보아도 바로 그의 서체임이 분명하다.(『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

위의 글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글자체 등을 보아서 정난종의 글씨가 확실하며, 양녕대군 설은 임진왜란 당시 사라졌던 현판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추사 김정희는 또 다른 설을 제기 했다.

> 지금 숭례문 편액은 곧 신장申檣의 글씨인데…(『완당전집』 제7권, 書贈洪祐衍)

위의 글인 홍우연이란 사람에 김정희가 보내는 글이다. 이 글에서 김정희는 조선의 유명한 서예가와 그들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숭례문 현판을 쓴 사람을 조선초기의 문신인 신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리해보면 숭례문 현판은 양녕대군, 유진동, 정난종, 신장 등이 썼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누구의 글씨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 모두가 조선 초기의 이름난 명필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누가 썼건 현재 남아있는 숭례문 현판의 글씨가 명필임은 분명한 것이다.

돈의문과 서전문, 그리고 이숙번

돈의문은 태조 5년(1396) 처음 만들어진 후 17년만인 태종 13년(1413) 폐쇄되는데 이 이야기에 중심에는 이숙번이 있다.

> 돈의문敦義門 안에 크고 훌륭한 집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과 말소리를 듣기 싫다고 위에 아뢰어서 돈의문을 막고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것을 금하였으며…(『연려실기술』 제2권)

위의 내용은『연려실기술』제2권 태종조고사본말에 있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숙번은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돈의문 근처에다 집을 짓고, 사람들이 다니는 소리가 싫다고 하여 위에 말해 돈의문을 막았다. 당시 이숙번의 권세로 보아 이숙번이 말한 위는 태종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 왕조에서

풍수 등의 이유로 도성의 문을 폐쇄한 적은 있지만 한 명의 신하 때문에 문을 폐쇄한 일은 없으니 당시 이숙번의 권세와 그에 대한 태종의 신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이숙번의 권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돈의문의 폐쇄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태종은 새로운 문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전문이다. 그런데 서전문의 위치도 이숙번과 관련이 되어 있다.

> 정부에 명하여 신문新門을 성城의 서쪽에 열어서 왕래에 편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이를 상지相地하는데, 혹자가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의 집 앞에 옛길이 있으니 적당하다고 말하니, 이숙번이 인덕궁仁德宮 앞에 소동小洞이 있으므로 길을 열고 문門을 세울 만하다고 말하매, 정부에서 그대로 따랐으니, 이숙번을 꺼려한 것이었다.(『태종실록』 25권, 13년 6월 병인)

이를 보면 새 문인 서전문 역시 이숙번의 집 근처로 나게 되어 있었다. 아마 이숙번은 서쪽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에 집을 지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이 싫어 돈의문까지 폐쇄한 이숙번이 이를 찬성할 리 없었다. 이숙번은 이를 반대하고 인덕궁 근처의 길을 추천하고 조정도 이를 따른다. 돈의문을 폐쇄한 이숙번의 권세로 봐서는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런데 이숙번의 권세를 보여준 것은 조정의 공론을 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문을 내라고 추천 한 인덕궁은 상왕 정종이 거처하고 있던 곳이라는 점이다.

정종은 태종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곧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실권이 없는 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왕호를 갖고 있었으며, 창업주 태조의 아들이고, 현 왕의 친 형이었다. 이숙번은 이런 정종의 거처 앞으로 길을 내자고 주장한 것이었

고, 조정에서는 이숙번의 눈치를 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으니 당시 이숙번의 권세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태종이었다. 이숙번의 권세도 태종의 신임 안에서만 가능했다. 이숙번의 행동이 거침없어지자 사헌부와 사간원은 그를 탄핵하기 시작했다. 결국 태종은 그를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 보냈으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부르지 않았다. 세종 대 개국 초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 『용비어천가』를 만드는데 참여하며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편찬이 끝난 후에는 유배가 풀려 경기도에서 살았지만 끝내 정계에 복위하지는 못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일화이다.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

지금의 서울에서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떠올리긴 쉽지 않다. 조선시대 한양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고, 성문과 성벽은 군졸들이 항상 지키고 서 있었다. 비록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단 한 번도 방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성벽이었지만 성벽은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공간적으로는 안팎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였다.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문이었다.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의 사대문과, 혜화문, 광희문, 소의문, 창의문의 4소문, 이렇게 8개의 문을 통해 사람들은 성의 안팎을 드나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 이야기도 많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며 남긴 가장 많은 이야기는 바로 헤어짐과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

장면 1 | 1612년 4월 흥인문 밖 어느 민가

권필(1569~1612)은 동대문 밖을 나서며 생각했다. '살아서 다시 이 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정치가 싫어, 얽메이는 것이 싫어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추천되었을 때에도 거절하였다. 명나라의 대문장가라고 하는 고천준顧天俊이 사신으로 왔을 때 영접할 문사로 뽑혀 영접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맞은 공직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피하려던 정치에서 끝내 자유롭지 못했다.

처음 김직재가 역모로 조사 받을 때 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자신과 연루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옥사가 확대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자신은 잡혀 국문장에 끌려왔다.

국문장에서야 자신이 끌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조수륜趙守倫에게 주었던 시가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시였다.

宮柳靑靑花亂飛 궁궐 버들 푸르고 꽃은 어지러이 나는데
滿城冠蓋媚春暉 성안 가득 벼슬아치들 봄볕에 아양 떤다
朝家共賀昇平樂 조정에서는 다 같이 태평성대 축하하거늘
誰遣危言出布衣 그 누가 위태한 말 포의 입에서 나오게 했나

그는 자신이 쓴 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 임금의 잘못을 간하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였다. 얼마 전 전시殿試에서 임숙영이 임금의 정사의 잘못된 점을 말하였다가 과거합격을 취소당했다. 언로를 넓혀 더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비판을 기꺼이 감수해야할 임금이 과거에서 자신을 비판했다고, 합격을 취

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 세태를 한탄하여 쓴 시였다. 어떤 역심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임금에 대한 걱정과 충정을 담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임금은, 그리고 임금을 둘러싼 사람들은 그의 시에서 역심을 읽었다.

국문장에는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백사 이항복도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이항복은 눈을 피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했다.

> "권필은 일개 방외의 선비인데 시안詩案으로 죄를 얻는다면 성세盛世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러한 은거하는 선비에게 혹 중형을 가한다면 선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면하기 어려우니, 형장을 가하여 고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임금은 끝내 이항복의 말을 외면했다. 이항복은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용히 국문장을 떠났다. 이윽고 고문이 시작되었다. 고문은 가혹했다. 생전 처음 당해보는 고통이었지만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았다. '역모'는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는 늪이었다. 먼저 고문을 받던 조수륜은 자신이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여장汝章이 나로 말미암아 죽는구나."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아닙니다. 공의 탓이 아니에요'라고 답하려 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조수륜은 죽어 있었다. 어이가 없고, 슬프고, 무서워 그는 통곡했다. 고문은 계속됐다. 몇 번이고 까무러친 후에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삶을 포기하는 순간 고문이 멈췄다. 한 관리가 와서 말했다. '유배를 떠날 준비를 하시오'

죽지 않은 것은 이항복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왕을 설득시켜 그를 죽음에서 구했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유배지 해남까지는 까마득히

먼 길이었다. 이제 겨우 동대문을 나섰지만 더 걷는 것은 힘들었다. 그를 유배지까지 데려가던 포졸들도 무리라 생각했는지 결국 근처 민가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했다. 그가 동대문 밖 민가에 머문다는 소문이 저자에 돌자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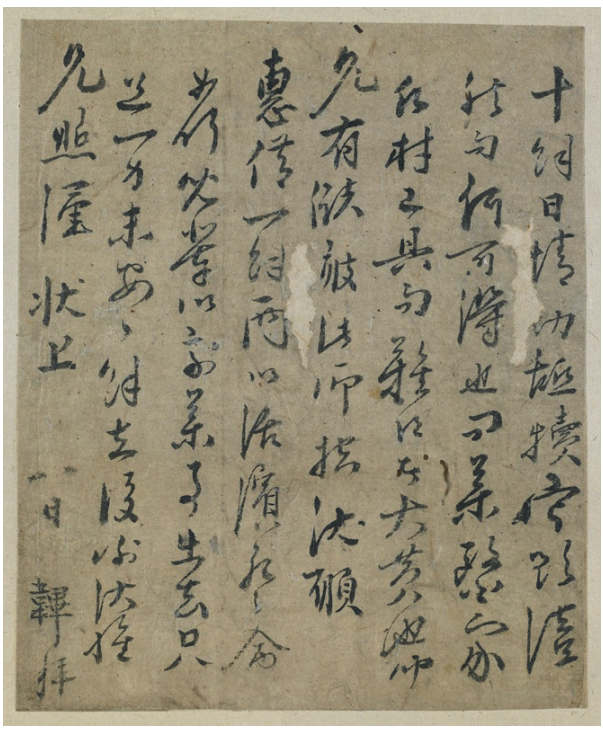
권필은 쉬고 싶었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차마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모인 사람들은 위로의 말과 함께 가져온 술을 한 잔씩 건냈다. '술을 마셔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술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게 한잔, 두잔 그는 술을 받아 마셨다. 그러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자고 싶었다.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窈窕淸江曲 그윽한 맑은 강굽이에
風煙自一家 풍연의 경치 절로 일가로구나
寒宵峯吐月 추운 밤에 봉우리는 달을 토하고
落日浪吹花 지는 해에 물결은 꽃을 불어 간다
竹嫩生新影 대나무 여린 싹은 새 그림자 돋고
梅殘倚古査 매화 진 꽃잎은 늙은 등걸에 기댔다
知君丹竈在 아노라 그대는 단조가 있으니
早晩躡蒼霞 조만간에 푸른 안개 밟고 갈 것을

십 여 일 동안의 정이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간절하여 차라리 갑자기 죽어버리고자 하나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약을 물어보고 모든 약재를 이미 갖추었으나 얻기 어려운 것이 대황大黃[4]입니다. 형님께서 비축해 놓은 것이 있다고 들어서 감히 이렇게 부탁드립니

다. 한 량兩정도를 빌려주시어 거의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약을 조제하는 일로 나가서 다만 한 명의 하인을 보내니 매우 미안합니다. 나머지는 뒤의 답장에서 하기로 합니다. 살펴주시기 바라며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1일 필韠 올림.



권필의 편지(성균관대 박물관 소장)

장면2 | 15세기 중반 어느 초가을, 흥인지문

1.

爲送吾君起病身 선생을 송별하려고 병든 몸 일으켜서

興仁門外觸炎塵 흥인문 밖에서 더운 먼지 덮어쓴다오

天涯離別自今夕 하늘 끝의 이별은 오늘 저녁부터이니

蕎麥花前忍淚人 메밀꽃 앞에서 눈물 참는 사람이라오

2.

東郊餞飮徐男子 동교에서 술잔 들어 서남자를 전별하니

不與茅容說世間 모용과 더불어 세상사를 말하지 않도다

吾道傷心立無地 우리의 도는 애닯게도 설 땅 없지만

先生坦腹百年閒 선생은 편히 누워서 일평생 한가하리

(남효온,추강집 제3권, 시, 칠언절구)

위의 두 시는 추강 남효온(1454~1492)이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을 흥인문(동대문)에서 전송하며 지은 것이다. 김시습은 세종 때 왕 앞에 나아가 시를 지어 능력을 인정받은 천재였다. 하지만 그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방랑하며 지냈다. 단지 방랑했을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세조 당대의 관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당대에는 모두가 교류를 꺼리는 인물이었다. 다만 남효온은 이정은과 안응세·홍유손과 함께 변하지 않고 김시습과 교류하였다.

남효온은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세조 때 승승장구한 남이, 훗날 영의정까지

지낸 남곤도 모두 남효온과 같은 집안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김시습과 같이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역시 세상을 등지고 유랑하며 지냈고, 그래서 김시습과 같이 생육신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남효온은 김시습의 제자였다. 나이차이도 스무 살 가까이 났고, 실제로 그의 문하에서 배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둘은 친구처럼 지냈다. 지금과 같이 한 살, 두 살을 따지는 나이 관념은 조선시대에는 생소한 것이었지만, 스무 살 가까운 나이 차이의 우정은 당대에도 흔하지 않았다. 둘이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는 다음 일화에서 나타난다.

효온은 마당에 들어서며 "동봉東峰(김시습의 다른 호)!"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젖힌 시습은 마당에 서 있는 효온을 보자 "추강!"하며 마주 달려 나왔다.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벗들은 서로 얼싸 안고 그리웠던 정을 나누었다

서로를 오랜 친구로 느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친한 벗이었지만 이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세조의 즉위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랑 생활을 해야 했고, 교류도 쉽지만은 않았다. 위의 두 시는 그런 그들이 어느 초가을에 만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질 때의 심정을 너무나 잘 드러낸다.

장면 3 | 1873년 11월 12일, 숭례문

선생이 옥에서 나오니, 도성의 백성들이 뛸 듯이 기뻐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모두 선생의 얼굴을 한 번 보기를 원하여 지나는 곳이나 쉬는 곳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또 주찬酒饌을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이가

> 많았다. 그러나 벼슬아치와 유생들은 혹 누陋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모두 문을 닫아 버리고 들어앉아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오직 홍암 박공이 숭례문 밖에 나와 전송하면서 소疏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회포를 펴며 정답게 담소하고 겸하여 노자도 주었다.(최익현, 『면암집勉菴集』,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1권, 연보)

최익현(1833~1906)은 다시 한 번 승부를 걸었다. 그는 위세 당당한 흥선 대원군의 집권초기의 경복궁 중건 정책을 반대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한다. 이후에도 그는 대원군의 서원철폐정책에도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뼛속까지 성리학자였던 그에게 임금이 장성했음에도, 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 두 번과 이번의 상소는 달랐다. 이전까지는 대원군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대원군의 섭정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 위험부담이 이전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신념만으로 위험을 무릅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임금인 고종과 왕비가인 민씨 일족을 믿었다. 특히 평소 대원군의 말이라면 거스른 일이 거의 없는 고종은 최익현이 대원군의 정책에 반대했을 때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기도 했다.



면암 최익현 초상(보물 제1510호)

결국 상소 이후 그는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된다. 많은 대신들이 그를 탄핵했

다. 고종은 최익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 그의 편을 들어줬지만, 아직 고종은 최익현을 풀어줄만한 힘이 없었다. 결국 그는 제주로 위리안치(귀향을 보내고, 귀향 간 집에 울타리를 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를 가게 된다.

1873년 11월 12일, 형벌이 결정되고 옥에서 나온 그는 먼 길을 떠나기 전 숭례문을 통해 잠시 집에 들르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그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백성들은 최익현이 일단 옥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여 몰려들었으나, 유생들은 아직은 서슬파란 대원군의 위세에 눌려 마음 것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오직 홍암弘菴 박공이라고 불린 박경수만이 나와 그를 맞이하고 귀향길에 쓰라고 노자도 준다.

여기까지만 보면 최익현의 승부수는 결국 패착이었다. 하지만 훗날 계유상소癸酉上疏라고도 불리는 이 상소는 결국 대원군 실각의 시발점이 된다. 대원군 실각 이후 최익현은 고종에 의해 다시 중용되니 그의 승부수는 결국 성공한 것이었다.

(박수진)

혜화문 : 이태준의 눈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혜화문(동소문) 밖 성북동의 모습

일제 강점기 혜화문 밖 성북동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교외지역이면서 지가가 싼 편이라, 서민들이 주로 살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태준이다. 이태준은 혜화문에서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이태준은 월북작가였기에 80년대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운문에 지용, 산문에 태준' 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당대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이태준은 성북동에 살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성북동을 배경으

로 하는 작품들이 여럿 존재한다. 작가가 살던 당시 성북동 일대는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살지만, 아직 인정이 남아있는 성 밖 마을이었다. 작가는 배우지 못해 어리석지만, 악하지는 않은 하층민들에게 애정을 느끼면서 주로 자전적인 면들을 바탕으로 관찰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5)]

>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 무어 밖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 그는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이태준「달밤」중에서)

이태준의 단편 소설「달밤」은 1933년 11월 발표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0년대의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는 풍속소설로 '나' 와 신문 보조배달부 황수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와 이곳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작품 속 황수건은 보조배달부에서 원배달부가 되는 것이 소원인 어리석고 못난 사내이다. 그러나 그는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도 순수하며 순정을 갖고 살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 '나'를 통해 황수건,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황수건은 원배달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보조배달부의 일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마저 도망가고 말았다.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 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을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태준「달밤」중에서)

소설에 나타난 모습을 모두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소설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매체라는 것이다. 이태준의 단편 소설에서 보이는 1930년대 동소문 밖 성북동의 모습은 애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 알 수 없



수연산방 (이태준 고택)

는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곳이다.

작가의 작품이 발표될 무렵의 성북동은 일제의 도시 확장 계획에 의해 주거지로 개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태준은 수필에서 그와 관련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 요즘 성북동과 혜화동엔 짓느니 집이다. 작년 가을만 해도 보성고보에서부터 버스 종점까지 혜화보통학교 외에는 별로 집이 없었다. 김장 배추밭이 시퍼런 것을 보고 다녔는데 올 가을엔 양관, 조선집들이 제멋대로 섞이어 거의 공지 없는 거리를 이루었다. 성북동도 지형이 고르기만 한 데는 공터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집을 나서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새로 짓는 집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것이다. (이태준「집이야기」)

> 아무커나 우리 성북동의 봄은 순동양적, 순조선적 봄이어서 좋다. 요즘 꼴같잖은 양관들을 짓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꾸라를 심어놓는, 그래서 성북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딱한 친구들이 생기는 것은 약간치 않은 비애이긴 하다만. (이태준「고목」중에서)

도시의 확장은 한양도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던 경京과 향鄕을 해체시켰다. 다시 말하면성 안과 성 밖의 구별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그 경계가 흐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안타까움을 작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광희문 : 만병통치약 시구문 돌가루

한양에 가면 시구문 돌가루를 긁어오라는 말이 있었다. 시구문 돌가루는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었는데, 어떤 병도 시구문이 겪은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광희문은 어떤 고난을 경험했던 것일까? 광희문이 경험한 첫 번째 고난은 임진왜란이다. 왜란 당시 한양을 점령한 왜군은 조선의 양민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광희문 밖에 내던졌다. 당시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파천했다. 왜군의 만행 앞에 국가는 무능했고, 수없이 많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았다.

임진왜란의 상흔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병자호란은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한,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때 인조가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면서 통과한 문이 바로 이 광희문이다. 본래 조선의 임금은 주로 사대문으로 다녔다. 그런데 시체가 나가는 문인 시구문으로 부리나케 도망간 것을 보면 병자호란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광희문의 고난은 19세기를 지나서도 계속됐다. 1880년대 후반 조선에는 콜레라가 창궐했다. 당시 조선은 콜레라를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감염 된 사람들은 광희문 밖에 산 채로 버려져 죽음만을 기다렸다. 광희문에 얽힌 슬픈 사연은 또 있다. 1907년 일제는 헤이그특사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어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불복한 대한제국 군인들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그러나 일제의 막대한 무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일제는 희생된 대한제국 군인의 시신 120여구를 광희문에 늘어놓고, 가족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광희문에는 나라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며칠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광희문은 조선 500년간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해온 문으로 역할했다. 개방된 광희문은 이제 '널리 빛을 발하는 문'이라는 본래의 이름처럼 밝은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소의문 : 서소문 밖 네거리 사형장

조선시대 소의문(서소문) 밖 네거리에는 사형장이 있었다. 태종 16년(1416)에 사형장의 장소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한다.

> 사람을 사형하는 장소를 정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 "사람을 동대문東大門 밖에서 사형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사社 에서 죽인다.' 하였는데, '사社는 우편에 있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서소문西小門 밖 성밑 10리 양천陽川지방, 예전 공암孔巖 북쪽으로 다시 장소를 정하소서."
>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 초기의 사형은 동대문 밖에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미편하다는 이유와, 서경의 예전 제도에 어긋난다고 하여 서소문 밖으로 옮겨간다. 사형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국가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집행되어야 효과적이었다. 소의문은 한강 포구 중 가장 번성했던 마포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서 초기부터 시장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서소문 밖 네거리는 사형장으로 적합한 장소였다.

사형은 조선시대 가장 극형에 해당했는데,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형과, 목을 베어 죽이는 참형이 있었다. 당시 서소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 조선 제일의 충신이었던 사육신 성삼문을 비롯하여, 개혁 사상을 꿈꾸었던 허균이 처형된 곳이 바로 서소문이다. 또한 정권 타도와 지역 차별 철폐를 외쳤던 혁명가 홍경래, '척왜양창의'를 내세운 동학농민군의 전봉준과 손화중, 그리고 김개남이 효수당한 장소도 바로 이곳이다. 천주교 박해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은 곳도 서소문 밖 네거리였다.

서소문 밖 네거리 사형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충신이었으며, 개혁가였고, 외세의 침략에 맞선 농민들이었으며, 순교자였다. 하나하나의 의로운 죽음이 모여 오늘날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창의문 : 강산풍월을 자랑한 창의문 밖 이야기

창의문은 인왕과 백악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었다. 성종 연간에 강희맹, 서거정 등은『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한도십영漢都十詠이라고 하여 한양 도성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었다. 그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장의심승藏義尋僧이다. 장의심승이란 장의사의 중을 방문한다는 뜻인데, 시에서 창의문 밖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강희맹姜希孟

山下寒波一溪玉 산 밑의 찬 물결, 옥같은 시냇물이
出洞成渦知幾百 골을 나와 몇 백 소용돌이를 이뤘는가

雲深遙認寶幢高 자욱한 구름 속에 멀리 보이는 보당

木魚響振山岡裂 목어 소리 메아리쳐 산이 찢어지는 듯

愛伴空門留不去 공문의 벗을 즐겨 그대로 목느라니

談玄却愧侵綺語 현담에 기어[6]로써 침노함이 부끄럽네

白首歸來訪吾曾 센 머리로 와서 보니, 내가 전에 왔었던 곳

知是匡山讀書處 젊어서 글을 읽었던 광산[7]이 예 아닌가

서거정徐居正

三峯亭亭削寒玉 세 봉우리가 우뚝우뚝 옥을 깎은 듯한데

前朝古寺年八百 8백 년이나 된, 전조의 옛 절

古木回巖樓閣重 고목과 들러선 바위에 누각이 층층하고

鳴泉激激山石裂 샘물이 콸콸 울려 산돌이 찢어지는 듯

我昔尋僧一歸去 내가 전에 중을 찾아 한 번 거기 가서

夜闌明月共軟語 밤 깊어 달 아래서 함께 조용히 이야기 하였더니

曉鍾一聲發深省 새벽종 한 소리에 깊은 깨달음 바랐으나

白雲滿地不知處 흰 구름 땅에 자욱해 어딘 줄을 몰랐었네

이승소李承召

寺下淸泉流碧玉 절 아래 맑은 샘이 벽옥마냥 흐르고

寺裏居僧指千百 절 안의 중들이 천 백

有時鍾鳴作雷吼 이따금 종소리가 우뢰처럼 울리면

危峯欲倒蒼崖裂 위태로운 봉우리가 거꾸러지고 푸른 비렁이 찢어지려 하네

乘閑出郭尋僧去 한가한 틈 타 성문을 나 중을 찾아가서

試問前三後三語 전삼 · 후삼의 말 뜻을 물어보네
洞門深鎖煙霞老 동문이 깊이 잠기고 연하가 자욱하니
茫然不悟身何處 망연히 못 깨닫겠네 내 몸 어디 있는지

장의사壯義寺는 본래 신라시대 황산벌에서 전사한 장춘랑과 파랑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곳으로, 오늘날 세검정 초등학교 위치에 있었다.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이 아름다운 곳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연산군은 장의사를 없애고, 그 땅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바로 이곳이 봄을 즐긴다는 뜻의 탕춘대蕩春臺 이다. 연산군은 탕춘대에서 자주 음란한 연회를 즐겼는데, 왕이 절을 부수고 땅을 뺐을 만큼 창의문 밖의 경치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탕춘대는 영조30년(1754)에 연융대鍊戎臺로 이름을 고치고 군대를 훈련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지만, 명승지로서 그 기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조선 후기 위항시인인 장혼은 창의문 밖의 경치를 한 편의 시로 남겼다.


장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 235호

창의문을 나서서 피서하다

무더위에 시원한 바람을 얻으니
정신과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오네
아침 햇살에 구름 같이 우거진 나무가
깨끗해지고
흐르는 물살에 속세의 욕정이 텅 비는
구나
서늘한 매미 우는 곳에 우연히 서서

시골 늙은이의 거처를 한가로이 바라보네
우리가 찾는 즐거운 뜻이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중인이던 장혼은 조선시대 신분의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창의문 밖 경치를 바라보며 속세의 욕정을 비우곤 했는데, 아름다운 절경은 신분적 제약마저도 달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그밖에도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탕춘대에서 봄놀이를 즐기며 시를 남겼다. 목민심서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도 채이숙에게 보낸 편지에서 탕춘대를 함께 구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창의문을 나서는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민들은 수륙재水陸齋[8]를 보기 위해 도성 담을 넘기도 했고, 중인들은 아름다운 절경에 신분적 제약을 달관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성문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성문을 나서는 것은 분명한



1907년 일제에 희생당한 대한제국 군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고, 창의문을 나서는 것은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이승준)

주석

1. 소의문(昭義門) 안의 선혜청 별창(宣惠廳別倉)에 불이 나서 29간(間)이 연소되고, 곡식 수천 석을 손실하였다.(『영조실록』권, 윤5월 14일)
2. 1957년 문을 보수할 때, 장여 속에서 묵서(墨書)가 나왔는데, 1741년 6월 16일에 상량을 하였다고 적혀 있어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3. 서울 창의문(彰義門) 밖의 근교를 이르던 말, 세검정.
4. 장군풀. 또는 그 뿌리와 뿌리줄기. 변비(便祕), 조열(潮熱), 어혈(瘀血)에 약재(藥材)로 쓰임.
5. 이정숙「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성북동, 낙산 일대의 형상화 고찰」『한성어문학』33,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4
6. 불교에 십악죄(十惡罪)에 기어(綺語)란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장에 관한 화려한 말을 기어라 한다.
7. 광산은 이태백의 글 읽던 곳인데 두보가 이태백을 생각하는 시에, "광산 글 읽던 곳에 머리가 희여서는 좋게 돌아오라." 하였다.
8. 불교에서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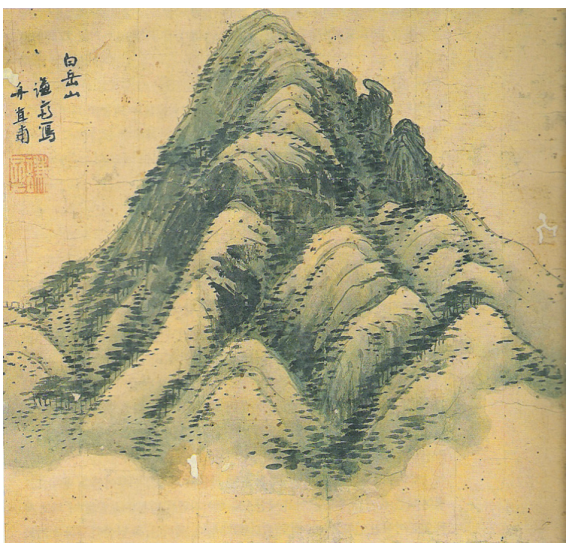
04

한양도성의 산

한양도성의 산

백악과 인왕

조선시대 서울은 한양도성 18km 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지형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백악, 동쪽에 낙산, 남쪽에 목멱, 서쪽에 인왕산의 이른바 내사산內四山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이 산들을 연결하는 능선에 따라 조선시대 한양도성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산 능선의 조금 낮아진 곳과 수구



〈백악도〉(겸재 정선)

옆 길목에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을 만들어 외부와 내부를 잇는 교통로를 삼았다.

서울의 산수를 풍수에 기초해 살펴보면 진산鎭山, 또는 조산祖山인 북한산에서 주산인 백악(북악)에 연결되며 낙산이 좌청룡左靑龍, 인왕산이 우백호右白虎에 해당된다. 목멱(남산)은 안산案山이 된다. 그리고 그 명당 혈穴에 경복궁과 청와대가 위치한다.

인왕과 백악은 인접해 있으면서, 한양의 주산을 놓고 경쟁했으며, 그 사이에는 현재의 '서촌', 과거에는 웃대上村로 불린 마을을 끼고 많은 이야기와 문화를 남겨왔다. 본문에서는 백악과 인왕산에 대한 개괄과 그 산에 기대어 이루어졌던 삶과 염원에 대해 살펴보겠다.

백악白岳(북악), 한양의 주산. 그 이름의 유래

서울의 중심지 경복궁과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백악은 해발고도 342m로 예부터 그 모습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유득공柳得恭의 아들 유본예柳本藝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한경지략漢京識略』이란 책에서는 백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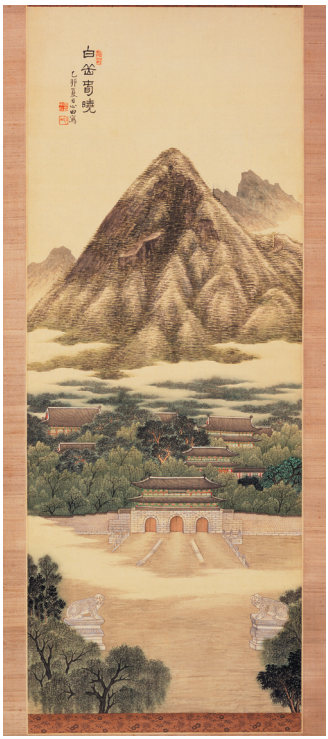
> 백악이 도성 북쪽에 있는데 평지에서 우뚝 뛰어났고, 경복궁이 그 아래 기슭에 있다. 서울 도성을 에워 싼 여러 산 중에 이 산이 우뚝 북쪽에 뛰어나니 조선왕조 초기에 이 산으로 주산을 삼고 궁궐을 세운 것은 잘 된 일이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백악은 한양을 둘러싼 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기부터 정궁正宮인 경복궁의 주산主山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

그런데 백악이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조선왕조의 한양정도漢陽定都 때부터가 아니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적古蹟조에 따르면, 고려 숙종 9년(1101)에 이미 남경南京 땅 중에서 주목받았던 곳이 백악이었다.

> 면악面嶽. 고려 숙종 9년(1101) 최사추崔思諏와 윤관尹瓘 등에게 명해 남경 땅을 살피게 했는데, 사추가 돌아와 아뢰기를, "다만 삼각산 · 면악 남쪽이 그 산세와 수세를 보아 옛 문헌에 들어맞으니 면악의 주간主幹을 중심으로 임좌방향壬坐方向해서 형세에 따라 도읍을 삼음이 마땅하다." 하였다.



〈백악춘효(白岳春曉)〉(안중식, 1915)

1101년의 최사추와 윤관이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1104년 지금의 경복궁 자리보다 약간 윗 지점에 궁궐 연흥전延興殿을 지었다. 그 위치는 지금의 청와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면악은 백악白岳, 즉 현재의 북악산을 이른다. 백악은 고려 때부터 이미 왕기王氣 서린 산봉우리로 주목받았고 남경에 궁궐을 짓는 데에도 주산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2)]

백악은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남산에 대칭하여 북악北岳이라고 부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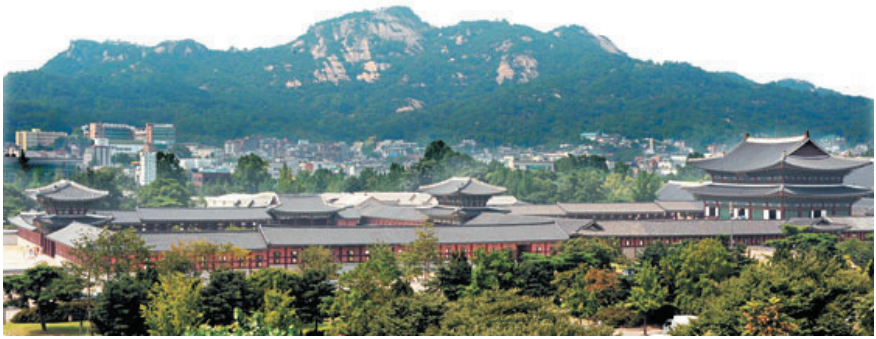
했지만, 고려시대에는 면악面岳, 조선시대에는 백악白岳 · 공극산拱極山이라고도 불렸다.[3] 백악이라는 이름은 그 산 꼭대기에 조선 초부터 백악신사白岳神祠가 있었던 데서 연유했다. 조선 초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태조 4년(1395) 12월에 백악산신白岳山神을 진국백鎭國伯으로 삼아 국가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니 그 사당을 백악신사라 하고, 이 신사가 있는 산을 백악이라 하였던 것이다.[4]

한편 중종 32년(1537)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이 왔을 때, 중종은 그를 경회루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손님을 최선으로 접객하는 풍습에 따라 사신에게 주산인 백악과 서쪽 인왕산仁王山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용경은 북쪽의 백악을 '공극拱極'이라 하였다. 공극은 '북쪽 끝을 끼고 있다'는 뜻으로 산이 도성의 북쪽에 있기 때문이었다.[5] 하지만 공극산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도 그다지 쓰이지 않은 듯 싶다. 현재에도 공극산이라는 이름은 잊혀져 있다.

2006년 10월 3일 문화재청은 백악 일대 170필지 368만 2,738㎡를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 예고하였다. 사적 지정 명칭은 조선시대 도성과 도성 축성의 개념인 내사산 보존의 의미를 되살리고, 조선시대 각종 고지도 및 문헌 등 사료에 전하는 '백악白岳'의 지명을 살리기 위해 '서울 백악 일원'으로 정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주로 불렸던 북악산이란 이름 대신에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불린 백악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것이다.[6]

인왕산仁王山, 부처가 깃든 산, 왕을 보필하는 산

인왕산은 해발고도 338m의 화강암 산으로, 암반이 유난히 노출된 것이 특징이다. 인왕산은 서울을 둘러싼 네 개의 산 중에서 서쪽 호랑이산에 해당된다. 경복궁의 주산 백악이 뾰쪽하고, 안산案山인 남산은 능선이 매우 부드럽고, 좌청룡인 동쪽



경복궁을 감싼 인왕산의 모습

의 낙산은 밋밋하고 얕은 지세인데 비해, 우백호인 서쪽의 인왕산은 높고 우람하다. 인왕산의 주봉은 둥글넓적하면서도 남산 같이 부드럽거나 단조롭지 않다.

이러한 인왕산을 가리켜 일찍이 혜풍 유득공惠風 柳得恭은 그의 『춘성유기春城遊記』에서 마치 '사람이 팔짱 꼈던 양팔을 풀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양어깨에 날개가 돋친 듯하다' 하였다. 또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가 지은 『한경지략』에서는 '인왕산은 백악 서쪽에 있는데 도성이 산마루를 타고 쌓아진 험준한 곳을 곡성曲城이라 한다' 하였다. 이렇듯 인왕산은 곳에 따라 매우 험준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뾰족하지 않아서 그런지 언뜻 매우 평범한 듯하다. 그러나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코 단조롭지 않음을 곧 알 수 있으며 다채로운 풍치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진다.[7)]

원래 인왕산은 경복궁의 서쪽에 있어 조선시대 초기 태종 년간에는 서봉西峰 서산西山이라고 불렸다. 인왕산이라는 이름은 산에 존재했던 인왕사仁王寺라는 절에서 비롯되었다. 인왕사가 있는 산이라서 인왕산仁王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조부터 인왕산이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보인다.[8)]

이때의 인왕仁王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분분하다.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에는 "인왕仁王은 석가釋迦의 미칭美稱"이라고 적고 있어, 석가모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9] 그에 반해 인왕을 두 명의 금강역사로 보기도 한다. 즉 여기서의 인왕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사문寺門 또는 수미단 전면의 좌우에 안치하는 한 쌍의 금강역사인 것이다. 둘 다 용맹하고 험악한 얼굴을 가지며 일명 이왕二王 또는 금강신金剛神이라 한다.[10] 두 설 중 어느 한 쪽이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인왕산이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은 확실하다. 세종의 내불당內佛堂이 인왕산에 있었고, 인왕사 서쪽에는 금강굴이 있었으며, 또 세조 때에는 복세암福世庵을 짓기도 하였다.

인왕사가 있던 골짜기는 '인왕동仁王洞'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인왕사동仁王寺洞'에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왕산 아래 골짜기 물 흐르는 곳을 일컫는 옥류동玉流洞과 합쳐져 후에 옥인동玉仁洞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났다. 이렇게 인왕산과 인왕동 이름의 유래가 된 인왕사는 태조와 성종 때의 기록에도 종종 등장하며, 연산군 때는 인왕사 복세암과 금강굴이 경복궁을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근방의 민가와 함께 철거토록 했다는 기사로 보아 적어도 연산군 때까지는 존속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11]


〈필운대〉(겸재 정선)

또한 인왕산은 '필운산弼雲山'이라고도 불렀다. 필운은 서산西山을 뜻하는 이름이다. 조선 중종 32년

(1537)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이 왔을 때, 중종이 사신 일행을 경회루에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면서 손님을 최선으로 접대하는 풍습에 따라 공용경에게 주산인 백악과 서쪽 인왕산의 이름을 붙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공용경은 북쪽의 백악을 '공극拱極', 서쪽의 인왕을 '필운'이라 하였다. 필운은 '우필운룡右弼雲龍'에서 따온 것이다. 운룡이란 임금을 상징하므로 임금을 보필할 때 오른쪽에서 한다는 뜻인데,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서 남쪽을 향해 보면 인왕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필운산이라는 명칭은 명나라 사신에게 예의상 요청한 것이므로 이름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산기슭에 필운동과 필운대의 지명만이 남아 전한다.[12)]

왕기가 서린 곳은 어디인가? 백악과 인왕의 주산논쟁

『조선왕조실록』에는 구체적 정황이 보이지 않으나, 한양정도 당시에 백악과 인왕을 두고 어느 산을 주산主山으로 삼을지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산 차천로五山 車天輅의 『오산설림五山說林』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봉 정도전(권오창, 1994)

'태조께서 임금이 된 뒤 팔도 방백方伯들에게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 했다. 무학대사를 스승의 예로써 대접하며 나라 도읍을 어디에 정하였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무학이 점을 쳐서 한

> 양으로 정하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백악(북악)과 남산으로 좌청룡 우백호를 삼으라 하였다. 그러나 정도전鄭道傳이 이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이르기를 옛적부터 제왕이 모두 남쪽을 향하고 다스렸지 동쪽으로 향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무학은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 뒤에 가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니라" 하였다.'[13]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주산논쟁은 결국 정도전의 백악주산론白岳主山論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무학대사의 말대로 200년 뒤인 임진년(1592)에 왜란이 일어나 도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무학대사의 신통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14] 무학대사가 주장했다는 인왕주산론仁王主山論은 『조선왕조실록』에는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왕산 서편 선바위 전설과 더불어 조선왕조 초기에 불교세력과 성리학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15]

한편 이러한 일화와는 별도로,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이 인왕산에 기대어 태어나고 자라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세종(1397~1450)이다. 세종은 태조 6년(1397) 4월에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준수방은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6번지 혹은 137번지로 이야기되고 있다.[16] 태조 이성계가 새 왕조의 문을 열고, 인왕산과 백악 사이의 서촌에는 왕족들이 모여 살았다.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상왕 정종은 지금의 사직터널 남쪽 경희궁 자리쯤에 인덕궁仁德宮을 짓고 살았고,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맞아죽은 이복동생 이방번은 지금의 통인시장 바로 북쪽 군인아파트 자리에 살았다. 또 세종의 셋째아들인 안평대군은 옥류동 최상류에 해당하는 수성동水聲洞에 비해당을

짓고 살았다.[17]

조선 중기 선조-광해군 시기를 전후해서도 인왕산에 '왕기王氣'가 서려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명종 때 학자 남사고南師古는 인왕산 아래 인달방仁達坊, 현재의 사직동)에 왕의 기운이 있다 말했는데, 과연 선조가 인달방에서 태어났다. 이후 광해군 때에는 성지性智라는 중이 풍수에 대해 논할 때, '인왕산은 돌산으로 몹시 기이하게 솟아 있으며, 또 인왕仁王이란 두 글자가 바로 길한 참언讖言이다. 그러므로 만약 왕자王者가 그곳에 살 경우 국가의 운수를 늘릴 수 있고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18] 또, 인왕산 아래 새문동塞門洞 정원군(선조의 다섯째 아들)과 능창군(정원군의 셋째 아들, 인조의 동생)이 사는 집에 왕의 기운이 어리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러한 말들로 인해 광해군은 그 집을 빼앗아 경덕궁慶德宮을 세웠다.[19] 그리고 광해군은 경덕궁 말고도 인왕산 기슭에 인경궁과 자수궁도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정작 이 궁궐들을 다 짓기도 전에 광해군은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정원군의 아들로 새문동에서 태어난 능양군이 반정으로 인조仁祖에 등극했던 것이다. 인왕산의 왕기는 인조에게로 돌아간 것이었다.

한양사람들의 염원의 땅 백악신사

조선 개국 직후, 태조 2년(1393) 1월 21일에 여러 산과 함께 백악의 산신을 국가의 호국백護國伯으로 삼았고, 태조 4년(1395) 12월 29일에는 다시 백악의 산신을 진국백鎭國伯으로 봉하고 한양의 주산主山은 물론 국가의 주산으로 확정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또 이듬해 1월 한양도성의 공사를 시작할 때 백악과 오방신五方神에게 제사를 올렸다.[20]

태조 년간에 백악산신의 지위가 변화한 모습을 보면, 한양이 도성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간 과정이 엿보인다. 백악은 처음에는 지리산, 무등산, 금성산, 계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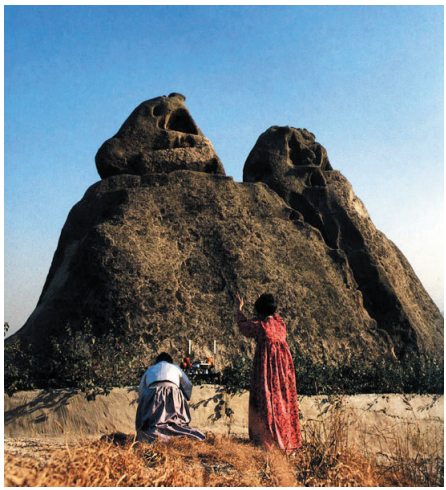
백악 정상. 이곳에 백악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산, 감악산, 삼각산과 함께 호국백이 되었으나 진국백이 된 것은 독보적인 조치였다. 다른 산들과 달리 조선은 도성의 백악을 나라의 신성한 산, 호국의 산으로 정하였고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제단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 백악의 제단에서는 도성 공사, 국가의 천재지변 또는 가뭄이 심할 때에도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사는 정조 년간까지도 계속 지속되었다.[21)]

백악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백악 신사는 백악 정상에 위치했다. 태종 때에는 이곳에 삼각산신도 함께 모시고 제사지내게 했고 삼각산신 신위는 남쪽으로 향하여, 백악산신 신위는 서쪽을 향하게 두었다.[22)]

전설에 의하면 '백악의 신위'는 정녀부인貞女夫人이라는 여신이었고 신사 내에 그 화상을 모셨었다'고 한다. 이 신사는 조선 초부터 있었지만 고종 년간에 만든 역사 지리책인『동국여지비고』에는 이미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23)]

선바위禪庵와 기자祈子신앙



승려의 모습을 닮은 선바위

선바위는 우뚝 선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고, 멀리서 볼 때 승려가 장삼을 입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 선바위가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상 또는 조선 태조 부부의 상이라는 전설도 있다.

이 바위는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고 하여 믿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부인들이 이곳에서 아기 낳기를 기원하는 일이 많아 자식을 기원하는 바위, 기자암祈子岩이라고도 불렸다. 일제강점기 서울 남산에 있던 국사당이 이 바위 근처로 옮겨오자 선바위에 대한 신앙은 무속 신앙과도 밀착되었다.

조선 초기 도성을 쌓을 때 이 바위를 도성 안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밖으로 둘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 '세상에서 전하기를, "한양도성을 쌓을 때에 바위가 승려가 장심 입은 모양 같은 것이 인왕산 모퉁이에 서 있어 선암禪庵이라 불렀다"한다. 무학대사는 이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정도전은 성 밖으로 내어 보내려 하는데, 태조가 그 이유를 물었다. 정도전이 말하기를 "이를 성 안에 들여보내면 불교가 흥하고, 내어 보내면 유교가 흥합니다."하지, 명하여 정도전의 말을 쫓게 하였는데, 무학이 탄식하여 "이후로는 승려들이 선

비의 책보를 지고 따르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24]

이러한 이야기는 주산논쟁 이야기와 맞물려 조선 초기 조선의 이념을 유학이 주도할지, 불교가 주도할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부침바위 터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표면에 다른 돌을 자기 나이만큼 문지르고 손을 떼는 순간 바위에 돌이 붙고 옥동자를 얻는다는 전설로 인하여 부침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바위에는 전설을 믿고 찾아온 많은 여인들이 흔적을 남겨 2m 높이의 바위 전체 표면에는 많은 바위 홈이 생겨났다. 이 바위 역시 기자祈子신앙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이 부침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고려시대 몽골(원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고려 장정들이 몽골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혼례를 치른 다음날 남편이 끌려간 한 여인이 있었다. 신랑과 생이별한 이 여인은 매일 소복을 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부침바위에 와서 빌었고 어느 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몽골에 수소문해 그녀의 남편을 찾아오게 하여 결국 부부가 상봉하였다. 이후 이 부부가 함께 부침바위를 찾아 여인이 했던 방식으로 돌을 붙이자 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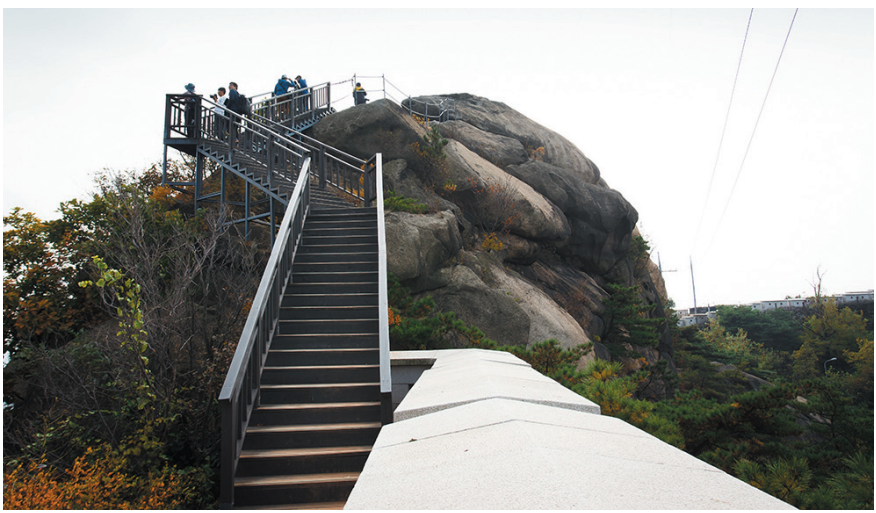
지금은 사라진 부침바위

하고 있을 때에는 부침바위에 돌을 붙여도 떨어지던 것이 서로 상봉한 뒤에 돌을 붙이자 붙어 있더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옥동자를 원하는 여인이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는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소원을 빌면서 돌을 붙여 보았다고 한다.

이 바위는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조석고개길10(부암동 134번지) 일대에 있었으나 1971년 도로 확장 공사 때 철거되었다.[25] 부침바위도, 그곳에서 염원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지만, 부침바위로부터 유래한 부암동이란 이름만은 현재도 그곳에 남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신령한 존재, 인왕산 호랑이

인왕산이라고 하면 가장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인왕산이라고 하면 '호랑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인왕산은 풍수지리상으로 한양의 '좌백호', 왼쪽의 하얀 호랑이를 상징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인왕산의 산세를 보고 바위절벽과



범바위

커다란 암벽으로 이루어진 주봉의 모습은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들 이야기했다. 그리고 인왕산의 한 바위는 '범바위'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모양, 상징과는 또 별개로 한양도성 가장 가까이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 바로 인왕산이다. 호랑이는 인왕산과 백악을 넘나들며 한양도성 주변을 어슬렁 거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왕산 호랑이에 대한 기사가 여럿 보인다.26 세조 같은 경우에는 친히 호랑이를 잡기 위해 나서기도 했으며, 많은 무관과 관병들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또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불을 질러 쫓아내고는 잡았다는 식으로 거짓보고를 해 문제가 되는 일도 있곤 했다. 호랑이가 출몰해 해를 입히는 것을 '호환虎患'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서양 여인은 다음의 중국속담을 옮겨 한국인들의 호랑이에 대한 공포를 전하고 있다.

> '한국 사람은 일 년의 반을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일 년의 나머지 반을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문상을 가느라 보낸다.'[27]

사람들은 호랑이가 출몰하는 산을 함부로 통행하지 못 했다. 특히 밤에는 더더욱 그랬다. 그래서 인왕산 옆 무악재를 넘을 적에는 호랑이가 두려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넘어 다녔고,무악재란 이름 대신 사람들을 모아서 넘는 고개라는 의미로 '모아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28]

하지만 인왕산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포로 가득차 있지는 않다. 인왕산 남쪽 끝자락, 누상동에서 무악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못미처에 있는 범바위에는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진관사 〈산신도〉. 호랑이가 함께 하고 있다.

인왕산 중턱에 한 쌍의 호랑이가 있어 무악재를 넘나들었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 다만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가 지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노려보며 포성을 질러 혼을 내주었다 한다. 어느 날 인왕산에 산불이 나서 먹을 것을 찾아 호랑이가 인가로 내려왔는데 이때 강원도에서 온 포수 한 사람이 암컷 호랑이를 쏘아 잡았다. 이에 암컷을 잃은 수컷은 이리저리 헤매며 울부짖다가 범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죽었다. 이때 바위 한 쪽이 떨어져 나가서 그 모양이 죽은 수컷처럼 생겼다고 한다. 이 바위에 반사된 햇빛은 마치 호랑이 눈에서 나는 광채와 같았는데, 후에 암컷을 쏘아 죽인 포수는 이 빛에 두 눈이 멀어버렸다고 전한다.[29]

또 다른 인왕산 호랑이 이야기도 있다. 옛날 서울 장안에는 호랑이 때문에 해만 저물면 사람이 문 밖을 못 나갔다는데 그 호랑이는 인왕산에서 내려온 것이었다. 나라에서는 고심을 하던 끝에 그 호랑이를 없앨 사람을 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어떤 고을의 군수가 자진해서 그 호랑이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그 군수가 부하들에게 "저 인왕산 중간쯤을 오르면 반석 위에 늙은 중놈이 자고 있을 터이니 그 중놈을 부르되 '중놈아.' 하고 불러 깨운 다음 이것을 보이며 '너를 불러오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다. 그러면서 무슨 글자를 쓴 종이쪽지를 주었다.



일제시대 호랑이 사냥

명령을 받은 군수의 부하는 겁이 났으나 어쩔 수 없이 인왕산에 올랐다. 그러자 과연 늙은 중이 벌렁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며 그 쪽지를 주었더니 그 중이 벌벌 떨면서 따라 왔다. 군수는 중을 보자마자 "네 새끼들을 이끌고 압록강 건너로 가지 않으면 몰살해 버리겠다"고 호통쳤다. 구경나온 군중들이 호랑이로 변하게 해보라고 하자, 군수가 "네 본래 모습으로 변하게 해 봐라." 하였다. 이에 중이 세 번 절을 넘더니 집채만한 호랑이로 변했다. 이에 군중들이 무서워하자, 군수는 "다시 사람으로 변하라"고 하니 다시 사람이 되어 그날 밤 압록강으로 호랑이 떼를 몰고 떠났다는 것이다.[30]

무서움의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랑이를 마주할 수 없었다. 또 마주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인왕산 호랑이를 실제로 본 이는 드물었다. 그랬기에 호랑이는 볼 수 없는 존재이자 신령한 존재가 되기도 했다. 곧 호랑이는 산신을 상징했다. 산신도에서 호랑이는 산신이 타고 다니는 존재 혹은 산신의 수호자 역할로 등장하지만, 애초에는 호랑이가 산신 그 자체로 섬겨진 토템이기도 했던 것이다.[31] 그러므로 인왕산에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는 것은 그만큼 인왕산이 산신이 있는 산,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었다. 인왕산과 북악산 곳곳에 사람들이 여러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러한 신성한 산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악명 높았던 호랑이가 1900년대 일제의 '유해 조수鳥獸 구제조치'로 멸종되었다. 인왕산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제 더불어 산에 깃들어 있던 산신이 설 장소도 사라지고 말았다. 인왕산은 대표적 등산장소가 되어버렸지만 그 신비로움과 신성함은 잊혀져 버린 것이다.

국사당

현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8호인 '인왕산 국사당國師堂'은 본래 조선시대에는 남산에 있었던 굿당이다. 국사당의 기원은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백악신사와 함께 중시되었던 목멱신사木覓神祠였다. 목멱신사에서는 목멱대왕을 모시며, 봄가



국사당. 국사당은 일제강점기 때 남산에서 인왕산으로 옮겨왔다.



국사당 내부 모습

을로 정기적 의례를 거행하였고, 경우에 따라 기우제, 기청제 등의 국가적 제례를 올렸다.[32]

하지만 목멱신사는 조선중기 이후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경지략』에는 "남산 정상에 국사당이 있는데 바로 목멱신사라고 하였고, 그 안의 화상은 속칭 신승이라고 하는 무학대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신사에 목멱대왕 신위 대신, 신승으로 알려진 무학대사 상을 모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멱신사가 점차 국사당國祀堂 대신 국사당國師堂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 변화는 목멱신사 제사를 나라에서 주관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33]

목멱신사가 국사당으로 언제 완전히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국사당이란 명칭은 19세기 이규경이 쓴 『오주행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천지편天地篇 귀신설鬼神說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글에 따르면 국사당 안에는 고려 공민왕, 조선 승려 무학, 고려 승려 나옹, 서역 승려 지공의 상이 있었다고 한다.[34] 목멱대왕이 무학대사로 바뀐 것을 넘어, 공민왕, 나옹, 지공을 모시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기도가 성행해서 그 제사를 국가에서만 주관할 수 없었다.

현재는 국사당 내부에는 태조 이성계와 그 계비繼妃인 신덕왕후, 무학대사, 그리고 명성황후를 그려놓은 무신도가 보존되어 있다.[35] 이것은 조금 이상한 조합

이다. 태종에 의해 억압받았던 강비가 들어가 있다는 점과 조선초기의 인물들과 함께 조선 말기의 명성황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조합은 다분히 일제로부터 탄압받은 연후에 재배치된 결과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태조와 강비 혹은 무학대사의 조합은 근처에 현재 국사당 근처의 선바위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명성황후는 일제에 의한 핍박을 상징하는 것이다.

국사당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1925년 조선총독부는 옛 남산 식물원 자리에 조선신궁을 세웠다. 그런데 신사보다 높은 곳에 조선시대 전통의 국사당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었다. 일제는 당시의 국사당 관리인이던 김용완金溶完에게 국사당을 이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김용완은 50엔을 지불하고 일개 국유물을 개인소유로 입수한 다음, 일본인들에게 이건비로 받은 700엔으로 국사당 건물을 현재의 인왕산 선바위 밑의 자리에 옮겼다고 한다. 이후 국사당에 대한 기록은 찾기 힘들다. 국사당은 김용완의 아들 김창권金昌權이 관리직을 물려받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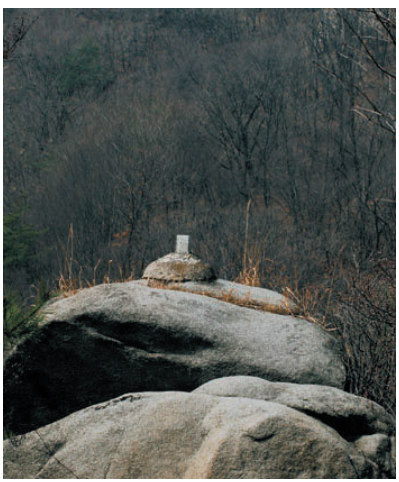
해방 이후 이곳은 보존과 폐쇄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국사당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이제는 필요 없는 미신이라는 주장도 함께 분출되었다. 1969년에는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로 철거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결국은 1970년 3월 국사당의 무신도 28점이 중요민속자료 제17호로 지정되면서 헐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37] 하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무속행위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현대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것이 되지 못 했다. 이제는 단순한 미신이자, 단속해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인왕산에 기대어 사는 이들로부터 유리되었고 국사당은 본래 자리를 잃은 채 인왕산 기슭에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인왕과 백악의 수난

조선시대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고 기자祈子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인왕과 백악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해서 조선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장소였다. 독립의 바람을 품고 태극기를 인왕산에 크게 내려놓는 일도 생기곤 했다.[38] 이에 대해 일제는 그 의미를 훼손하고 다른 의미를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악에 있는 바위 상단부에 쇠말뚝을 박아 풍수에 근거한 한양의 기운을 끊고자 한 일이었다. 광복 후에 이 바위의 쇠말뚝을 제거하고 한민족의 발전을 기원하는 촛대를 세워 그 이름을 '촛대바위'라 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쇠말뚝을 제거한 위치에 콘크리트 기둥으로 마감되어 있어, 일제 행위의 자취가 남아있다.[39]

그리고 인왕산의 경우에는, 정상 바로 아래 큰 암벽인 '병풍바위'에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몇 개의 대형 각자를 새겼다. 각자를 새긴 1939년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2년 뒤였다.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일제는 총력전체제 동원 대상을 일본 국민에서 식민지 조선인에게까지 확장해나가고 있었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 '대일본연합청년단'이란 것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회원조직으로 조선연합청년단이 1938년 창설되어 가맹했다. 그리고 1939년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현재의 서울)에서 이른바 '대일본청년단대회大日本青年團大會'가 개최되었고, 이를 영원히 기리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인왕산 암벽에 기념각자記念刻字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글



쇠말뚝을 제거한 촛대바위



1950년 '동아청년단결'

씨였다.[40]

글씨는 당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썼다. '동아청년단결東亞靑年團結'.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모토로 삼았던 일제의 이상에 부합하는 주장이었다. 동아東亞의 오족五族을 대표한 청년들은 더욱 단결을 굳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글씨를 인왕산 암벽에 새김으로써 식민지 수도 경성에 전시체제에 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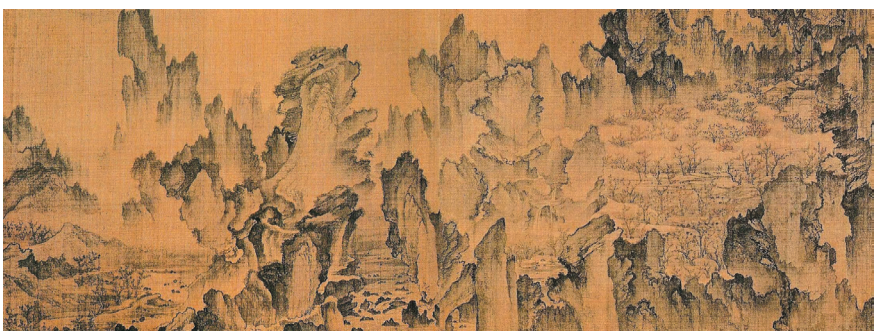
이 글씨는 해방 이후에도 한참동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한국전쟁 직전인『조선일보』1950년 2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동아청년단결'이란 문구가 그냥 남아있어 서울시에서 82만원을 들여 3월말까지 삭제하도록 공사를 추진중이라고 적고 있다.[41] 현재 '병풍바위'에는 보일 듯 말 듯 글씨의 흔적만이 남겨져 있다. 일제는 물러가고, '동아청년단결' 같은 구호는 잊혔지만, 인왕산에는 그 상처가 남아 아직 아물지 않은 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백악인왕과 함께한 사람들 – 안평대군, 무릉도원을 찾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이용李瑢은 세종 29년(1447) 음력 4월 20일 어떤 꿈을 꿨다. 집현전 학자인 박팽년朴彭年 등과 함께 복숭아꽃이 한창인 '도원'桃源을 찾아드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안평대군은 이 꿈 속 풍경을 안견에게 설명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이 그림이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이다.

안평대군은 본래 인왕산 아래 수성동계곡에 비해당匪懈堂이란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도원을 찾아드는 꿈을 꾸고 3년 뒤에 창의문 밖에서 꿈에 나타난 무릉도원과 흡사한 곳을 찾게 되었다. 그는 그 터에 서너 칸의 작은 집을 짓고 이름을 '무계정사武溪精舍'라고 지었다. 무계정사의 무계란 '무릉도원 계곡'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터를 잡은 안평대군은 문인들을 초빙해 시회를 열고 풍류를 즐기며 무릉도원의 삶을 누렸다.42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1년(1453) 기사에는 안평대군이 "만대萬代에 왕이 일어나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무계정사를 지었다는 소문이 나타난다.[43] 이러한 소문에 근거해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쳤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실상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몽유도원도〉(안견, 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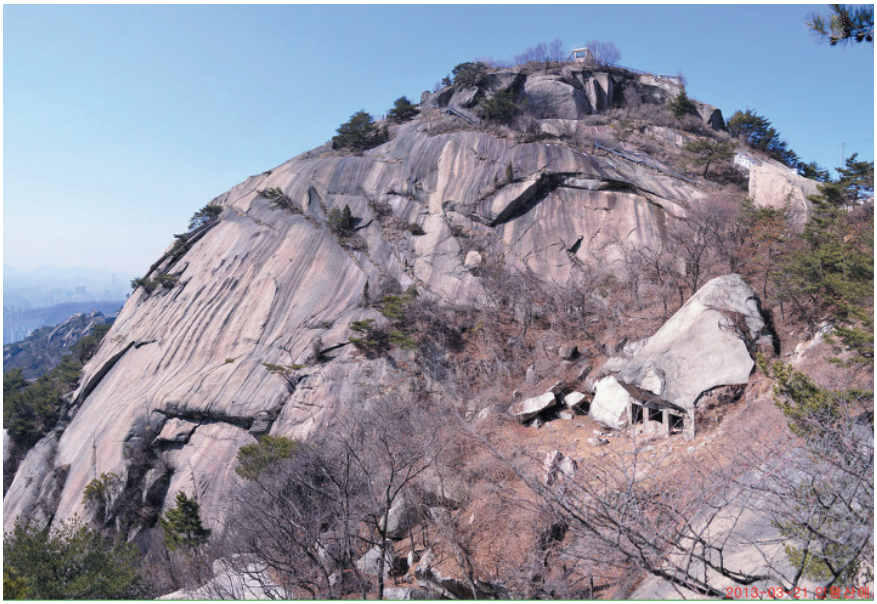
차지한 것은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은 곧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세조다. 안평대군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 음모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꿈에서 보았던 신선의 세계를 현실에 조성하려고 했던 안평대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주인 잃은 무계정사는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몽유도원도도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잊어버렸다. 1929년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이라는 일본인 교수에 의해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466년 만의 귀환. 하지만 그것은 일본인의 손에 머물러 지금은 일본 덴리대학天里大學에서 소장하고 있다.[44] 지금 창의문 밖에 무계정사터에는 '무계동武溪洞'이라는 각자만이 남아있다. 남겨진 각자가 그곳이 무계정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안평대군의 꿈과 이상향은 산산 조각나 흩뿌려져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인왕, 두 번의 반정을 지켜보다

조선왕조에서는 두 번의 반정이 있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은 사뭇 다르지만, 인왕산은 이 두 번의 반정을 궁궐 바로 곁에서 지켜봐온 존재였다.

연산군 12년(1506) 박원종 등은 연산군을 내쫓고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 형제를 살해한 뒤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추대하였는데, 이를 중종반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왕으로 추대된 진성대군의 부인 신 씨는 반정에 의해 희생된 신수근의 딸이었다. 보복을 두려워한 반정 참가자들은 부인 신 씨를 폐비시켜 출궁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부인 신 씨는 쫓겨나고 말았다. 그녀는 이후 경복궁 서쪽 인왕산 아래에 살면서 인왕산 치마바위에 올라 남편 중종이 살고 있던 경복궁을 향해 치마를 흔들었다고 한다. 중종 역시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 기슭에 있던 폐비의 집 쪽



부인 신씨가 치마를 흔들었다던 치마바위

을 바라보았고, 이 둘은 치마바위를 매개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45]

한편 1623년 있었던 인조반정은 인왕산과 백악 사이의 창의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으로 반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정 성공 이후에, 반정공신 중 이괄이 2등 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 당시 이괄은 관군을 무찌르고 한양도성을 순조롭게 점령했고 인조는 이를 피해 공주로 피난했다. 다시 관군을 모아 이괄에 대한 반격에 나서자, 이괄은 도성 주민에게 관군을 단번에 무찌를 터이니 나와 싸움구경을 하라고 사람들을 모았다. 한양도성 사람들은 무악전투를 보기 위해 인왕산에 '굽은 성', 즉 '곡성曲城'에 올라갔다. 당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인왕산 위를 빼곡히 덮어 인왕산이 백로처럼 보였다고 한다. 무악전투에서 자신만만해 했던 이괄은 관군에게 패하였고 도망가던 중 결국 부하에게 죽고



이괄의 난 때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했던 인왕구간 곡성

말았다. 인조반정 이후의 혼란이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이었다.[46]

인왕산은 중종반정 이후 정치가 갈라놓은 애틋한 사람을 품었고, 인조반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조선시대 도성 한양의 결을 묵묵히 지켜온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격변과 과정들을 함께 해오는 과정이었다.

정선, 인왕과 백악의 진경을 남기다

인왕산과 백악에 둘러싸인 웃대(현재의 서촌)와 삼청동 일대는 한양도성 내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조선 성종 때 성현成俔은 서울 성 안에서 울창한 나무와 맑은 물 흐르는 그윽한 경승지로 어느 동네보다 북악의 삼청동을 제일이라 하였다. 그는『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서울 성 안에 비록 아름다운 곳이 적다고 하나 그런 중에서 놀만한 곳으로 삼청동이 가장 으뜸이고, 인왕동仁王洞이 그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 백운동白雲洞 청학동靑鶴洞이 그 다음 간다"고 하였다. 이 삼



〈필운상화〉(겸재 정선)

청동은 북악의 동쪽 기슭이요, 또 서쪽 기슭의 유란동幽蘭洞 도화동 계류에는 대은암, 청송당, 운강대 등이 있어 풍류와 학문 효행의 명소가 되었다. 삼청동은 산山淸 물水淸 사람人淸의 삼청三淸으로 도성 주민의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쌍계동 또한 북악에서 좌청룡 낙산으로 가는 산줄기 가운데 우뚝 솟은 응봉의 동쪽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북악의 동남쪽 계곡이 된다.[47] 인왕동과 백운동은 인왕산 기슭의 계곡들이다.

특히 창의문 안팎에는 유난히 '동천'이라고 바위에 글자를 새겨 이름 붙여진 계곡들이 많다. '동천洞天'이라는 것은 본래 도교 용어로 '산천으로 둘러싸여 신선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자 아름다운 풍광을 갖춘 곳들이었다. 성 안으로는 도화동천이 있고 그 바로 옆 인왕산 자락에는 백운동이, 성 밖으로는 안평대군이 경영한 청계동천과 북악산 뒤의 백석동천까지 있었다. 또 '동천'으로 명명되지 못 했지만 결코 경치가 뒤지지 않는 '청풍계'도 인왕산 자락에 있었다.[48] 이러한 풍광들에 기대어 웃대에 사는 명문양반과 중인 계층들은 풍류를 즐겼다. 백악과 인왕산을 둘러싼 계곡들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회가 조선 후기에 성행했다.

이러한 풍경과 문화를 그림에 담아냈던 인물이 바로 겸재 정선謙齋 鄭敾이다. 겸재 정선은 북악산 기슭 유란동 난곡蘭谷에서 태어났다. 유란동은 지금의 종로구



〈인왕제색도〉(겸재 정선, 국보 제216호)

청운동 경복고등학교 일대로 이곳에서 정선은 52세까지 살았으며 이후 인왕산 아래 인왕곡으로 이사하였다.[49] 그리고 인왕산과 백악 사이의 여기저기를 그림으로 남겼다. 이곳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 중 특히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동팔경첩>과 <인왕제색도>를 들 수 있다.

여름날 소나기가 내린 후 육상궁 뒤편 북악산 줄기의 산등성이에서 바라본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명작이다. 인왕제색도는 겸재가 영조27년(1751), 76세의 나이에 그린 그림이다. 어렸을 적부터 동문수학하고 시와 그림을 서로 나눴던 사천 이병헌이 81세의 나이로 죽은 슬픔을 인왕제색으로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그림에 적혀 있는 '신미 윤월 하완辛未 閏月 下浣'은 사천이 죽은 바로 그 시기다. 그렇기에 인왕제색도에 그려진 풍경은 단순히 인왕산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사천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에 다른 많은 집들을 지우고 사천이 살던 취록헌만 남겨 그렸다는 것이다.[50]



〈청송당〉(겸재 정선)

조선 후기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 중 장동에 산다고 해서 장동 김씨라 불렸던 집안은 겸재 정선을 후원한 대표적 가문이다. 정선이 그린 《장동팔경첩》은 장동 김씨들의 세거지를 둘러싼 인왕산과 백악 자락의 여러 풍광들을 모아놓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간송미술관 소장본,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그 구성은 약간씩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대은암, 독락정, 백운동, 창의문, 청송당, 청풍계, 청휘각, 취미대로 이루어졌는데, 간송미술관본은 대은암, 독락정, 수성동, 자하동, 청송당, 청풍계, 취미대, 필운대로 이루어져 있다.[51] 이중 수성동계곡 풍경의 경우에는 2012년에 옥인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서 200년 만에 기린교가 그 모습을 드러내, 겸재 정선이 그렸던 풍광 그대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52]

인왕과 백악의 폐쇄, 그리고 다시 개방

지금은 인왕산과 백악을 포함해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巡城이 가능하지만, 불과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양도성 순성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1968년부터 인왕산은 1993년까지, 백악은 2007년까지 민간인 출입 통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왕산과 백악을 통행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코스를 돌다보면 여러 곳에 군부대와 군 초소가 위치하고 있고, 탐방객들이 청와대


The Joong-ang Ilbo 1968年1月22日 (月曜日) ② 第723號 【日刊】

中央日報

서울市內에 武裝間諜

31名이 景福高뒤까지 浸透

鍾路署長戰死 6명被殺

市內버스3臺에 수류탄도

5명射殺·1명生捕

間諜作

三養라면

死傷者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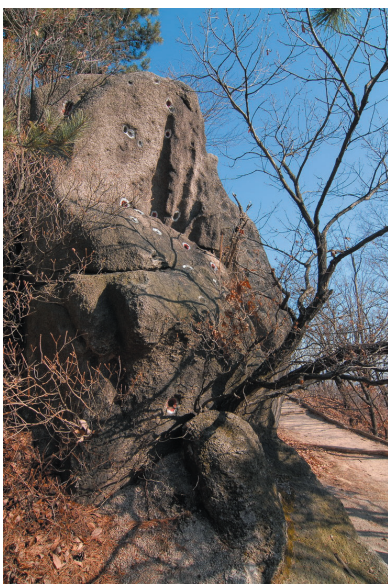
김신조 사건『중앙일보』1968년 1월 22일)

를 향해 사진 찍는 것을 제지하기도 한다. 인왕산과 백악에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던 196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68년 1월 16일.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정부요인을 암살하려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다. 경계를 속이고 서울까지 진입하기 위해 이들은 한국군 복장을 갖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휴전선을 넘어 파주 법원리, 북한산 비봉, 서울 종로구 구기동 승가사를 지나 1월 21일 밤 8시에 세검정 부근까지 진출했다. 이들은 한국 경찰을 마주치면 CIC방첩대라고 속여 의심을 피하고자 했다. 그러다 밤 10시 자하문 고갯길 검문초소에서 종로경찰서장 최규식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자 그 순간 공비들은 기관총을 난사



1 · 21사태 때 총탄을 맞은 소나무



호경암

했고, 최규식 서장은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 충돌로 청와대 근방 500m까지 접근했던 공비들은 당황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은 1월 말까지 계속되어 28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하였다. 이것이 북한 무장공비들의 청와대 습격사건인 1 · 21사태였다.[53)]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여파만큼 인왕산과 백악에 미친 영향 역시 컸다. 백악과 인왕산에 민간인 출입 통제와 군부대 시설의 증강이 이루어졌다. 1968년 이후 인왕산은 25년, 백악은 30년가량 민간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끝나고 북한과의 충돌이 이전보다는 잦아들어 과거와 같이 인왕산과 백악을 통제하면서까지 안보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고, 시민들의 품에 인왕산과 백악이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도 백악의 여기저기에는 1·21사태의 흔적이 남아있다. 공비들을 검문했던 창의문(자하문) 바로 아래에는 순직한 고

최규식 총경의 동상이 서있고, 한양순성 백악구간에는 1·21 사태 소나무가 남아 있어 당시 치열했던 교전 양상이 느껴진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된 1·21 사태 소나무에는 15발의 총탄자국이 남아있다. 또 2009년에는 '김신조 루트'라고도 불리는 북악산 제2북악스카이웨이 제2코스가 개방됐는데, 이 길에는 호경암護警岩이라는 바위가 있다.[54] 이 바위 역시 50여발의 총탄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 바위가 대한민국 군경을 지켜주어 공비들을 사살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이제는 전설처럼 전해져오고 있다.

남북 간의 대립 속에서 벌어졌던 무력충돌의 기억이 한양도성 백악코스에는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우리 곁에 안 일어나기를 빌며 '김신조 루트'를 밟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최우석)

남산과 낙산

남산과 낙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남산공원, 낙산공원 등 '공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낙산과 남산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는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북악산과 인왕산에 여전히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는 출입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비교하면 남산과 낙산의 분위기는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진다. 남산과 낙산이 북악·인왕산과 다르게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지가 된 것은 위치 때문이다. 북악·인왕산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을, 현재는 청와대를 앞에 두는 등 여전히 군사적 요지인 반면에 남산과 낙산은 확장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도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남산과 낙산의 현재는 어떤 과거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남산

남산은 해발 265m의 낮은 산으로, 명동, 충무로와 인접하여있고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어 밤늦게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또한 오늘날 남산은 서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의 산'이라는 의미의 남산이란 이름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산의 이름은 물론 현재의 남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산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의 남산 – 신성과 국방

남산의 원래 이름은 인경산仁慶山이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며(1394), 도성의 남쪽 산이 되면서 '남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남산을 목멱대왕木覓大王으로 삼으면서 목멱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태조는 1년 전인 1393년 1월 21일 전국의 명산·대천·성황·해도의 신에게 봉작을 내릴 때 백악의 성황城隍을 호국백護國伯으로 봉한바 있다. 그런데 거의 3년 뒤에 다시 남산의 산신에 대해 '목멱대왕'이라는 봉작을 제수한 것은 수도의 통치공간에서 가지는 의미를 각별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 남산은 목멱대왕과 더불어 여러 무속신앙이 공존하는 장소였다. 남산 무속신앙의 중심지는 바로 국사당國師堂이었다. 현재 남산 팔각정 자리에 위치했던 국사당은, 조선의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국사國師, 무학대사를 모셨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전하는데, 무학대사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의 호신신장護身神將과 여러 무속신앙의 신들을 모시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조선신궁을 지으면서 국사당은 인왕산으로 옮겨갔지만, 남산에 국사당이 있던 것은 그만큼 이곳이 풍수적으로 중요했으며, 신성시 된 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남산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 복원되어 있는 남산의 봉수대가 바로 그 증거이다. 조선시대 가장 큰 전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대표되는 두 번의 전쟁이었다. 즉 조선은 남과 북, 양쪽의 적을 항상 경계하여야 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는 아직 왜구倭寇라고 불리던 도적들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시대였다. 왜구는 고려 후기부터 한반도 남쪽은 물론 중국의 남부지방까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 말, 최영과 이성계라는 두 걸출한 무장의 활약으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왜구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북쪽의 위협도 컸다. 원명교체기



현재 복원되어 있는 남산의 봉수대

를 틈타 중국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무리는 고려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 고려는 '도적'이라고 여겨졌던 홍건적에게 수도 개경을 포위당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고려의 영토와 함께 침략의 기억까지 계승한 조선에게 영토 방위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이 정비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가의 위급을 바로 알리는 봉수시스템이었다.

조선은 경흥·동래·강계·의주·순천(전라도)의 5개의 봉수대를 기점으로 전국의 봉수를 한양으로 전달하였다. 한양의 봉수대는 남산에 두었는데, 이는 남산이 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남산 정상이 사방을 모두 보기에 막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봉수에서는 평상시에는 한 개, 적이 나타나면 두 개,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세 개, 적이 국경을 넘으면 네 개, 적이 공격해와 전투가 시작되면 다섯 개의 불을 피워 위기를 알렸는데, 맑은 날 불이 보이지 않을 경우



조선시대 봉수 노선도(『한국군사사』13, 군사 · 통신 · 무기)

에는 연기를 피워 소식을 전했으며, 불과 연기로 모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들이 달려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선시대 남산은 신앙과 국방의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이런 남산의 상징성은 근대에 들어서도 묘하게 이어지게 된다.

남산의 근대와 현대 – 기념과 추모, 충군애국과 반공호국

한양도성 내에서 전통적으로 남산이 차지하는 상징성이 있었기에 근현대사에서 남산은 이념적 쟁탈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제는 남산 정상에 남산신궁을 설치하고 조선 건국 직후부터 존재해왔던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겨버렸다. 일제는 신궁 건립과 함께 황국신민서사지주를 건립하여 식민지 조선민중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일제는 과거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군



일제가 남산에 설치한 조선신궁의 모습



대한제국 말기 장충단의 모습

유적지로 남산 자락에 위치했던 왜성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려 그 자리에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총독부가 광화문에 건설되기까지 이곳에서 식민통치를 하였다.

해방된 이후 신궁 터를 비롯한 일제의 어용 기념시설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들끓었다. 특히 남산 신궁 터에는 새로운 국가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기념물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들이 백출하였다. 1945년 10월 오세창은 연합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해방탑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준비위원회 조직을 주도하였다. 1946년 2월 9일 남산정에서 개교한 경성음악학교(교장 현제명)는 미군정 학무국과 교섭하여 신궁을 교사로 정하고 2월 20일 수업을 개시하였다.

'장충奬忠'이란 충성됨을 장려하고 기린다는 의미인데 국권의 상실과 남북 분단, 전쟁으로 굴곡진 근현대사에서 그 의미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장충단은 본래 을미사변 당시 희생된 인사와 군인들을 기리는 의미로 조성되

었으나 일제가 들어서면서 공원화하여 향락과 유흥의 공간으로 변신하였고 일부에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학생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정치 집회와 시위의 공간, 혹은 정치테러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해방이 되자 당연하게도 일제의 국가의례 시설인 신궁, 박문사 등 일제 잔재 시설에 대한 철거 문제가 불거졌다. 조선침략 원흉인 이등박문을 기리는 박문사가 있던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항일순국열사들을 기념하는 문제가 등장하였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일제는 안중근의 장자인 안준생을 상해로부터 입국시켜 박문사에 참배케 하였고 역시 장녀와 사위를 입국시켜 박문사에 참배하게 하여 안중근 의거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이벤트를 벌인바 있었다. 장충단 특히 박문사는 조선민중에게 굴욕의 상징이었다. 때문에 미군정 치하에서나마 장충단을 공원화하여 항일 애국열사들을 기리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



일제 강점기 박문사의 모습. 일본식 건축물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 남북이 따로 없었다. 1945년 10월 순국의열사봉건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장충단공원에 순국의열사殉國義烈祠를 추진할 때 이 단체에는 김성수, 송진우, 권동진, 오세창 등 우익 민족진영의 인사들은 물론 여운형, 박헌영 등 좌익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평양의 조만식, 천도교계의 이돈화도 이름을 올렸다. 1946년 3월에는 안의사 37주기 추모일을 맞아 이등박문 동상의 자리에 그 동상을 녹여 안의사의 동상을 건립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947년에는 각계각층의 일치된 요구에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논의를 거쳐 적산인 장충단을 공원화하여 새롭게 단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민당 측으로부터는 정부수립을 앞두고 입법의원이 그런 한가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신경질적 반응도 나왔지만 미군정에서 장충단공원에 대한 일체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겼다. 미군정이 1947년 장충단공원 발기회 위원인 이승만, 김구, 김규식, 변성옥 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는 장충단 공원 10만 2천 90평과 그 부속건물 일체를 양도하여 운영권을 일임하였는데 애국지사 기념관 및 동상 건립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곧이어 남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장충단공원에 순국열사 관련 기념시설을 만드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

장충단공원의 국민공원화와 항일열사 기념 시설 건립 문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함께 분단이 심화되고 김구의 암살사건, 반민특위 해체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애초의 논의와 달리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초기 남북의 군사적 대립 과정에서 사망한 전몰장병에 대한 위령공간이었다. 1948년 12월 국방부는 장충단공원에 충혼탑을 세우기로 하고 447명에 대한 위령제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이어 공원 내에 장충사를 건립하여 1956년 국립현충원이 개장하기까지 위령시설로 활



오늘날의 장충단 공원

용하였다.

충군애국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된 전근대적인 공간을 일제가 식민지 주민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뒤바꿔었는데 해방후 이를 바로잡고 순국열사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시키려던 각계의 민족적 여망은 물거품이 되고 남북분단에 따른 국군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색된 것이다.

5.16쿠데타 이후 장충단은 아예 호텔 등의 고급 위락시설이 들어서거나 '국제반공십자군'을 표방하는 반공전사를 양성하는 반공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해방 직후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은 기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해방 후 10년을 넘겨서야 국민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의 성금으로 어렵사리 기금을 마련하여 동상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역 광장에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건립하기로 되어있던 동상은 교통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1959년 남산 기슭으로 옮겨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그에 반면 남산 신궁이 있던 자리에는 당시 대통령 이승만 관련 시설이 세워졌다. 현재 남산신궁 터에 있는 팔각정은 본래 이승만의 호를 딴 우남정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대통령의 은택'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되었다는 이 우남정은 서울시의 예산 3,600만 환을 들여 1958년 6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1959년 11월 16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경찰악대가 주악을 울리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끝난 이 낙성식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3부요인과 외국사절까지 참여하고 진행되었는데 국가행사임이 분명했다.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 대통령 동상(1956)




현재 남산 기슭을 지키는 있는 이시영(왼쪽)과 김구(오른쪽)의 동상

안의사 동상이 국민성금으로 어렵게 세워진 것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듬해인 1960년 3월 26일 순국50주년 기념행사가 안의사 동상 아래에서 간단히 진행하였는데 반해 같은 날 경무대에서는 이승만의 85주년 생일 축하행사가 3부 요인, 고위 정계인사, 유엔군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는 『동아일보』 기사에는 "조용히 생신축하"라는 제목을 뽑았지만 오전 10시부터 남산 우남정 등 8개 장소에서 기념식수가 진행되는 등 국가적인 행사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남산은 해방 이후에도 권력에게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능하였고, 현재에도 남산에는 김구, 안중근, 이시영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어 여전히 추모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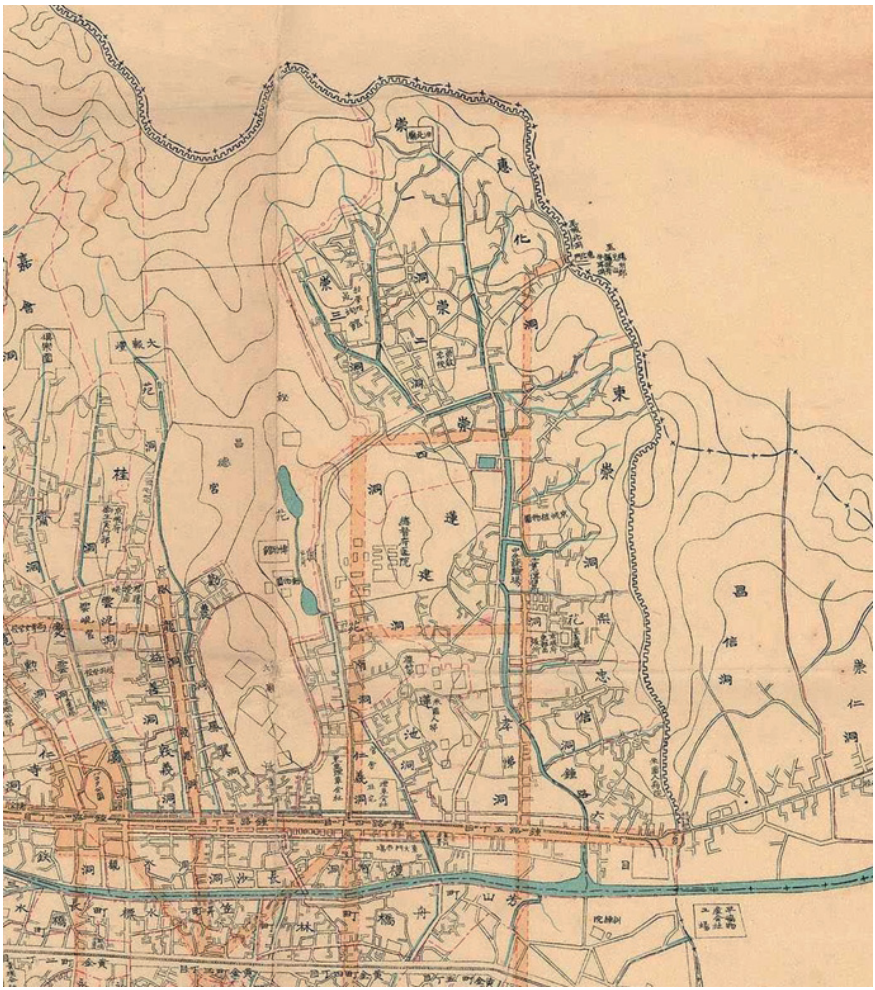
낙산은 산의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타락산(타락을 거꾸로 하면 낙타가 된다)으로 불렸으며, 높이는 해발 125m로 한양도성을 둘러싼 내사산 중에 가장 낮다. 낙산뿐 아니라 한양도성은 전반적으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청계천 또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만든 시설인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이 모두 동대문 옆에 있는 것, 지반 공사 때문에 동대문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다. 한편 동쪽의 낮은 지세는 풍수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었고, 곧 세자 등 후계자를 의미했다. 이런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훗날 흥인문의 이름을 흥인지문으로 바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낙산은 이렇게 낮은 동쪽 지세의 중심이다. 하지만 산이 낮다고 그곳에 담긴 이야기가 적은 것은 아니다. 낮은 만큼 친근했고, 사람들이 찾기 쉬운 곳 또한 낙산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낙산 – 별장지, 그리고 여성

현재의 낙산은 정상부근까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산'이라기보다 '언덕'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는 낙산을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낙산은 조선시대 이름난 별장지 중 하나였다. 숙종 대 우의정까지 역임한 신숙필은 낙산에 별장인 개석당介石堂을 짓고 두문불출하며, 꽃을 피우고 학을 기르며 유유자적하며 지냈다고 전한다.[56] 또한 『지봉유설』로 잘 알려진 이수광이 머물렀다는 '비우당庇雨堂' 역시 낙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4대 문장가로 불리기도 한 이정귀李廷龜(1564~ 1635)는 "낙산駱山 기슭에는 옛날에 명원名園이 많았다."고 기록하며,[57] '삼양헌三陽軒', '최락당最樂堂' 등 당대의 별장 이름도 함께 남겨 당시 별장지로서 낙산

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낙산에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 문집의 시문에도 잘 남아있다.



〈경성부명세신지도〉(1914) 가운데 낙산 부근.
이 지도를 보면 지금의 대학로로 개천이 흐르고 있는 것은 물론
낙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곳곳에서 합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先輩風流久寂寥 선배들의 풍류야 못 접한 지 오래지만
我公冠珮不蕭條 우리 공 모양새는 메마르지 않았었는데
從今駝駱山前路 이제부턴 타락산 앞에 길을 거닐어도
怊悵何門杖几操 의젓한 늙은이가 뉘 집에 있단 말인가.

위의 글은 조선 후기의 문신 윤휴尹鑴가 쓴 한 선배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이다. 시의 주인공은 장례원판결사를 지낸 이정李淀인데, 이 시는 그가 낙산 부근에 살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吾村駱下衣冠盛 낙산 아래 우리 마을엔 벼슬아치도 많은데
先輩凋零獨有公 선배들 모두 세상 떠나고 오직 공만 남았었지
永感餘生惟涕淚 남은 생애에 영감으로 오직 눈물만 흘렸나니
交情兩世自孩童 두 대에 걸친 우정 어릴 적부터 사귀었어라
詩書舊業雙珠在 시서의 가업 이을 훌륭한 두 아들 있고
琴鶴遺蹤一夢空 금학의 남은 자취는 덧없는 꿈이 됐구려
惆悵他時過故宅 서글퍼라 훗날 그대 고택을 지나갈 때
破垣枯草又春風 무너진 담장 마른 풀에는 또 봄바람이 불련만

위의 글은 앞서 언급한 이정귀가 남긴 글이다. 이 글에서도 낙산 아래에 의관衣冠을 갖춘 사람, 즉 벼슬아치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낙산에 많은 문인들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좋은 경관 때문이었다. 지금 낙산 아래에 있는 이화동의 옛 이름은 쌍계동雙鷄洞으로, 삼청三淸·인왕仁王·백운白雲·청학淸鶴과 함께 한양의 5대 명소로 꼽히는 곳이었다. 쌍계동은 말 그대로 두 개

의 개천이 흐르던 곳이다. 현재 낙산 아래에서는 어떤 개천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19세기 제작된 <수선전도>는 물론, 1914년 제작된 <경성부명세신지도京城府明細新地圖>에서도 지금의 대학로를 따라 청계천까지 흐르던 하천을 확인할 수 있다. 경관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세였다. 낙산의 낮고 평평한 지세는 집을 짓기에도 좋았으며, 창덕궁, 창경궁 등 조선 중기 이후 중심이 되던 궁궐과도 매우 가까웠다. 또한 동대문과 동소문을 끼고 있어 교통도 편리했다.

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었지만, 낙산은 남성들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낙산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였다. 그녀의 일생은 기구하도 말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풍파가 심했다. 세종 22년(1440) 판돈녕부사를 역임한 송현수宋玹壽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454년



2013년 동망봉 산신제의 모습. 정순왕후를 기리는 산신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비각은 이후 지역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어 조선의 국모國母가 된다.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실권을 잡게 되자 단종의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녀 역시 남편의 지위를 따라 '의덕'이라는 존호를 받고 대비가 된다. 그리고 그녀의 추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대비가 된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었듯, 추락 역시 그녀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성삼문, 박팽년 등이 상왕인 단종을 복위시켜려는 '역모'가 발각된 것이다(1457). 세조는 이 사건을 구실로 상왕인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격하시켜 영월로 유배 보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대비에서 군부인君夫人으로 신분이 격하되었다. 이후 그녀는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조선의 최하위 계층인 노비의 신분까지 떨어지게 된다. 대비에서 노비까지, 조선에서 유일무이한 신분변화를 겪은 것이다. 다만 세조는 그녀를 노비로 격하 시키면서도 노역은 시키지 않았다.

그녀가 낙산과 관련을 맺은 것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난 이후였다. 궁에서 나온 그녀는 낙산의 청룡사 부근에 거처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야사에는 낙산에 거처할 당시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남아있다. 하나는 그녀가 생계를 위해 염색을 하려하였는데, 그녀가 염색을 위해 집 근처 샘에 천을 넣었더니 그 천이 저절로 자주색으로 물들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을 증명하듯 지금도 비우당 옆 바위에는 '자지동천紫芝洞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도 그녀의 생계에 관한 것이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가 어렵게 지내는 것을 가엾게 여긴 주변 여인들이 그녀의 집에 먹을거리 등을 제공해주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여인들이 그녀의 집에 먹을거리 등을 가져다주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인들은 그 주변에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른바 '여인시장'을 열어 물건을 사고파는 것 같이 하며, 그녀에게 먹을 것

을 계속해서 전달했다. 이 두 이야기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낙산 봉우리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았다고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동쪽을東 바라보던望 봉우리峰를 동망봉이라고 불렀으며, 훗날 영조는 친히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하였다(이 바위는 일제 강점기 동망봉 지역이 채석장이 되면서 사라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헤어지고 모진 세월을 오래도록 살았다. 남편인 단종은 폐위된 바로 그해인 세조3년(1457)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녀는 중종 16년(1521), 그녀의 나이 82세까지 살았다. 그녀는 살면서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와 둘째 아들 예종의 이른 죽음과 성종의 치세를 모두 겪었으며, 계유정난의 일등공신인 한명회가 부관참시 당하는 것도 지켜봤다. 또한 중종 치세에는 서쪽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의 주인공인 단경왕후 신씨가 쫓겨나는 것도 모두 겪었다. 그녀가 이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낙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면 혹시 그녀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여성과 관련된 낙산의 또 다른 유적지는 청룡사이다. 청룡사는 고려 태조 5년(922) 도선국사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 왕명으로 창건되었으며, 첫 번째 주지스님부터 계속해서 비구니 스님만 주석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태종이 무학대사를 위해 왕명으로 중창하였는데, 청룡사는 고려와 조선 초 모두 국사를 위해 왕명으로 창건·중수된 샘이다. 국사와 왕명이라는 인연 이외에도 청룡사는 왕실과 관련이 깊다. 바로 왕실 여성들과의 인연이다. 고려 때에는 공민왕비인 혜비惠妃가 이곳에 머물렀으며, 조선시대에는 단종비 정순왕후가 이곳에 머물렀고, 영조는 이곳에 정업원구기淨業院舊基라는 글을 내리고 비석과 비각을 세우게 하였다. 현재에도 청룡사는 비구니 스님들만 주석하고 있다.

낙산의 근대 – 서민들의 주거공간

조선시대 문인들의 별장이 있던 낙산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지역의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된다. 원인은 도심의 확장이었다. 일제의 소위 '근대화'정책은 지방 농민들의 토지 상실로 인한 농민층의 빈곤을 가져왔고, 농민들은 토지를 이탈하여 빠르게 임금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식민지 수도 경성으로 모여든 이들은 옛 한양의 외곽 지역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낙산 자락도 그 중 하나였다. 낙산 바로 아래 자락에 위치한 현재의 창신동은 1927년에서 1938년까지 조선인 가구만 약 1,500여 호가 늘어 당시 경성에서 가장 조선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곳 가운데 하나였다.

농촌과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빠르게 자리 잡았기에 주거 환경은 좋지 않았다. 낙산자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토막'으로 불리던 기초적인 주거 시설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흔히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토막민들의 삶은 힘들었다. 이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1926년 1월 25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극도의 곤궁을 못 이겨 여자 5명이 자살시도." 소제목은 '추운 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참상. 그 중에는 방연 17세의 꽃 같은 처녀도 있다.'였다. 이들은 대한제국 당시 육군참령을 지낸 이흥선의 가족이었다. 이흥선이 죽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이들은 낙산을 찾아 그곳에서 얼어 죽고자 했던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범죄도 일어났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숨어들기도 했다. 1930년 9월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낙산에 거주하던 토막민 김태석은 시장에서 행인의 돈을 빼앗다가 경찰 및 소방대원에게 격투 끝에 체포된다.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사는 곳을 '낙산 밑 토막'이라고 굳이 적은 것으로, 토막민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極度의困窮을못익여
女子五名의自殺企圖
치운날이던집에서쫏겨나갈곳업는착상
그중에는방년십칠의꽃가튼처녀도잇다
舊韓國時代陸軍參領의遺族

일가족 5명의 자살시도 소식을 다룬 기사. (『동아일보』 1926년 1월 25일)

한편 그보다 앞선 1927년 12월 8일에는 조선공산당 만주총무국 소속의 박응칠이란 사람이 낙산자락으로 숨어들어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금이야 '공산당'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당시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였고, 일제에게는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 경찰을 박응칠이라는 자를 잡아 그를 단서로 핵심당원들의 정보를 알아내어 그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박응칠이 숨어든 곳은 낙산 일대였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는 낙산이라는 공간은 낯선 사람이 찾아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하지만 박응칠은 곧 체포된다. 아마 일본경찰은 핵심당원들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박응칠을 '취조' 했을 것이다. 그 취조의 방법이 가혹했을 것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취조 기록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의 남산은 도심과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였으며, 언제든 낯선 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이었다.

낙산은 현재에도 서민들의 주거 공간이다. 낙산공원과 성곽주변 일부를 제외하면 바로 밑까지 주택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한양도성 주변의 몇 남지 않은 성곽마을인 장수마을과 이화마을이 모두 낙산자락을 끼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수진)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실록』,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조선일보』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겸재정선기념관,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 2009.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2007.

김경임,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산처럼, 2013.

김영상, 『서울 六百年 1 – 북악 · 인왕 · 무악기슭』, 大學堂, 1996.

나각순, 『서울의 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7.

대통령경호실, 『청와대와 주변 역사 ·문화유산』, 대통령경호실, 200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 백년전 한국의 모든 것』, 살림, 1994.

최인학, 『옛날이야기 꾸러미』, 집문당, 2003.

최완수, 『겸재의 한양진경 –북악에 올라 청계천 오간수문 바라보니』, 동아일보사, 2004.

최종현 · 김창희, 『오래된 서울』, 동하,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백과 한국설화 인물유형』, 2005.

강혜선, 「16-17세기의 시사(詩社)와 아집(雅集) ; 인왕산 청풍계의 문학적 전통」, 『漢文學報』 25, 2011.

김해경 · 최기수, 「조선시대 인왕산 바위글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2007.

김홍곤 · 김영모, 「서울 북악산 도화동 원림유적에 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2010.

박영순, 「인왕산(仁王山) 호랑이와 서울성곽」, 『국토』 288, 국토연구원, 2005.10

이순우, 「[100년 전 여행] 서울의 '이마'에 새겼던 일제의 '광기'」, 『시사저널』 1091호, 2010년 9월 21일.

장지연, 「조선 전기 漢陽의 지세 인식과 風水 논란 및 설화」, 『역사문화연구』 46, 2013.

정유진,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정책과 민속신앙 : 국사당과 밤섬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조병상, 「서울시 북악산 일원 암각문화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연구』 13, 1999.

주석

1. 김영상, 『서울 六百年 1 – 북악 · 인왕 · 무악기슭』, 大學堂, 1996, 201쪽.
2. 김영상, 앞의 책, 201쪽.
3. 나각순, 「서울의 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7, 97쪽.
4. 『조선왕조실록』, 태조4년(1395) 12월 29일. 나각순, 앞의 책, 97쪽.
5. 『조선왕조실록』, 중종32년(1537) 3월 14일. 나각순, 앞의 책, 99쪽.
6. 대통령경호실, 『청와대와 주변 역사 ·문화유산』, 대통령경호실, 2007, 117쪽.
7. 김영상, 앞의 책, 253쪽. 나각순, 앞의 책, 153쪽.
8. 『조선왕조실록』, 세종15년(1433) 7월 9일.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1433) 8월 4일. 『조선왕조실록』, 세종16년(1434) 4월 24일.
9. 『조선왕조실록』, 광해군8년(1616) 3월 24일. "仁王釋迦之美稱也, 山舊有仁王寺故名."
10. 나각순, 앞의 책, 148쪽. 「인왕불(仁王佛)」,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11. 『조선왕조실록』, 연산군2년(1496) 4월 23일. 『조선왕조실록』, 연산군9년(1503) 11월 9일. 나각순, 앞의 책, 148쪽.
12. 『조선왕조실록』 중종32년(1537) 3월 14일. 나각순, 앞의 책, 150쪽.
13. 김영상, 앞의 책, 253쪽.
14. 김영상, 앞의 책, 253쪽.
15. 나각순, 앞의 책, 150쪽.
16. 「世宗實錄 總序」, 『조선왕조실록』, 오래된 서울 98쪽.
17. 최종현 · 김창희, 『오래된 서울』, 동하, 2013, 102~103쪽.

18. 『조선왕조실록』, 광해군8년(1616) 3월 24일.
19. 『조선왕조실록』, 광해군7년(1615) 11월 17일.
20. 『조선왕조실록』, 태조2년(1393) 1월 21일. 『조선왕조실록』, 태조3년(1394) 12월 3일. 『조선왕조실록』, 태조4년(1395) 8월 28일. 『조선왕조실록』, 태조4년(1396) 12월 29일.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115쪽.
21. 『조선왕조실록』, 정조22년(1798) 8월 4일.
22. 『조선왕조실록』, 태종14년(1414) 7월 25일
23.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122쪽.
24. 『신증동국여지승람』
25.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409쪽.
26. 『조선왕조실록』, 세조8년(1462) 1월 24일. 『조선왕조실록』, 세조13년(14673) 11월 19일. 『조선왕조실록』, 세조9년(14637) 12월 9일. 『조선왕조실록』, 세조10년(1464) 12월 6일. 『조선왕조실록』, 성종25년(1494) 8월 3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8년(1533) 2월 16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6년(1531) 12월 12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7년(1532) 5월 10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8년(1533) 3월 15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8년(1533) 3월 24일. 『조선왕조실록』, 중종28년(1533) 4월 12일. 『조선왕조실록』, 인조4년(1626) 12월 17일. 『조선왕조실록』, 고종5년(1868) 10월 4일. 『조선왕조실록』, 고종20년(1883) 1월 2일.
27.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 백 년 전 한국의 모든 것』, 살림, 1994, 154쪽.
28. 박영순, 「인왕산(仁王山) 호랑이와 서울성곽」, 『국토』 288, 국토연구원, 2005.10, 145쪽.
29.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312쪽.
30. 최인학, 『옛날이야기 꾸러미』, 집문당, 2003. 「인왕산 호랑이」, 『문화원형백과 한국설화 인물유형』,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31. 최원석, 「[우리 산의 인문학](21) 호랑이산의 생활사」, 『경향신문』, 2014년 11월 21일.
32. 정유진,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정책과 민속신앙 : 국사당과 밤섬부군당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7, 190쪽.
33.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321~322쪽.
34. 정유진, 앞의 논문, 190쪽.
35. 정유진, 앞의 논문, 191쪽.
36. 정유진, 앞의 논문, 191쪽. 「조선신사 준공과 국사당 移安 - 장소는 미정」, 『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 「한달내 헐릴 國師堂」, 『동아일보』, 1969년 3월 27일.
37. 정유진, 앞의 논문, 192~194쪽.
38. 「仁王山에 太極旗, 행순순사가 발견하고 압수」, 『동아일보』, 1923년 3월 20일.
39.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135쪽.
40. 이순우, 「[100년 전 여행] 서울의 '이마'에 새겼던 일제의 '광기'」, 『시사저널』 1091호, 2010년 9월 21일.
41. 「82만원의 倭色掃蕩, 인왕산의 南次郎 글 削除」, 『조선일보』, 1950년 2월 25일.
42. 김경임,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 산처럼, 2013, 218~221쪽.
43. 『조선왕조실록』, 단종1년(14534) 5월 19일.
44. 김경임, 앞의 책, 13~23쪽.
45.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314~315쪽.
46.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316~317쪽. 나각순, 앞의 책, 151쪽.
47. 나각순, 앞의 책, 99쪽.
48. 최종현 · 김창희, 앞의 책, 144~146쪽.
49.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200쪽.
50. 최완수, 『겸재의 한양진경 –북악에 올라 청계천 오간수문 바라보니』, 동아일보사, 2004, 29~35쪽.
51. 겸재정선기념관, 『[겸재정선기념관 개관기념 학술도록] 겸재정선』, 2009, 110~118쪽.
52. 최종현 · 김창희, 앞의 책, 106쪽.
5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201~207쪽. 청와대경호실, 앞의 책, 205~206쪽.
54. 「41년 만에 열린 '김신조 루트'」, 『매일경제』, 2009년 10월 26일.
55. 『서계집(西溪集)』 권10, 우의정 신공(申公) 묘지명.
56. 『월사집(月沙集)』 권37, 기상(記上).



05

도성의 시장들

도성의 시장들

서울에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시장이 두 군데 있다.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이다. 특히 남대문시장은 2014년 10월 개장 600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그 역사성을 널리 알렸다. 동대문시장 또한 약 300여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남대문시장에 버금갈 만큼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전통 시장의 명칭에 모두 '대문'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즉,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모두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양도성의 성문 주변에 형성된 시장이었다. 어째서 시장이 성문 주변에 형성이 되었던 것일까? 조선시대에는 이들 시장 외에는 시장이 없었을까? 그럼 이제부터 서울의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 시장의 건설

서울에는 언제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일까? 조선시대 이전 시기에 형성된 서울의 시장에 관한 기록은 매우 드물다. 다만 고려 공민왕의 신하인 임군보任君輔

가 기철奇轍의 무리로 몰려 "머리를 깎고 삼각산에 숨었으나, 잡아서 시장에서 곤장을 쳤다."라는 기록에서 이미 서울에 시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게다가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교통과 조운의 요지였으며,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따라서 물산의 교류가 빈번하여 상공업이 발달했을 것이다.

서울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한양도성 안, 즉 한양은 조선이 개국할 무렵부터 계획적으로 건설된 계획도시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종로 일대의 여러 길과 골목은 조선 초기부터 만들어져 온 길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600년 전의 종로거리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조선의 도읍지였던 서울에는 태종 때부터 국가에서 설립한 시전市廛이 종로거리와 남대문로에 길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마다 작은 시장들 또한 들어서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남대문과 동대문 부근에 사설 시장인 칠패·이현시장이 성립되어 관영 시장인 시전을 위협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그 외에 경강京江과 송파·누원 등 외곽 지역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산지産地 물품을 중간 매집하고 서울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 시장이 10~20만여 명 이상인 서울 주민들의 수요품을 공급하고, 관수품과 외교적 공물을 조달하였다.[2]

조선시대에는 정부가 시장을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물가와 실물경제를 정부의 의도대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는 일찍이 도성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시전을 건설했다. 시전은 종로거리와 남대문로를 따라 지어졌는데, 이곳에 자리 잡게 된 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도성 건설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 서울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던 궁궐·종묘·사직단·문묘·시전 등 중요 시설의 입지는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 혈처와 『주례周禮』 동관冬官 고공기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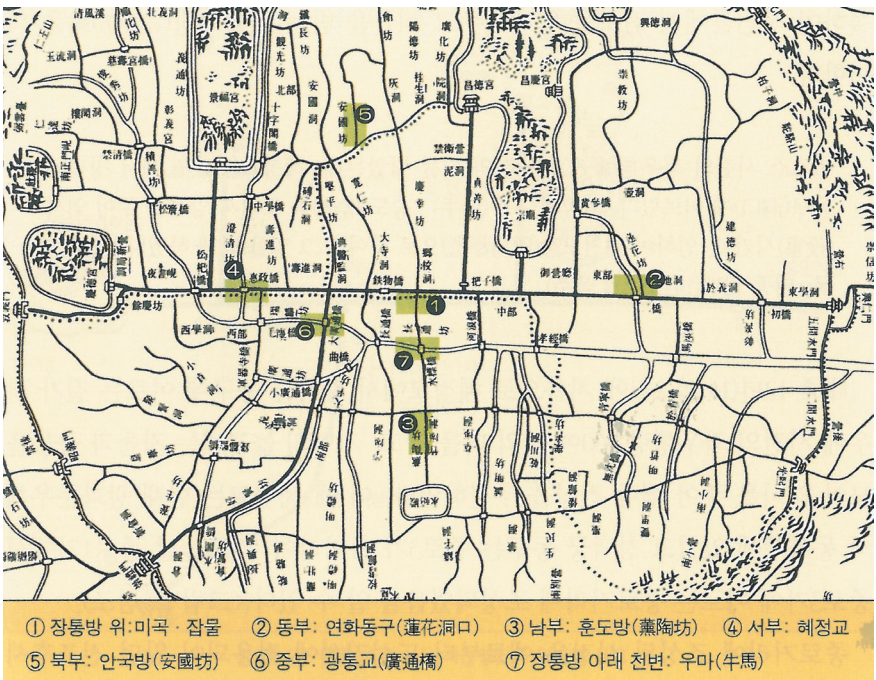
工記에 의한 '전조후시前朝後市',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랐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조후시'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풀이하자면 도성의 중심인 궁궐의 앞에 조정을 두고 뒤에 시장을 둔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에 따라 조선이 건국한 초기에는 경복궁의 후문인 신무문神武門 밖에 일시 장시를 개설하여 왕실과 관아 및 도성 주민에게 일용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무문 밖의 장시는 새 도읍을 정한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3] 정작 조선시대에 시전이 있던 곳은 '전조후시'의 원칙과 달리 궁궐 뒤가 아닌 궁궐 앞 육조거리의 동편, 즉 지금의 종로거리였다.

비록 조선이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지만, 그와 더불어 지형지세에 따라 도성을 건설하는 전통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에 시전이 궁궐 앞에 건설될 수 있었다. 즉, 조선의 새 도읍인 한성은 '북악-인왕산-남산-낙산'으로 이어지는 내사산에 둘러싸여 그 주변과 구분되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경계의 내외부 지형을 보면 인왕산과 남산 그리고 남산과 낙산 사이는 성내의 평탄한 지형이 성외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지형적으로 남북 방향보다는 동서 방향으로 평지가 연속되는 형세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형상 성문들이 성곽의 동서 방향에 근접하여 밀집하여 있고 간선도로란 이들 성문을 연결한 도로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동서 방향이 발달한 공간 구성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지형지세를 보면 자연스럽게 서대문과 동대문을 연결하는 종로가 시장이 형성되기에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북악의 남사면(남쪽을 향하여 경사진 면)인 도성 내의 북측 지역은 성곽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궁궐·관청·고급 주택가가 형성되었고, 남산의 북사면(북쪽을 향하여 경사진 면)은 그 반대의 이유로 서민 주택가가 들어섰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중앙 지점은 도시의 중심으로서 상업지구가 형성되었다. '운종가雲從街'는 종로사거리의 별칭인데, 사람과 물화가 구름같이 몰려듦

을 뜻하는 이 말은 조선 태조 때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시전행랑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 조선 태종 때부터임을 생각할 때 운종가를 중심으로 한 종로거리는 그 이전부터 한양의 번화가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

한편 시전이 건설되기 이전에도 종로거리 일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에는 상품 종류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 않고 마구 섞여 있어 어지러운 양상을 나타내었다. 게다가 사람과 물화가 많이 모이다보니 운종가 일대의 시장에서는 사기·절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태종은 1410년 2월에 서울 시장의 대시大市를 정하여, 품목과 지역별 수요에 따라 시장을 대략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정비는 남쪽과 북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로거리와 그 주변에 시장



태종 10년(1410)에 정비된 대시(大市)

을 배치한 것이었다.[5]

본격적인 시전행랑의 건설은 태종 12년(1412)부터 이루어졌다. 이때 시전은 국가에서 행랑을 건설하여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해주고 세금을 받는 관설 시장官設市場을 의미한다. 시전행랑 건설은 1412년 2월부터 1414년 9월까지 3년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6] 제1차로 혜정교에서 창덕궁 입구까지 800여 칸, 제2차로 창덕궁에서 정선방貞善坊(현재 묘동 부근)까지 472칸, 제3차로 경복궁 남쪽에서 종묘 앞까지 881칸, 제4차로 종루에서 남대문, 종묘 앞에서 동대문까지 길 양쪽에 시전 건물이 세워졌다. 특히 제3차 행랑 건설은 제1차 건설 때 지어진 행랑을 보수하거나 추가로 81칸을 더 세우는 한편, 그 너비를 좌우로 약간씩 더 넓힌 것이었다. 또한 이때 청운교에 있던 종루를 광통교 북쪽, 오늘날의 종로 사거리로 옮겼다.[7]

이렇게 건설된 행랑은 모두 2,000칸이 넘었으며,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또한 행랑 조성을 위해 파괴된 민가가 1,486칸에 달했는데, 그중 기와집은 126칸이고 초가집은 1,360칸이었다. 태종 때 건설된 행랑이 모두 시전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시전 이외에 각 관청에 분배하여 조방朝房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궁궐 시위군의 입직소入直所로도 이용되었으며, 각 지방에서 번상한 군인들이 머무는 군영軍營으로도 사용되었다.[8]

조선전기 시전은 종각을 중심으로 한 종로거리, 그중에서도 광화문에서 종로 3가에 이르는 지역이 주축을 이루어 전통적인 육의전 상가를 이뤘다. 우선 종로 사거리에서 광화문을 향하여 좌측에는 면포전綿布廛과 면주전綿紬廛이, 그 건너편의 우측에는 선전線廛과 저포전苧布廛이 자리 잡고 있었고, 종로에서 동대문 쪽으로는 좌우 양편에는 선전, 좌측 낙원동 일대에는 어물전魚物廛이 있었다. 종로사거리에서 남대문 쪽으로는 대광교大廣橋에 이르기까지 왼쪽에는 저포전, 오른쪽에는

면포전에 이어서 지전紙廛이 줄지어 있었으며, 북쪽의 안국동 방면으로는 좌우 양편에 4~5방房의 선전이 있었다. 그리고 시전은 원래 한 시전에서 1개 상품만 취급하는 일물일전一物一廛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쌀·어물·과일 등 일반의 수요가 많은 생활필수품은 일물일전이 곤란하므로 여러 개 점포가 공인되었다.[9)]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설 시장이었던바, 도성 주민들의 생필품을 판매하고 조달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국가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우선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수품官需品과 중국에 보내는 진헌 물품을 조달했다. 둘째, 국고 잉여 물품이나 외국사신 일행이 가져온 물품을 처리했다. 특히 중국 사신들은 많은 물건을 갖고 와서 고가에 판매하기를 희망했으며, 그 물량이 많을 때는 200궤짝이 넘기도 했다. 이들 물품의 일부를 시전에 강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0)]

이처럼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전행랑을 조성한 다음,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해주고 각종 역役과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국가가 시전을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도성의 물가와 실물경제를 조정의 의도대로 조정하기 위함이었으며, 나아가 전국의 상업과 유통을 지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시전은 구조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통제 아래 활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시전 상인들은 국역을 부담하면서 국가의 보호 속에서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했다. 이들은 도성 내 상품유통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녹봉미·진휼미 등을 매점하거나 대외무역에까지 손길을 뻗쳤다.[11)]

조선은 고려 때의 경시서京市署를 거의 그대로 답습해 1392년 건국 직후부터 시장을 관리·감독할 기구로서 경시서를 설치했다. 경시서는 시장의 물가를 조정하고 사기 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세금 부과를 감독하는 등의 일을 관장했다.

이후 세조 12년(1466) 1월에 경시서는 평시서平市署로 명칭이 바뀌었다. 평시서는 시전을 관리하며 말斗과 휘斛·자丈尺 등의 도량형을 바로잡고, 물가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성종 18년(1487) 12월에는 시전에 관한 일은 일체 한성부에서 관할토록 하였다. 그러나 시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성부 이외에도 평시서·사헌부 등에서도 시전의 도량형 문제와 부정거래 등에 대해 단속권을 갖고 있었다.[12)]

국가에서 개설한 시장인 시전은 도성 내 상품유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종로거리와 남대문거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성 주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조선 초의 사회적 안정을 배경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사치 풍조가 번지면서, 유통 상권의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상품 수요가 늘어났다. 자연히 서울 곳곳에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에는 인구증가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동네 거리마다' 민간 시장이 자리 잡을 정도로 발달하였으며, 도성 밖 한강 곧 경강京江 근처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경강변은 조선 초기부터 서울로 집중되는 물화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운수업이 발달하였으며, 선박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선상업船商業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특히 목재시장과 어물시장이 번성하였는데, 경강의 목재시장은 강원도 양구·인제 등지에서 베어낸 목재가 한강을 타고 내려와 경강변에 집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생선을 취급하는 어물시장의 경우, 상하기 쉬운 특성 때문에 강가에서 바로 신선한 물고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경강변의 어물시장이 활성화되었다. 그 외에 경강에서는 소금과 곡식의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13)]

동부채 칠패어東部菜七牌魚, 남문 밖 칠패 시장과 동대문 배오개 시장

'동부채東部菜' '칠패어七牌魚'라는 표현이 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세시풍속지에 실려 있는 이 표현은 당대 도성 내 시장의 풍경을 가리키는 것으로,[14] 남대문 밖의 칠패에서는 한강 하류를 통해 들어오는 서남해안의 어물이, 동대문 안의 이현梨峴에서는 도성 동쪽 일대의 채전菜田에서 생산되는 소채류가 주로 거래되었던 사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15] 또한 이 표현은 은연 중에 다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조선 초기와 달리 조정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시전이 아닌 사설 시장에서의 물품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칠패시전도〉(김학수 그림)

앞서 설명했듯이 조선전기에도 도성 내에는 '여항소시閭巷小市'라 하여 시전과는 별도의 시장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은 시장에 불과할 뿐 시전에 필적할 규모는 아니었다. 시전 외에 사설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한반도에 외침이 잦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시기를 구분하는데, 그 이유는 조선의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도성 내 사설 시장이 발달해가는 과정 또한 그러한 변화의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즉 양란을 겪으면서 도성 내의 시전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광해군 13년(1621)에 이르러서도 시전 상인들의 규모는 전쟁 전의 1/10도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재정이 바닥난 조정에서는 상인들에게 과중한 국역 부담을 떠안겼고, 중국 사신들의 무리한 진상 요구와 물품 강매를 대부분 시장에 떠넘겼기 때문에 도성의 시장은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시전도 복구되면서 물품 거래도 점차 활발해졌다. 또한 금속화폐의 유통과 대동법의 실시, 민간수공업의 발달, 대외무역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16]

조선후기 도성 내 상업의 발전은 양란 이후 본격화한 서울의 인구 증가와 주변 농촌에서의 상업적 농업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성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성 내 주민의 생필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따라서 곡물, 채소, 과실류 등 식료품과 숯, 섶나무 등 땔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어야 했다. 곡물이나 어물, 땔감 등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주로 한강 수운을 이용하여 도성으로 반입되었지만, 채소류와 같이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상품은 대개 도성 인근 지역의 상업적 농업에 의해 충당되었다. 이에 17세기 중반 이후 도성 인근에는 상품

작물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지역이 형성되었다.[17)]

어떤 작물이 재배되었는지 살펴보면, 우선 도성 주변에는 청파동과 왕십리, 아현 일대의 미나리, 남교南郊의 수박, 호박, 토란, 서교西郊의 가지, 오이, 부추, 파, 마늘, 고추, 호박, 동교東郊의 배추, 무 등이 있었다. 또 한강 남쪽의 송파, 양재, 탄천 일대에서는 오이, 호박, 무, 파, 배추, 가지 등이 집중적으로 재배되었고, 구파발 부근에서는 시금치, 쑥갓, 상치 등이 재배되었다. 용산, 창의문 밖, 구파발, 혜화문 부근, 홍제원 일대에서는 복숭아, 능금, 오얏 등 과실류도 재배되었다. 한강 연안의 포구들도 각각 특화된 상품을 취급하였다. 용산과 서강의 곡물, 마포의 어물과 소금, 서빙고의 얼음과 콩, 두모포의 곡물과 목재, 뚝섬의 목재와 숯, 송파의 목재 등 특정 포구가 특정 상품의 집산지가 되었고, 하역된 물품은 객주·여각의 손을 거쳐 도성 안으로 반입되었다.[18)]

각 포구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생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역지와 도성 사이의 주요 지점에는 일찍부터 관영·사영의 창고가 건립되었다. 남대문 안의 선혜청 창고, 서소문 안의 선혜청 별창과 진휼청 창고, 주자동鑄字洞의 남창南倉과 만리재의 신창新倉, 저동의 양향청糧餉廳 창고, 동대문 밖의 하도감고下都監庫와 남산 기슭의 금위영·어영청 창고 등이 조선후기에 새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관설 창고들이었으며, 이밖에도 강변에는 객주·여각의 사설 창고가 무수히 들어섰다. 사설 창고는 물론 일부 관설 창고의 주변에서도 보관 물자의 출납과 관련된 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9)]

이처럼 도성 안에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성에는 시전에 필적할 만한 사설 시장이 형성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남대문 밖과 서소문 밖을 중심으로 한 상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1660년에서 1670년 사이에 이 지역에는 미전米廛, 상전床廛, 어물전, 생선 난전亂廛 등이 계속 설

치되면서 종로의 시전과 함께 서울의 중요한 상가로 번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상가가 바로 칠패시장이었다.

칠패시장은 오늘날 중구 봉래동1가 48번지 일대를 가리키는데, '칠패'라는 명칭은 이곳이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이 한성부 지역을 8패로 나누어 순찰하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곧 어영청의 칠패가 남대문 밖에서부터 청파-서빙고-마포-용산지역의 순찰을 담당하고 있었다. 남대문 밖의 칠패의 초소인 복처(순라군이 밤에 지키는 초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형성된 시장을 칠패라고 부른 것이다.[20]

1760년경에는 오늘날 종로5가와 연지동에 해당하는 서울 동부의 어의동於義洞 근처에 또 다른 상가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조선후기에 새로 유입된 인구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한 곳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남산 기슭과 천변 철물교 이동 일대의 상당 지역이 빈 터로 남아 있었는데, 양란 이후 도성으로 유입된 인구가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특히 천변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져 숙종대에 이미 천변에 인접하여 도로를 침범한 민가가 500여 채에 달할 정도였고, 영조대에 시행된 준천濬川(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 바닥을 깊이 파내고 정비함)의 한 배경이었다. 영조는 준천을 시행한 후 어의동을 지칭하는 동촌東村에 민가를 많이 입주시키기 위하여 시전 설치를 허가하기도 하였다.[21]

한편 양란 이후 창경궁 동쪽 일대는 군병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1652년(효종 3) 어영청 직제가 정비되면서 선인문宣人門 밖과 조양문朝陽門 밖에 어영청 동영東營이, 오늘날 종로구 예지동에 해당하는 이현梨峴에 신영新營이 설치됨에 따라 이현 주변에 훈련도감 군인들의 집단 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조정에서는 이들 군병들과 그 식솔들의 생계를 돕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2]

동부 일대에 거주민들이 늘어나고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동대문 주변에서도 상업 활동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17세기 중반 이후 동대문 밖 일대가 상품용 채소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이현 일대는 지속적으로 번성하였고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23)]

이처럼 17세기 후반 이후 남대문 밖과 서소문 밖을 중심으로 곡물과 어물을 주로 취급하는 대규모 상가가 형성된 것이나, 18세기 중반 시전가 동쪽 일대에 주로 소채류를 취급하는 장이 새로 마련된 것은 모두 도성 주민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상업 지구의 공간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현, 칠패 등지에 생겨난 새로운 시장이 조선 초부터 도성 내 상업 중심지였던 종루와 함께 도성의 중심 상업 지구로 등장하였다.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박제가朴齊家는 이를 가리켜 이른바 '도성 삼대시都城 三大市'라고 부르기도 하였다.[24)]

남대문 밖의 칠패는 도성과 아랫강, 즉 서해를 거쳐 한강 하류로 올라오는 물자가 도성으로 반입되는 경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현은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화가 소위 윗강 여각들을 거쳐 도성으로 반입되는 요로에 있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남대문 밖의 칠패에서는 한강 하류를 통해 들어오는 서남해안의 어물이, 동대문 안의 이현에서는 도성 동쪽 일대의 채전에서 생산되는 소채류가 주로 거래되었다.

그런데 이현과 칠패 등 조선후기에 새로 생겨난 사설 시장은 오늘날의 시장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의 재정 및 군정에 관한 사항을 모아 놓은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는 "행상이 모여 교역하고 물러나는 것을 '장場'이라 한다. 종루, 이현, 칠패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여 도성의 3

대 시장을 모두 '장場'으로 규정하고 있다.[25] 즉, 도성의 3대 시장은 점포의 밀집지대일 뿐 아니라, 행상들이 모이는 장시이기도 했다. 또한『경도잡지京都雜誌』에서는 "무릇 시장에 나오는 자는 새벽에는 이현과 소의문 밖에 모여들고 오후에는 종가에 모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6] 이처럼 조선 후기 도성의 3대 시장은 비록 매일 열리기는 하지만, 시전과 달리 일정한 시간 동안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상설 시장이었다.[27]

칠패와 이현시장의 경우 새벽에만 열린다고 하여 '조시朝市'라고 부르기도 하였다.[28] 조선시대의 상거래 행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접촉하기보다 중간도매상과 행상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감안할 때 이현과 칠패시장이 새벽 시장이었다는 언급은 대다수 주민들이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오기보다는 중간도매상이나 행상이 주된 구매자였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인은 주로 행상으로부터 구입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추측에 신빙성을 더 해준다. 즉, 칠패와 이현시장은 오늘날의 상설 시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제한적 상설 시장이었다.[29]

조선 최초의 근대적 '상설' 시장, 남대문시장

2014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남대문시장 중앙통로 사거리에서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대문시장 개장 60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중구청은 1414년 조선 태종 때 건설된 시전행랑 가운데 남대문로에 행랑을 건설한 시기가 1414년이었던 데서 남대문시장의 연원을 찾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남대문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남창동에 선혜청이 설치되었다고 설명하였다.[30]

중구청의 행사로 남대문시장의 역사성이 새삼 부각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남대문시장은 조선후기 도성의 3대 시장으로 일컬어졌던 칠패시장으로부터 그 연

원을 찾았다.[31]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칠패시장은 사설 시장이었고, 조선 초에 건설된 시전은 국가에서 개설 허가를 내준 공설 시장이었다. 오늘날의 남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설 시장이니 칠패시장에서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옳은 듯 보인다. 그런데 칠패시장은 남대문 바깥에 형성된 시장이었다. 오늘날의 남대문시장은 남대문 안에 있다. 중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선혜청에 남대문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선혜청은 조선후기 대동미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설시장인 남대문시장이 관청인 선혜청이 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리고 과연 칠패시장은 남대문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

조선 후기 이래 서울의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칠패시장이 남대문시장으로 재편된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오늘날 남대문시장의 형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칠패시장이 곧바로 남대문시장으로 재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남대문 안팎에는 2개의 대형 시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대문로의 시전행랑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남문내 장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대문 밖에 자리한 '칠패시장'이 있었다.[32]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기록에는 남대문 조시朝市라 하여 남대문 바로 안쪽에 새벽 시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1900년경을 기점으로 그 역사가 300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 남대문 조시는 '도깨비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새벽녘에 열렸다가 날이 밝으면 씻은 듯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전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시장이어서 관청의 단속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었다. 남대문 안에서 열린 새벽 시장은 기본적으로 남대문까지 이어진 시전행랑이 중심이었지만, 소채상, 신탄상薪炭商 등의 행상들도 다수 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행상은 새벽에 남대문 밖에 모여 있다가 문이 열리면 성 안에 들어와 장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는 때에는 노도와 같은 기세로 말, 소, 사람, 물건이 일시에 밀어닥칠 정도였을 만큼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33]

이처럼 남대문 안팎에서 시전에 필적할 만한 규모의 사설 시장이 오늘날 남대문시장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였다. 조선은 1876년 운요호 사건으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개항 이후 서울의 시장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관철되는 새로운 시장 흐름에 대응해야 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청·일 양국인의 거류였다. 이들의 등장으로 도성 내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종로 시전과 칠패·이현 등지의 전통 시장 외에 수표교 등지에는 중국인들의 청시淸市가 생겨났고, 일본 상인들은 남산과 진고개 등지에 상점을 차려 놓고 장시를 하였다. 특히 1905년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모여 오늘날의 서울역 맞은편과 용산 등지에 수산시장을 설립하고 서울의 어류시장을 잠식하여 갔다.[34] 이 중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투는 도성 남부, 즉 남대문 지역의 상권을 크게 위협하기 시작했다.

한양도성 내에 일본 상인들의 진출이 본격화한 것은 1891년 일본 영사관에 의해 「노점영업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일본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진고개를 벗어나 남대문 주변으로 진출하여 남대문통, 남대문 조시朝市 등에 출점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영사관에서는 남대문 조시의 일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사 수 명을 증원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 상인들의 남대문 지역 진출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인들은 전쟁의 승리를 틈타 자국의 정치, 군사적 위력을 등에 업고 다투어 진고개 외의 곳에 개점을 시도하였다. 심지어 일본 영사관에서는 일본인 거주지와 남대문통을 잇는 도로를 개착함으로써, 남대문-진고개를 중심 상업지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35]

여기에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남대문정거장역이 세워짐

으로써 남대문 지역의 조선인 상권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남대문정거장이 바로 경강京江에서 칠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지점에 세워짐으로써 칠패시장의 중요한 유통 경로를 절단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1900년경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던 칠패시장의 객주, 여각들은 철도 운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상황에서 일부는 소운송업으로 전업을 모색했지만, 통감부의 소운송 통제책으로 인하여 그나마도 용이하지는 않았다. 객주업을 유지하려는 객주들도 자암 태흥사紫岩 泰興社, 합자회사인 만성상회晩成商會 등과 같은 회사를 설립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칠패시장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 물러난 뒤, 1905년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일본 자본이 투자한 주식회사 경성수산시장이 들어섰다. 이어 1908년에는 남대문 안에 다시 '日の丸魚市場'이 설치됨으로써 '칠패어七牌魚'는 완전히 일본인에게 넘어갔다.[36]

한편 조선 조정은 도성 내의 도로를 침범하고 있던 가옥들을 철거하고 그 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한양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행된 첫 조치가 바로 1895년 4월 16일 한성부윤 유정수柳正秀의 명의로 발포된 '가가금령假家禁令'이었다. 이 조치는 도로를 범하여 가옥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던 도로변 가옥들을 철거하여 도로의 본래 넓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일본인들의 남대문로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 남대문로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한인 가옥을 매입하여 일본식으로 개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조치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한성부의 조치를 수용하는 한편,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진고개와 남대문로변의 한인 가옥들을 철거하도록 조선 조정에 압력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1895년 11월에 이르러 남대문과 진고개를 잇는 길 좌우의 나동, 명동, 낙동駱洞, 장동 등지에 있던 한인 소유 가가假家는 대부분

철거되었고, 가로변 가옥은 모두 일본인 소유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37]

한성부의 도로 개수는 아관파천이 일어난 후 고종의 주도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6년에 조선 정부는 내부령內部令으로 '한성 내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을 공포했다. 이때 "황토현으로서 흥인지문까지와 대광통교로서 숭례문까지"에 이르는 도로, 곧 오늘날 종로와 남대문로 전 구간의 도로 폭을 55척으로 정하는 동시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의 형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허가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앞서 한성부에서 내린 조치와는 달리 도로를 침범한 가가假家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의 일정 부분을 합법화하여 사실상 영구적 건조물로 할 수 있도록 한 데 특징이 있다. 이는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교통의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상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치에 이어 종로에는 전차 궤도가 부설되면서 서울의 중심가로로서의 위상이 확고해 질 수 있었다. 전차의 부설은 일본인의 상권 침탈로부터 종로 상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38]

한편 도로 개수에 따라 도로변에 나와 있던 시전 가가假家, 즉 상점들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했다. 앞서 종로변에 상점을 낸 상인들의 거취는 불분명하지만, 남대문로의 경우 조선 정부는 남대문로 좌우에 펼쳐져 있던 시장을 선혜청 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구상도 반영된 것이었다.[39]

조선 정부는 선혜청 동대청東大廳에 이어진 곳간과 마당을 시장 터로 제공키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 당시 선혜청 안으로의 시장 이설은 훗날 적당한 곳을 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

어 오늘날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졌다. 선혜청 안의 시장은 한성부 서서西署 양생방養生坊 창동倉洞에 속했으며 지금의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일대이다.[40]

1897년 1월 남대문로 주변의 가가假家들을 수용하여 설립된 선혜청 안 시장은 주변 가가들 뿐 아니라 점차 인근 칠패시장의 상인들과 선혜청 앞에서 노점을 벌이던 행상들까지 받아들여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본래 남대문로 좌우에는 쌀, 과일, 잡물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데 반해 1899년경의 선혜청 안 시장에는 어물전이 오히려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어물전이 선혜청 안 시장의 주축을 이룸으로써 '칠패어七牌魚'로 표현되는 칠패시장의 전통을 이어 나갔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장에는 미곡, 어물, 과일 등 도성 주민의 생필품을 취급하는 상점들과 행상들이 나와 있었다. 또한 연중무휴로 열렸기 때문에 설립 당초부터 상설시장으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41]

칠패시장이 이전된 이유로는 시장 바로 뒤편으로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1896년 3월에 조선은 미국인 모스(Morse, J. R)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허용했다. 따라서 경인선 철도 건설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칠패시장 또한 선혜청 안으로 옮겼을 것이다.[42]

선혜청 안 시장은 3-5일장 체제로 이뤄지는 재래의 정기시定期市는 물론, 매일 새벽에 한시적으로 열리던 조시朝市와도 구분되는 최초의 '근대적 상설 시장'이었다. 이는 그동안 최초의 상설 시장으로 알려진 광장시장보다 10여 년 앞서 설립된 것이었다. 선혜청 안 시장은 초기에 '남문내 장시', '선혜청 창내장倉內場', '남문안장', '신창新倉 안장' 등으로 불렸으나, 이후에 점차 '남대문시장'으로 부르기 시작했다.[43]

한편 선혜청 안 시장은 국가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상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록 시전과 같이 별도의 국역을 부담하고 특권을 갖는 상인들은 아니었

다고 하나 민간 시장으로 단정 짓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 1897년 설립 직후 정부는 선혜청 안 시장에 자리를 낸 상인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1899년부터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당시 지방 장시에서 거래 행위에 부과했던 '장세場稅'와는 성격이 달랐다. 명목상으로는 세금稅이었지만, 실제로는 점포 및 부지 사용료였던 것이다. 이후 광장시장주식회사가 창고와 점포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은 방식 역시 이러한 수세방식을 차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선혜청 안 시장 관리는 '시장 경영 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 방식이었다.[44] 이처럼 선혜청 안 시장은 국가에서 상인들에게 점포와 창고를 제공하고 세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관영의 모습을 띠었지만, 시전 상인들과 달리 별도의 국역을 부담케 하지도 않았고 상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실제로는 점포 이용료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민간 경영의 형태를



선혜청 창내장(1900년경)

취하고 있었다.

이렇듯 남대문 지역의 조선인 상인들은 정부가 선혜청 창고 안에 부지를 마련하고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서 일본 상인들의 상권 침탈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뒤, 남대문시장은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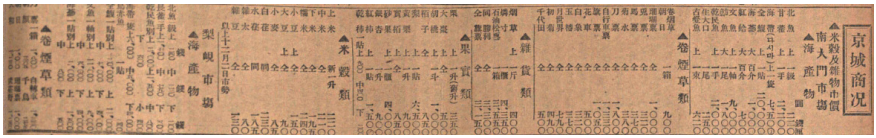
일제는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조선의 시장과 상업 및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1913년부터 1917년까지 시장조사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4년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시장규칙'을 반포하여 한국 내 시장 장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시장규칙'은 전체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시장을 허가제로 하고, 시장 운영은 공영公營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규칙'에서는 시장을 제1호, 제2호, 제3호 시장 등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시장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정책에 따른 시장 재편 전략이 담긴 것이었다. 조선의 전통적 시장은 모두 제1호 시장으로 분류하였고, 제2호, 제3호 시장은 이전의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이른바 '신식 시장'이었다. 따라서 제1호 시장에는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조선의 전통적인 시장이 대부분 포함되었다.[45)]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는 동안 남대문시장을 관할하는 주체도 계속해서 바뀌었다. 이미 구한말 남대문시장을 관할하던 기관은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장원이었으며, 내장원에서 임명한 관리들은 대표적인 친일파인 송병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시장의 설치 및 운영권을 하나의 특권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관리를 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남대문시장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친일파의 존재 덕분이라는 점이다.

이미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6월『황성신문』은 선혜청 안 시장을 종로로 옮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보도한 바 있고, 이러한 소문과 관련하여 남대문 부근 상인 일부가 광장회사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광장회사의 시장 설립 시도가 한창이던 1905년 7월, 일본공사관에서 갑작스럽게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 광장시장의 위치가 남대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일도 있었다. 일찍부터 일본 상인들이 남대문 주변으로 진출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실제로 남대문시장을 폐지하거나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시장이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송병준과 같은 친일파들이 남대문시장 관리를 맡았던 덕분이었다.

한일병합 이후 남대문시장의 관리권은 결국 친일파인 송병준에게 넘어갔다.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선혜청 기지를 15년 연한으로 송병준의 조선농업주식회사에 대부해주었던 것이다. 이후 1922년에 남대문시장의 경영권 일체가 일본인 회사인 중앙물산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 일본인의 소유인 중앙물산주식회사에 경영권이 넘어간 이후, 시장 이름도 중앙물산시장으로 변경되었다. 1931년 조선총독부가 중앙물산주식회사에 국유지인 남대문시장 기지基地 2,600여 평을 시가의 1/10 정도의 싼 값으로 불하하였다. 이로써 남대문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중앙물산주식회사는 곧바로 세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장을 운영했다. 이에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불만을 품고 1933년 12월 26일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를 창립하고 중앙물산주식회사의 일방적 경영에 대응해 나갔다.[47]

한편 조선총독부는 '시장규칙'의 규정에 따라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의 시장 허가가 만료되는 1937년을 즈음하여 이를 대신할 경성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해 한국의 전통시장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중일전쟁 등으로 자금과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중앙도매시장은 본래 계획보다 축소되어


京城商況

남대문 시장에서 거래된 물품과 가격 (1912년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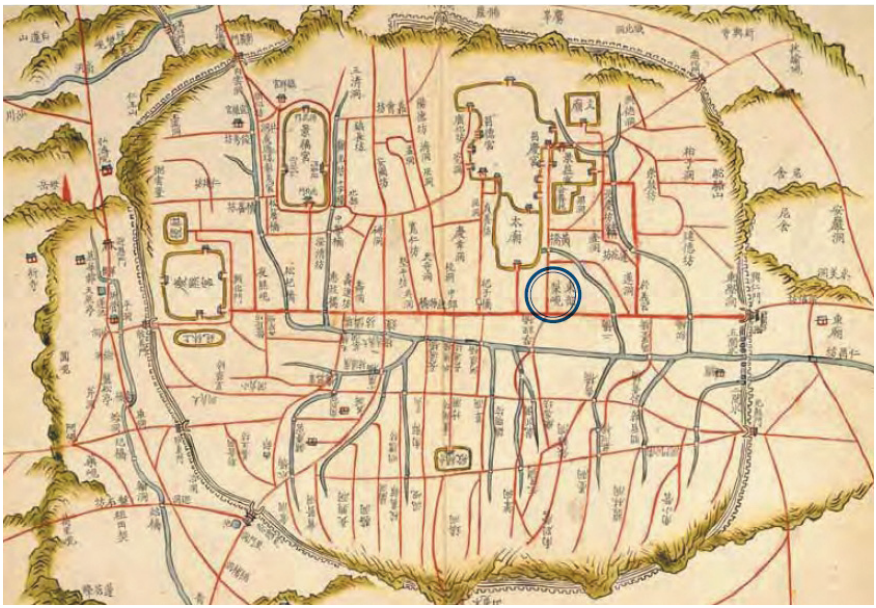
1939년 4월 1일에 문을 열었고,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소매시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48]

일제 강점기의 남대문시장은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었지만, 도매상과 위탁판매상의 비중이 높았다. 남대문시장에서는 주로 미국과 과일·채소·염간어 등 농수산물과 식료품을 판매하였으며, 그 외에 육류·잡화 등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였다.[49]

한편 남대문시장은 경영자와 상인 가운데 일본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인과 고객은 조선인이었다. 취급물품 또한 조선인이 애용하는 상품들이 많았다. 상거래 환경도 전통적 요소가 강하여 남대문시장은 비록 일본인이 주도권을 장악한 남촌에 있었지만 "조선 사람과는 과거와 현재에 중대한 관계를 가진", "조선 제일의 조선인 시장"으로 간주되었고, 상인들도 수백년 역사를 지닌 역사적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50]

조선 최초의 '사설' 상설 시장, 광장시장

앞서 살펴본 남대문시장처럼 동대문시장 역시 개항기로 접어들면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일본인 상인들은 남산과 진고개를 중심으로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청일전쟁 이후에는 남대문로는 물론 구리개(중구 을지로 1가와 2가 사이에 있던 나지막한 고개) 일대로까지 상권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본의 군사력을 앞세운 상권 장악에 밀린 조선인 상인들이 자리 잡을만한 곳은 청계천 이북, 종로



옛 지도 위의 이현(19세기 《동여도》)

주변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고친 뒤 도시 개조를 본격화하면서 길가에 노점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 상인들에게 새로운 도시 상설 시장의 설치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1905년 광장시장의 설립은 이처럼 장사를 벌이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불리해지는 한편, 선혜청 안 시장과 같이 상시 개설되는 시장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울에 새로운 상설 시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세워진 것은 선혜청 안 시장에 대한 일본측의 압력이 감지되면서부터였다. 러일전쟁의 승리 이후 일본이 통신기관의 장악은 물론 군용지 확보를 위해 선혜청 안 시장은 신문 바깥으로 옮기고, 이현시장은 동문 밖으로 이전하며, 푸줏간은 모두 문밖으로 축출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한 일본이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현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 상인들은 자금이 유통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이현 일대의 상인들은 자본력이 있는 부상들을 중심으로 관료들을 끌어들여 1905년 7월에 광장회사廣長會社를 설립하고 시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광장회사'라는 명칭은 애초 광교廣橋에서 장교長橋에 이르는 구간에 시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각 광교와 장교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었다.[51]

광장회사의 설립 당시 사장은 김종한金宗漢이었고, 사무장은 박기양朴箕陽, 총무장은 신태휴申泰休였다. 그밖에 홍충현洪忠鉉, 박승직朴承稷, 최인성崔仁成 등 주주가 30여 명이었다. 사장인 김종한은 근대적 기업경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개화파 고위 관료로서 대한제국 정부는 물론 일본측과도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아울러 광장회사는 자본금 300만 냥으로 출발한, 당시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였다.[52]

새로운 시장의 건설을 목적으로 수립된 광장회사는 설립 직후부터 시장 개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때 광장회사가 추진한 시장 건설 방안은 두 가지였다. 첫째, 종로 시전 남쪽의 청계천 구간과 그 남쪽 아래 개천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둘째, 이현시장 근처인 효경교 북쪽의 조산造山 옆 밭에 새로이 시장을 건설하는 방안이었다.[53]

이때 광장회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1안으로 추정되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배오개시장 터에 고사庫舍를 신축하고 상인을 유치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시장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회사의 명칭도 '廣長會社'에서 '廣藏會社'로 바뀌었다. 광장회사에서 초기의 안을 포기하고 둘째 안으로 시장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일본 공사관에서 광장회사의 시장 설치가 남대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항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1900년대 초에 남



1900년대 초 동대문 시장 풍경

대문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가운데 30% 정도가 일본인일 만큼 일본의 남대문 시장 진출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이 청계천변의 시장 건설에 적극 반대했던 것이다.[54]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광장회사는 본래의 배오개시장 옆에 시장을 건설하고, 기존 배오개시장을 흡수하면서 서울에서 두 번째 상설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광장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사설'의 상설 시장이었으며, 시장을 경영하는 광장회사는 창립 당시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이다.[55]

광장회사의 시장은 '광장회사 시장', '이현 광장회사 시장', '광장내 시장', '이현 시장' 등으로 불렸고, 1905년 일본인이 조사·정리한 자료에서는 '동대문시장'의 명

칭이 등장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주로 '동대문시장'으로 불렸지만, 1930년대까지도 '이현시장'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56]

일제강점기에도 광장시장, 즉 동대문시장의 경영권은 줄곧 광장회사에서 행사하였다. 광장회사는 1911년 12월 21일에 광장주식회사로 상업등기를 했으며, 자본금은 78,000원이었다. 임원으로는 이사에 김종한·홍충현·김한규, 감사역에 박승직이 있었다. 일제 하에서 동대문시장은 '시장규칙'에 의해 제1호 사설시장으로 분류되었다.[57]

1912년에 동대문시장의 운영과 그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광장주식회사의 사장단과 실질적인 운영진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광장회사 설립 당시부터 사장이었던 김종한은 이때까지 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상인 출신인 홍충현 등이 담당하고 있었다. 광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실제 운영권을 행사해 온 홍충현, 박승직, 김한규 등은 양반 출신이자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을 수여받은 김종한 사장을 퇴출시켜 명실상부하게 시장 운영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리고 1912년 2월 14일에 총회를 열어 "김종한을 사장으로 추대함은 광장회사의 불명예"라고 규정하면서 아직 임기가 남은 김종한 퇴출을 결정하고, 이를 통고함으로써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종한이 이에 반발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양반'과 '평민' 간의 싸움으로 번져 '귀족 전체에 대한 모욕행위'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김종한과 홍충현이 사퇴하고, 박승직·김한규·김용집·심의석 등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해 광장주식회사의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들은 실제 상업·금융업 분야에서 활동하던 인물들로, 사실상 실제 운영권을 쥐고 있었던 이들이 광장회사를 장악했던 것이다.[58]

1910년대 초에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는 더 이상 운영권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인 회사인 광장주식회사가 부지와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던 덕분에 일본인 경영자와 상인들 사이에 대립·갈등이 심했던 남대문시장에 비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다. 동대문시장은 운영자와 상인·고객이 대부분 조선인으로 구성된 조선의 대표적 시장이었으며, 남대문시장과 더불어 서울의 '양대 시장'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당시 서울의 인구 증가와 무역 거래량의 증가로 동대문시장 또한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남대문시장이나 남촌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형편이었다.[59]

동대문시장 역시 남대문시장과 마찬가지로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었으나, 남대문시장에 비하여 소매시장의 성격이 강하였다.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미곡과 채소·과일·염간어 및 일상 생활용품 등이었으며, 특히 곡식과 채소 등 농산물 판매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때 농산물은 대부분 대두大豆·소두小豆였고, 강원도, 경기도 인근으로부터 들어왔다.[60]

1936년경 동대문시장은 자본금 350만 원 가량, 상주 상인 170명, 1일 매상고 만 원, 연간 매상고 300만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상주 상인들 이외에 매일 800여 명의 장꾼들이 드나들며 매일 3,000원 정도의 매상고를 올렸고, 이용료로 한 지게에 4전씩 받았다. 이처럼 동대문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당한 규모로 확장되었지만, 당시 남대문시장의 자본금(700-800만 원)과 1일 매상고(8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61]

일본이 1937년에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기타 시장의 허가가 만료되면 경성중앙도매시장을 설립하고 기존의 시장들을 폐지하려 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상인들도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대문시장을 경영하는 광장주식회사에서는 예정된 허가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인접한 금촌양행今村洋行의 부지와 건축물을 매수하고 시장 내 시설의 확충 및 시장 건물의 개축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경성중앙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일본의 전쟁 수행 등으로 시장을 건설할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동대문시장 역시 1939년 4월 1일 경성중앙도매시장이 개점한 이후에도 소매시장으로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본래 소매시장의 기능이 강했던 동대문시장은 도매시장이 중심이었던 남대문시장에 비해 경성중앙도매시장 개설에 따른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상권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이후 동대문시장은 소매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62]

전쟁과 재건, 시장의 현대화

해방 이후 서울의 시장은 남촌과 북촌으로 나뉜 시장체제를 극복하고 식민지 경제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법은 마련되지 못했고, 서울로 몰려드는 해외동포와 월남민 등이 무작정 노점을 열고 무허가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단속과 철거가 반복되는 등 시장의 거래 질서는 나아지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했다.

해방 이후의 시장은 공설 시장·사설 시장·백화점 등으로 구분되었다. 공설 시장은 일제 때 설치한 제2호 공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형태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가축시장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사설 시장은 공설 시장과 대비된 개념으로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의 전통적 시장과 해방 이후 새로 설립된 사설 시장을 총칭하였다.[63]

사설 시장은 공설 시장과 달리 해방 이후 설립된 시장이 이전에 개설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 서울의 사설 시장은 대부분 자체적인 시장 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청량리시장·공덕시장·안암시장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64] 동대문시장은 1905년 이래 주식회사의 형태를 유지했으나 1950년대에 정치깡패 이정재가 시장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적산으로

취급되었던 남대문시장은 1950년대에 전쟁과 대 화재를 겪으면서 재건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여기에서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해방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사회질서의 변화 속에서 서울의 시장이 어떻게 변모해 나갔는지 살펴보겠다.

1)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은 해방 이후 적산敵産,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적국인 일본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미군정에서 시장의 운영권을 시장 상인들에게 넘기지 않아 분쟁을 겪었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해방 직후 상인연합회를 다시 결성하고,[65] 남대문시장이 적산이 아님을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운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당시 남대문시장의 관리인인 임병연林炳璉이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인데, 주변의 친지가 적산 관리처에 있음을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남대문시장을 운영·관리했던 중앙물산주식회사를 적산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관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임병연이 모 청년단체원들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기존 회사의 중역들을 축출했으며, 중앙물산주식회사가 적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주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므로, 상인연합회 회원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6]

해방 직후에 제기된 남대문시장의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중앙물산주식회사 관리인을 역임했던 엄복만이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산 불하 문제를 놓고 앞서 적산을 불하받은 임병연 등과 시장 상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67] 하지만 엄복만이 대한청년단 중구단장을 역임했

고 남대문시장을 자신의 구역으로 삼았던 깡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힘으로 눌렀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남대문시장 상인들도 모두 피난을 떠났다. 상인들은 집단적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1951년 6월 5일경 20여 명의 선발대를 꾸려 서울로 다시 들어왔다.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회고에 따르면, 일대에는 철조망을 쳐 놓아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주변 서울시 경찰국 후방 북창동 폐허지에 잔류 시민들이 나와 100여 개의 노점을 열고 미약하게나마 상거래를 펼치고 있었다.[68]

그 후 남대문시장은 1951년 11월에 당국의 협조를 얻어 판자와 천막 조각을 모아 300여 개의 노점을 열고 다시 개장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7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15명이 북으로 납치되었으며 200개의 점포가 소실되었다. 1.4후퇴 때에는 서울에 점령한 중공군이 야전병원 혹은 주둔지로 남대문시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69]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대문시장은 대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54년 6월 23일 저녁 8시가 다 되어 갈 무렵에 시장 안에 있는 협동양복점에서 큰 불이 나 순식간에 시장 일대를 불태워버렸다. 이 화재로 인해 1만 평에 달하는 건물이 전소되었으며, 물품 소실이 2,757만 환, 건물 소실 4,120만 환 등 모두 6,877만 환의 손해를 보았다. 다행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고, 발화 지점인 협동양복점에서 가솔린 램프를 만지고 있던 양복점 주인이 안면 화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70]

남대문시장 대화재 이후 서울시는 화재 현장을 정리하면서 시장에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 지역에서 장사를 벌일 수



南大門市場大火

損害額六千八百餘萬圜

消防車49臺動員

遮斷作業으로겨우鎭火

罹災民은百名內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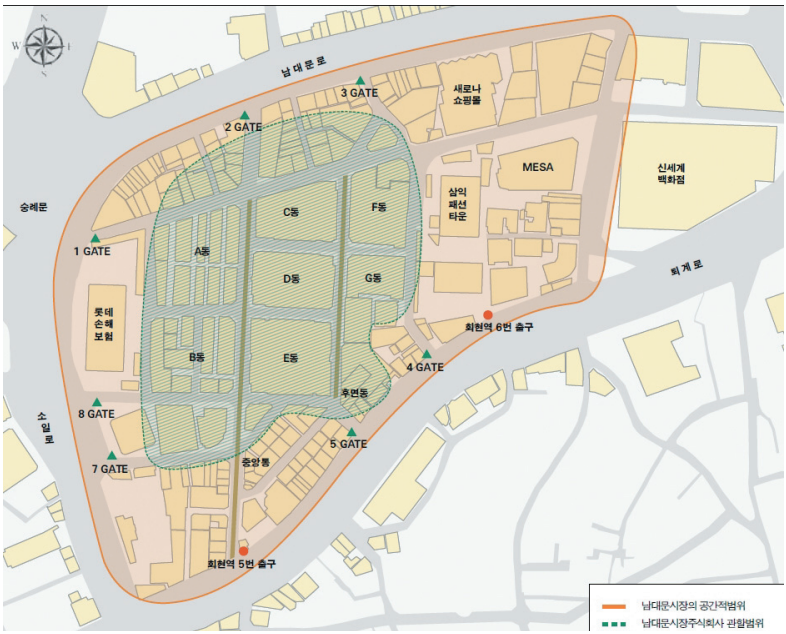
救護物品

西紀1954年6月25日 金曜日 (陰五月二十五日) 東亞

남대문 시장 화재 기사(1954년 『동아일보』)

없도록 하였다.[71] 전통시장에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은 이미 서울시에서 수립해 놓은 도시계획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1953년 11월 서울시는 전후 서울도시계획의 1차 사업으로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오장동(충무로5가)시장 등 시내 3대 시장에 현대식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각 시장마다 콘크리트로 된 2층 건물, 6m 내지 8m 넓이로 된 도로, 상하수도 및 주차장 시설 등을 완비하여 당시로서는 깔끔한 현대식 시장을 설립하고자 하였다.[72]

그러나 이러한 재건 계획은 시장 건설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남대문시장 재건계획을 시행할 권리를 놓고 이전부터 시



남대문 시장의 공간적 범위

장을 관리·운영했던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화재 이후 조직된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사장은 1953년경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장을 맡고 있었던 엄복만이었다. 반면 재건위원회 측에서는 관재청을 끌어들여 적산인 중앙물산의 관리권을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갖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시의 기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재건위원회 모두 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시장 건설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정치 세력을 끼고 벌어진 분쟁이었다.[73)]

시장 건설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은 결국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각각 분리해서 시장 건설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소유 대지, 일반 개인이 소유한 대지(대지주친목회분),[74] 중앙물산 소유 대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남대문시장 재건이 시작되었다. 이중 소유주가 분명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대지주친목회의 권역은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75] 반면에 중앙물산 소유 대지는 건설 주체를 지정하지 못하여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대지주친목회 등이 공사를 마치고 개점한 1955년 3월까지도 빈터로 남아 있었다.[76] 이후에도 분규를 거듭하다 1955년 9월 말에 이르러서야 연고가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분할계약을 맺고 시장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였다.[77]

위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남대문시장은 그 소유 주체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운영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그늘 아래 있었던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대체로 남대문시장의 운영을 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후부터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했던 엄복만은 대한청년단 중구, 남대문시장 특별단부 단장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자유당 중구 총무부장이라는 요직에 있던 자이다.[78] 또한 그는 폭력배들을 거느린 폭력조직의 두목이기도 했으나,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로 1950년대 중반에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엄복만 이후에도 남대문시장주식회사는 자유당에 아부하는 정치깡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 관련자들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이주영李周永도 있었는데, 그는 엄복만의 밑에서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자이다.[79]

한편 해방으로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남대문시장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일본인들이 떠나간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중



1955년 남대문시장

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특정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이들이 남대문시장에 모여들어 장사를 하거나 날품을 팔아가며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아지자 남대문시장에서는 자연스레 북한 사투리가 많이 쓰였고, 이를 빗대어 '아바이시장'이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하였다.[80]

'양키시장'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60년대 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한 모퉁이에는 이른바 '도깨비촌'이 있었는데, 이는 미군 PX에서 흘러나오거나 일본으로부터 밀수한 물건을 팔던 시장을 가리켰다.[81] 이 '양키시장'은 엄밀히 말해 남대문시장에 인접해 있는 자유시장 안에 있었다.[82] 이 '양키시장'에서는 사치품으로 간주된 양복지·사진기·시계·양산 등 밀수품거래가 많아서 경찰과 세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다. 특히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특정 외래품 거래 처벌이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양키시장'은 단골들을 방문하여 물건을 파는 보따리장수들에게 도매로 물건을 파는 속칭 '도깨비시장'으로 바뀌었다. 남대문 도깨비시장은 한남동, 부평, 평택 등 주로 서부 방면의 미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오는 의류, 화장품 등을 주로 공급받았다.[83]

오늘날 남대문시장은 아동, 남성, 여성 등 각종 의류를 비롯해 섬유 제품과 액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 전경

세서리, 주방용품, 민속공예, 장신구,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취급하는 품목이 1,700여 종에 달한다. 정말 "없는 물건 빼고 다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온갖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중 숙녀 의류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아동복의 경우 전국 아동복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화되어 있다. 남대문시장은 전국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는 도·소매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국내 보따리상은 물론 대만, 홍콩 등 화교 및 일본 상인들과의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4]

남대문시장은 조선시대에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자리 잡은 이래, 해방과 전쟁 및 수차례의 대화재 등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명실상부하게 전국 최고의, 최대 전통시장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동대문시장

해방이 되자, 음산하고 쓸쓸했던 동대문시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1946년 1월 동대문시장 상인 200여 명은 상인연합회를 재조직하고 시장을 열었다. 그해 말에 화재가 있었지만,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1947년 4월 말경부터 종전대로 장사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전에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일본이 새로 개

장한 중앙도매시장으로 인하여 손님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해방 이후 다시금 시장을 정비하고 개장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85]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다. 1950년 9.28 수복 이후 상인들은 당국으로부터 가건축허가를 얻어 시장을 열어보고자 했으나, 1951년 1.4후퇴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등 수난의 시기는 계속되었다.[86]

1948년 현재 동대문시장은 188개의 점포를 가진 대형시장으로서 광장주식회사에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지만,[87] 전후 1950년대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은 주체는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였다. 1950년대의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를 장악한 자는 정치깡패로 잘 알려진 이정재였다. 이정재는 1940년대 초에 동대문시장에 삼양상사를 열고 장사를 하다가 해방정국에서 청년단 활동을 하면서 폭력배들을 규합하면서 동대문시장에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장직을 맡아 시장의 관리 및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88]

1953년 8월에 동대문시장 재건위원회가 조직되어 광장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시장의 재건이 이루어졌다.[89] 이미 1952년 5월말 현재 동대문시장의 점포수는 188개로 회복되어 있었으나, 임시방편으로 세워진 가건물인 경우가 많았다. 이후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상권이 확대되면서 종로4가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던 동대문시장은 청계천변을 타고 동쪽으로 뻗어나가 종로5가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동대문시장에 이어진 점포들이 10m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허가 판잣집을 세워 시장을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90] 따라서 이 점포들은 무허가 건물로 취급되어 서울시와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철거하고자 하였다.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늘어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은 195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1954년 6월에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960년대 말 광장시장

당시 서울시는 전후 복구계획에 따른 구역정리사업 및 시장 근대화사업의 일부로서 동대문시장 내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였다. 상인들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하여 생계 문제를 이유로 수차에 걸쳐 철거 보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91]

동대문시장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자, 김태선 서울시장은 "무허가건축은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철저히 철거시키겠다"고 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92] 이에 시장 상인들은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김두한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동대문시장 무허가 점포 철거 문제가 제기되어 상인들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한 3개월 철거 보류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급기야 상인들은 철거집행예정일 하루 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동대문시장 철거는 공동 이익을 위해 사사편의를 버리고 양해와 협동으로 사업을 성취하라'는 요지의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에 실시될 개헌안 문제를 염두에 둔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에도 철거 문제에 대해 중지와 해제를 번복 지시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93]

전쟁 이후 동대문시장은 점차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상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던 정치깡패 이정재 세력이 벌이는 횡포도 있었지만, 자신의 이권을 확대하기 위해 동대문시장 내의 상권을 키운 측면도 있었다. 4.19혁명 이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이정재는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각종 잡부금을 필요 이상으로 상인들에게 부담을 시키기도 했지만, 남대문에서 생선을 취급하던 거상을 서너 명 끌어오는 한편 여러 지방에서 모인 시장 상인들을 하나로 규합시키기도 하였다.[94]

특히 이정재가 동대문시장, 즉 광장시장을 장악했던 시절에 현대식 광장상가



88 서울 올림픽 당시 광장시장 입구

를 신축했는데,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남아 있다. 1950년 전쟁 중에 전소되었던 광장시장 건물은 1955년부터 1959년까지 4년 동안의 대공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3층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되었다. 당시 광장시장 주변의 청계천변은 대개 한옥이었고 그나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무너져 버렸으므로, 신축된 광장상가는 종로 화신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이르는 사이에 가장 커다란 초현대식 건물이었다.[95]

이처럼 동대문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시장 안에서는 온갖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55년 4월에는 상당한 양의 미군물자를 불하받고서 세관에 아무 통고도 하지 않은 채 매각하여 엄청난 이익을 본 상인이 붙잡혔고,[96] 1956년에 1월에는 동대문시장에서 위조된 미 군표 10달러 20장이 암매되다가 발각되어 판매책이 붙잡히기도 했다.[97]

밀수품 거래도 빈번해서 경찰이 외래품이라면 무작정 단속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1957년 7월 31일에는 동대문시장 상인 300명을 대표한 수십 명의 여성이 세종로에 있던 국회의사당에 모여 국회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거리에 모여든 시민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였다. 이 여성들은 동대문시장에 밀수품 단속을 나온 세관과 경찰이 나일론, 양단 등 정식으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 표시가 없다는 이유를 붙여 모조리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만일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전기 외래품을 압수한 것이라면 상인들 입회 아래 소각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외래품을 찾는 사람들은 고관 부인들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거세게 비난하였다.[98]

그 외에도 동대문시장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일어나 장사를 어렵게 했다. 1947년 2월 3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지했다가 4월에 재개하였고, 1955년 11월에도 30여 점포를 태우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958년에는 1월



광장시장 안 풍경

과 6, 7, 12월에 연거푸 불이 나 150~160여 점포를 태우기도 하였다.[99]

1950년대의 동대문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치깡패 이정재와 동대문 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정재는 1950년대 내내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와 납세조합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상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의 잡세를 거두어 들였다. 그 내용을 보면 상인연합회에서는 하루에 한 점포에 대하여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100환 이상 1,000여 환까지를 징수하여 한 달에 1,000만여 환씩을 상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였고, 납세조합에서는 가게 전세금의 7할을 징수 수당 비슷하게 떼어 갔으며, 노점상들에게도 공공도로의 사방 넉 자四尺 넓이의 면적에 25만 환씩 권리금을 받아 착복하였다. 심지어는 동대문시장 안에 입법, 사법, 행정의 3부 기관을 만들어 놓고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정재 세력이 자치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100] 반면에 이정재는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시장 내에서는 일절 부하들이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상인들을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던 폐단을 일소하기도 했다. 또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101]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정재가 군림했던 시절이 괜찮았다고 하는 회고도 있다.[102]

1950년대에 이정재의 세력은 자못 굉장하여 서울 전역의 내노라 하는 폭력조직을 망라하고 있었다. 훗날 이정재의 심복인 유지광이 법정에서 폭로한 서울시내 폭력조직의 계보에 따르면, 최상위에는 이정재, 조열승, 임화수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7인위원회와 3인위원회라는 최고 조직이 있었고, 종로2가를 무대로 한 종로파(심종현 외 20명), 소공동파(홍영철 외 20명), 광화문파(장영빈 외 50여 명), 서대문파(최창수 외 30여 명), 특수부대(이석재 외 7명), 종로4가파(유지광 외 50여 명), 경마장파(이경수 외 50명), 동대문시장파(장세규 외 50명), 청년도장파(이창수 외 300명), 평화극장파(이천일 외 100명) 등 10여 개의 행동대가 있었다. 그 수가 약 7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었다.[103]

이들에 대응하는 세력은 월남 실향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명동파였다. 명동파는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남대문시장과 대한극장, 명보극장까지를 세력권으로 했으며, 이화룡과 정팔 등을 두목으로 했다. 특히 명동파는 제주4.3에서부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 등으로 악명을 떨친 서북청년회에서 활동했던 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104]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정치계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는데, 이로 인해 자유당, 경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이정재 세력과의 대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유당과 거리를 두었던 덕분에 훗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에 열린 '혁명재판'에서 커다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오늘날 동대문시장은 좁게는 종로5가의 동대문시장과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시장·동대문쇼핑타운 등 동대문 일대에서부터 넓게는 광장시장에서부터 종로 5·6가 일대, 청계천 이남의 을지로·신당동 일대의 신평화시장, 남평화시장, 동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등지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오늘날 동대문시장은 세계적인 패션 의류 시장이다.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시

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였다. 전쟁 당시 피난처인 부산 등지에서 구호품으로 나온 옷감 등을 팔던 상인들이 광장시장으로 모여들면서 점차 의류 시장이 확대된 것이다.[105] 특히 정치권력과 유착했던 이정재가 군용 GMC를 독점하고 외제 물건을 빼돌리면서, 종로2가의 양단, 주단 상인들과 방산시장 쪽의 의류 상인들도 이곳으로 옮겨왔다.[106]

동대문시장은 1980년대에 이미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의류 도·소매시장을 형성했으며, 나아가 해외로 수출하는 의류 수출 기지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상권의 급속한 확대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등으로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1년 서울시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동대문시장 이용객이 1일 40여만 명이고 그 가운데 외국인이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바야흐로 동대문시장은 세계적인 의류 시장으로서 꾸준히 발돋움하고 있다.[107]

(서준석)

참고문헌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변동」,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1998

전우용, 「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선혜청 창내장의 형성과 전개」, 『서울학연구』 12호, 1999

전우용, 「한말-일제초의 광장주식회사와 광장시장」, 『전농사론』 7, 2001

김종광, 『광장시장 이야기』, 샘터사, 2012

박은숙, 『시장의 역사-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 2007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2천년사』 제13권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 서울특별시, 2013

유지광, 『대명』, 동서문화원, 1974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중구문화원편,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2000

주석

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시장」, 서울특별시, 2007, 39쪽.(이하 『서울의 시장』으로 약칭)
2. 『서울의 시장』, 19-20쪽.
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2천년사』 제13권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 서울특별시, 2013, 14쪽.(이하 『서울2천년사』 권호 및 제목으로 약칭)
4. 『서울2천년사』 제13권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 경관」, 42-4쪽 ; 『서울의 시장』, 53쪽.
5. 박은숙, 『시장의 역사-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66-7쪽.
6. 『서울의 시장』, 53-5쪽.
7. 중구문화원편,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2000, 26쪽 ; 박은숙, 위의 책, 69쪽.
8. 『서울의 시장』, 53-5쪽.
9. 중구문화원편, 위의 책, 16쪽.
10. 박은숙, 위의 책, 73쪽.
11. 박은숙, 위의 책, 75쪽.
12. 『서울의 시장』, 57-8쪽.
13. 『서울의 시장』, 60-2쪽.

14. '緞綢紙布諸大鋪 挾鍾街而居 餘皆散處 凡趨市者 晟集于梨峴及昭義門外 牛集于鍾街 一城之所需者 東部菜七牌魚爲盛 南山下善釀酒 北部多賣餠家 俗稱南酒北餠'『京都雜誌』卷1.
15. 전우용, 「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선혜청 창내장의 형성과 전개」, 『서울학연구』 12호, 1999, 68쪽.(이하 전우용a로 약칭)
16. 『서울의 시장』, 83-4쪽.
17. 전우용a, 66-7쪽.
18. 전우용a, 위의 글, 67쪽.
19. 전우용a, 위의 글, 67쪽.
20.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변동」, 이태진 외,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1998, 128쪽 ; 박은숙, 위의 책, 143쪽.
21. 전우용a, 66쪽 ; 고동환, 위의 글, 128쪽.
22. 전우용, 「한말-일제초의 광장주식회사와 광장시장」, 『전농사론』 7, 2001, 561-562쪽.(이하 전우용b로 약칭)
23. 전우용b, 563쪽.
24. 전우용a, 68쪽 ; 전우용b, 563쪽.
25. '行商所聚 交易而退者 謂之場 如鍾街梨峴七牌 是也'『萬機要覽』財用篇 各廛 ; 이때 언급된 종루의 시장은 단지 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루 앞에 일시적으로 펼쳐진 '城內場'을 의미했다(전우용a, 69쪽).
26. '凡趨市者 晟集于梨峴及昭義門外 牛集于鍾街'『京都雜誌』卷1.
27. 전우용b, 563-564쪽.
28.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육백년사』 3권, 서울특별시, 1979, 493쪽.
29. 전우용a, 69-70쪽.
30. 「남대문시장 600년 어제와 오늘」, 『중앙일보』 2014년 10월 4일.
31. 이러한 인식은 2000년 중구문화원에서 지역의 상업사를 정리한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이란 책에서도 볼 수 있다.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중구 지역의 상업화는 그 연원이 조선초에 세운 시전(市廛)과 조선 후기에 늘어난 난전(亂廛)에 있다. 18세기경에 생겨난 칠패(七牌)시장이 남대문시장으로 발전하고, 개항 이후에는 청나라상인과 일본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중구 지역에서 상권을 다투었다." 이처럼 남대문시장은 조선 후기부터 번성했던 칠패시장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편,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중구문화원, 2000, 16쪽.
32. 박은숙, 위의 책, 214-215쪽.
33.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296-297쪽.
34. 『서울의 시장』, 128쪽.
35. 전우용a, 72-3쪽.
36. 전우용a, 74쪽.
37. 전우용a, 73-4쪽.
38. 박은숙, 위의 책, 217-218쪽 ; 전우용a, 76쪽.
39. 박은숙, 위의 책, 218쪽 ; 전우용a, 78쪽.
40. 박은숙, 위의 책, 219쪽.
41. 전우용a, 79-80쪽.
42. 박은숙, 위의 책, 220쪽.
43. 박은숙, 위의 책, 221쪽 ; 전우용a, 79쪽.
44. 전우용a, 82-5쪽.
45. 『서울의 시장』, 169-170쪽.
46. 전우용a, 89쪽.
47. 『서울의 시장』, 178-180쪽.
48. 『서울의 시장』, 181쪽.
49. 『서울의 시장』, 178쪽.
50. 박은숙, 위의 책, 314쪽.
51. 박은숙, 위의 책, 224-225쪽 ; 전우용b, 567-568쪽.
52. 전우용b, 568-569쪽.

53. 박은숙, 위의 책, 225-226쪽.
54. 전우용b, 573쪽 ; 박은숙, 위의 책, 226-227쪽.
55. 전우용b, 557-558, 575쪽.
56. 박은숙, 위의 책, 228-229쪽.
57. 『서울의 시장』, 182-183쪽.
58. 『서울의 시장』, 182-183쪽 ; 박은숙, 위의 책, 320-321쪽.
59. 박은숙, 위의 책, 322쪽.
60. 『서울의 시장』, 182쪽.
61. 박은숙, 위의 책, 323쪽.
62. 『서울의 시장』, 183-184쪽.
63. 『서울의 시장』, 223쪽.
64. 『서울의 시장』, 230쪽.
65. 『서울의 시장』, 231쪽.
66. 『경향신문』 1947년 6월 28일 2면.
67. 박운봉, 『서울재건상』, 시사통신사 출판국, 1953, 297-298쪽.
68. 박운봉, 위의 책, 297쪽.
69. 박운봉, 위의 책, 297-298쪽.
70. 『동아일보』 1954년 6월 25일 2면 ; 『경향신문』 1954년 6월 25일 3면.
71. 『동아일보』 1954년 6월 25일 2면.
72. 『경향신문』 1953년 11월 4일 2면.
73. 『동아일보』 1954년 8월 6일 2면.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또한 대화재가 있기 직전인 1954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로 보아 1953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시장근대화계획을 발표하자, 시장 건설권을 선점하기 위해 엄복만 등을 중심으로 한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세력이 법인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1971년 11월 10일 7면).
74. 『동아일보』 1954년 8월 12일 2면. 대지주친목회는 남대문시장 안에 대지를 소유한 지주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다. 분쟁 관련 기사들을 보면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는 중간에 사라지고 대지주친목회가 등장하는데 두 단체가 같은 단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서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간에 벌어진 분쟁이 대지주친목회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이에 각각 분리 건설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아 대지주친목회가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를 이어 받은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75.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대지주친목회 사이에는 공사 기간 중에 건축비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일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측의 건축비가 1만 환 가량 더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것인데, 대지주친목회 측에서는 더 좋은 외국자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비싸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경향신문』 1954년 10월 2일 2면 ; 『동아일보』 1954년 10월 18일 2면).
76. 『경향신문』 1955년 3월 13일 3면.
77. 『동아일보』 1955년 10월 5일 3면, 『경향신문』 1955년 10월 7일 3면. 1955년 8월에는 중앙물산 소유대지의 상인 230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 몰려와 시장 재건 문제는 연고상인들에게 맡기라면서 호소문을 뿌리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상인들은 새로 임명된 관리인들이 입으로만 건설을 이야기하며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어 자신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였다(『경향신문』 1955년 8월 20일 3면).
78. 박운봉, 위의 책, 297-298쪽.
79. 『경향신문』 1961년 2월 21일 3면 ; 박운봉, 위의 책, 298쪽.
80. 『한국경제』 2014년 10월 27일 S3면.
81. 『동아일보』 1967년 2월 10일 1면.
82. 『매일경제』 1969년 6월 21일 5면.
83. 『매일경제』 1969년 6월 21일 5면.
84. 『한국경제』 2014년 10월 27일 S3면.
85. 『동아일보』 1946년 1월 7일 2면 ; 『경향신문』 1947년 4월 29일 2면.
86. 이동수, 「동대문시장의 근대화방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63쪽.
87. 『서울의 시장』, 235쪽.
88. 유지광, 『대명』, 동서문화원, 1974, 12-9쪽. 반면 1961년 군사정부 아래에서 진행되던 혁명재판에서 이정재 세력의 부두목으로서 재판에 출석했던 조열승은 이정재가 동대문시장에 상주하는 상인이 아니

었으나, 청년단의 힘을 배경으로 동대문시장상인연합회 회장직을 차지했다고 증언하였다(『경향신문』 1961년 8월 1일 2면). 유지광과 조열승은 모두 이정재의 심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반된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기도 이천 출신인 이정재가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동대문시장을 무대로 청년단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연고가 있음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89. 이동수, 위의 논문, 64쪽.
90. 『서울의 시장』, 235-6쪽.
91. 『동아일보』 1954년 7월 1일 2면.
92. 『경향신문』 1954년 7월 3일 2면.
93. 『서울의 시장』, 236쪽 ; 『경향신문』 1954년 9월 2일, 3일 각 2면 ; 『동아일보』 1954년 9월 3일 2면.
94. 김종광, 위의 책, 78-87쪽.
95. 김종광, 위의 책, 75-6쪽.
96. 『경향신문』 1955년 4월 1일 3면.
97. 『경향신문』 1956년 1월 5일 3면.
98. 『동아일보』 1957년 8월 1일 1면 ; 『경향신문』 1957년 8월 1일 3면.
99. 『서울의 시장』, 236쪽.
100. 『동아일보』 1960년 5월 9일 3면.
101. 『동아일보』 1960년 11월 8일 3면.
102. 김종광, 위의 책, 76-8쪽.
103. 『경향신문』 1961년 8월 22일 2면.
104. 『동아일보』 1958년 9월 21일 5면.
105. 『경향신문』 1971년 11월 23일 7면.
106. 김종광, 위의 책, 78쪽.
107. 『서울의 시장』, 355-3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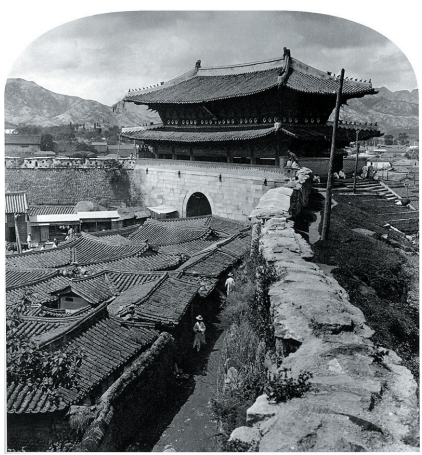
06

한양도성의 파괴와 복원

한양도성의 파괴와 복원

근대의 유입과 고종시대 한양의 변화

성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성城'이란 글자는 성城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도시를,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모습과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성의 파괴, 변혁 같은 것 정도로만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성이 만들어낸 공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사회가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고 국가가 변화하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1904년 남대문(조지 로스)

조선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면서 축성된 한양도성은 몇 번의 전란과 내란을 겪었지만, 그 높은 성벽과 단단한 성문은 파괴되지 않은 채 왕조와 그

안의 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왔다. 하지만 19세기 말, 서양인들이 조선에 찾아오면서 한양도성의 운명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양인들이 몰려온 것만이 아니었다. 성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무기들이 함께 왔고, 새로운 도시 형태에 대한 압력이 찾아왔다. '서구근대'가, 새로운 시대가 조선에 도래한 것이었다.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은둔의 나라'로 인식되어왔다. 그런 조선은 주변에도 서양의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등의 개국 압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1876년 일본과의 수교로 '개국開國'했다. 조선이 스스로 근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결과물이 아니었다. 어쨌든 이제 조선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구화·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이 요구되었다.



대한제국기 환구단의 모습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전쟁, 1894년 갑오개혁 등의 여러 갈래의 근대화 노력이 조선왕조에서 시도되었다. 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나타났던 여러 시도들은 실패를 거듭했다. 여러 실패와 근대화에 대한 압력 속에서 고종은 다른 여러 방식들을 포기하고 군주(황제) 중심의 근대화를 꿈꾸고 추진했다. 황제 중심의 근대화는 1896년 아관파천부터 1897년 대한제국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때 한양도성을 둘러싼 도시 체제에 한 차례 큰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흥선대원군이 중건했던 경복궁을 떠나게 되었다. 그 대신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있는 정동의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함께 추구했던 조선왕조의 전통을 세우려던 통치의 방향이 포기된 순간이었다. 조선왕조 수백년간 중심지였던 경복궁-창덕궁을 벗어난 새로운 정치맥락으로의 전환이었다. 서구 열강들의 힘에 의지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근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였다.

이에 따라 도시 개조 사업은 철저히 경운궁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로 개수 및 건설, 황제권 강화의 상징물(환구단, 장충단) 건립 추진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한양도성 내에 도입되었다. 전차가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비된 종로와 남대문로에 전차궤도를 설치하고, 서대문~청량리 간의 종로선과 종로~남대문~원효로 간 노선이 증설되었다. 그때가 1899년의 일이었다.[1] 도로의 변화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은 도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초였다. 조선 전통의 도시는 성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고 도시 확장에 대해 일정하게 제약이 있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도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며 도시가 보다 개방적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했다. 한양도성도 이러한 요구에 직면했던 것이다.



전차가 다니는 동대문

그러나 고종 황제는 도시 개조 사업을 유럽식이 아니라 '한국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왕궁과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성곽과 성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때 전차선이 부설되고 전차가 성안 팎으로 통과해 달렸지만, 조선왕조 도성 방어의 상징인 도성의 성벽은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로 전차가 성문 안을 통과하게 했다. 전차선을 단선으로 하면서 성문 크기에 전차 사이즈를 맞췄던 것이다.[2] 어떤 근대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한양도성이 파괴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 침투와 한양도성 파괴의 시작

대한제국의 도시 개조 사업 방향이 변화한 결정적 계기는 정치주체의 변화였다. 바로 일본이 러시아와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었다. 일제는 군사적 위협과 협박 등을 통하여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후, 1906년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한



전차가 다니는 남대문

제국을 보호국화했다. 명목상으로는 외교권을 통감부가 장악하는 것이었지만, 곧 제반 행정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왔다.

1905년에서 1910년의 보호국 기간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1905년에서 1907년까지는 '대내적 이중권력기'를 거치며 통감부와 고종황제가 이중적으로 그 힘을 작동시켰고,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는 통감부의 '통치기구 완전 장악'이 이루어졌다.[3] 1907년은 한양도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동을 가져왔다.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는 그 동안 유지되었던 한국 독자적 방식의 도시개조 포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서구화된 일본식 도시개조가 대치하게 되었다.

근대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매우 강력하게 '구물타파舊物打破'와 '문명개화文明開化'를 추구했다. 일본 각지에 있는 봉건영주의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성곽을 구물舊物로 파악하고 파괴할 대상으로 보며, 성곽 파괴를 추진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부의 경우를 다시 보존의 대상으로 보고, 파괴한 성곽을 문화재로 이해해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4] 하지만 이때의 문화재란 언제든 '근대화'의 명목으로 제거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이미 기능은 사라졌으며 공원화·사적화·명승지화되었을 뿐이다.

통감부 치하의 대한제국에 적용된 원칙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성곽 훼철에 대한 주장은 1905년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와 조선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해 제기되었다. 하야시 곤스케는 대한제국 정부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공문을 보내어 남대문 양쪽의 성벽을 헐어 철거하고 성문을 우회하는 2개의 통로와 또 하나의 대로를 뚫어 통행을 편리하게 하자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고종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계속되었다.[5]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이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했다. "포치砲車 왕래에 지장이 생기니 그런 낡아빠진 문은 파괴해 버려라"고 말하면서 남대문·동대문 등 한양도성 성문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의외로 일본인 거류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나와 더 이상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들어왔다는 남대문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이 통과했다는 동대문은 일본인 거류민 입장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6] 이 논의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도 남대문·동대문이 서대문·서소문·동소문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양도성 본연의 의미로서의 생존이 아니라, 제국 일본적 맥락으로 남대문·동대문의 보존이 결정된 것이었다.

일제의 요구에 밀려 성곽 훼철 안건이 상정된 것은 1907년 3월 30일이었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권중현이 '동대문 남대문 좌우

성첩城堞을 훼철하는 건'을 제안했다. 이때의 논리는 성문에 전차가 다니면서 사람도 붐비고 수레와 말들도 복잡하게 다녀 접촉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다. 교통운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문 옆의 좌우 성첩城堞을 8칸 씩 헐어버리고 전차가 드나들 선로를 만들고 문은 전적으로 사람만 왕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7] 결국 고종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벽 철거가 진행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뒤 1907년 7월 19일 고종이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황제에서 강제로 물러나고 순종이 새 황제로 등극한 이후였다. 순종 즉위 직후 제3차 일한협약으로 대한제국 내정이 완전히 일본 관리 하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6일 후인 7월 30일 내각령 제1호로 "성벽을 헐어 철거하는 일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일체 사무를 처리"하는 성벽처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성벽처리위원장에 일본인 기노우치 주시로木内重四郎가 임명되었다.[8]

성벽처리위원회는 10월 16일로 예정된 일본 황태자의 서울 입성에 대비해 1907년 9월 초순 남대문 북쪽 성벽을 헐어 철거하고, 남대문 앞에 있던 남지南池를 매몰해 버렸다. 남대문의 문루는 그대로 남겨 두고, 좌우성벽을 헐어 폭 8칸의 새 길을 내고, 문루 주위를 돌담으로 두른 뒤 돌담 내부에 잔디와 나무를 심고, 그 네 귀퉁이에 석주를 세워 옥玉전등 4개로 장식했다. 조선왕조 500년 넘게 지켜온 금성탕지金城湯池, 매우 견고한 성과 연못)가 일본 황태자를 '봉영奉迎'하기 위해 철거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9] 조선왕실을 수호하던 한양성곽이 침략자 일본의 황태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황태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남대문 북측의 석단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성벽에 현수막을 쳐서 보기 흉한 부분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성벽의 훼철이 황태자의 방문을 위해서라기보다 성벽의 파괴 자체가 통감부의 시급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통감부는

도시의 근대화를 명분으로 성벽을 파괴함으로써 왕성의 권위를 박탈하는 동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10] 그리고 한양도성 밖의 용산 일본인 거류지와 남촌(충무로 일대)의 일본인 거류지를 성벽에 방해 없이 연결하면서,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탈피하고 일본인 중심의 식민지 도시 경성을 건설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08년 3월부터 남대문의 남쪽 성벽, 그리고 동대문 북쪽의 성벽과 남쪽의 오간수문五間水門이 헐리고 파괴되었으며, 이후 시내 교통상 요지라고 여겨지는 곳들의 성벽이 파괴되어 나갔다. 이로써 1899년 전차선 개통 때에도 유지되었던 조선왕조 방위의 상징인 남대문 동대문 성벽이 일제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이는 조선왕조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았다.

이렇게 성벽이 파괴 철거되고 남대문 좌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는 1908년 10월 완성되었으며, 부속공사는 1909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길을 남쪽으로 연장하여 남대문역전(현 서울역전)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일진회가 남대문 앞에 세운 일본 황태자 환영문(1907)



성곽이 헐린 동대문

중, 곧 경술년(1910) 8월 29일 한국의 '통치권'을 일제에 '양여'함으로써 험난한 식민지의 길로 들어섰다.[11)]

돈의문 · 소의문 · 혜화문 철거, 그리고 계속된 수난들

190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진행된 한양도성 파괴는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온존되었기 때문에 일부 성벽 훼손은 있었지만 아직 그 운명이 완전히 결판 난 것은 아니었다.

한양도성 파괴는 1915년에 돈의문, 소의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는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이라는 도시계획의 미명 아래 오랜 전통을 간직해 온 도성의 구조를 파괴하였다. 도로를 정리하고 길을 넓히겠다는 목적에서 돈의문과 소의문을 경매에 붙이고 훼철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12)]



돈의문의 옛모습

1915년 3월 6일에 돈의문은 경매입찰로 205원 50전의 가격에 목재가 경매에 낙찰되었다. 석재는 도로 개수에 사용해 버렸다.[13]

그 다음으로 파괴된 것은 혜화문이었다. 1928년 혜화문은 광희문과 함께 수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루를 1천2백여 원에 팔아버리는 짓을 했다.[14] 그리고 10년 뒤인 1938년도에는 대경성 계획에 따른 도시 확장을 핑계로 혜화문의 나머지 부분을 파괴하고 도로를 확장했다.[15]

여기서 혜화문 파괴의 이유는 아이러니하다. 일제는 한양도성의 성문 등을 문화재로 파악하고 고적보존회에 맡겨 보호 유지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 그것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었다. 일제는 혜화문과 광희문은 퇴락하여 위험하고, 보호가 소홀해 걸인들의 숙박처가 되어 위생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고적보존회는 보존 경비가 부족하니까 문루를 팔고 성문을 부수어 도로를 확장하자는 게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다.

이미 1907년에 남대문과 동대문 옆을 터서 문이 가진 기능을 삭제해 버렸다. 애초에는 전차만 옆으로 통과하고 사람들은 문을 이용하자고 했으나, 옆에 길이 생긴 순간부터 사람들도 좁디좁은 문을 대신해 그 옆의 널찍한 길을 통과했다. 성문을 죽은 공간으로 만든 것은 일제 자신이었으면서, 다시 그것이 이미 죽은 공간이고 쓸모없으니 없애버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혜화문 문루가 헐리기 전



문루가 헐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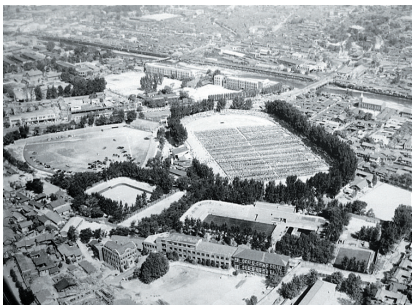
이제 조선 수도 한양漢陽의 이미지는 더욱더 삭제되어 가고, 식민지 수도 경성京城의 이미지로 가득차 나갔다. 식민지 수도 경성의 모습이 확정된 것은 1925년을 전후해서 였다. 1925년에는 남대문 바로 앞에 2층 양옥식 기차역으로 경성역(현재 '문화역서울 284')이 들어섰고, 한양의 안산案山이었던 남산 기슭에 조선신궁이 완공되었다. 1926년 1월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문을 열었고, 10월에는 경성부청(현재 '서울도서관')이 새로 지어졌다.[16] 남대문에서 경운궁,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대한제국의 중심축에 경성역, 조선신궁,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들어서 조선을 구시대의 것으로 위치짓고 식민지 조선의 랜드스케이프를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와중에 동대문 남쪽에 일본 황태자로 후일 쇼와천황이 되는 미치노미야 히로히토迪宮裕仁의 결혼을 기념해 정식명칭 '동궁전하어성혼기념경성운동장'東宮殿下御成婚紀念京城運動場, 속칭으로는 경성운동장, 해방 이후에는 동대문운동장으로 불리는 운동장이 건립됐다.[17] 또 1932년에는 옛 서대문 근방에 기후관측소가 설치됐다. 경성운동장, 조선신궁, 기후관측소 설치는 모두 한양도성이 있던 자리를 파괴하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파괴로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 고적古蹟이란 명목으로 그나마



조선신사로 향하는 길



동궁전하어성혼기념경성운동장

버티고 살아남았던 숭례문, 흥인지문, 창의문, 광희문 또한 갖은 수난을 겪었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넓디넓어진 길 위에 놓인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기보다는, 그 주변으로만 돌아갔으며, 성문 아래에는 걸인들이 모여 지냈다. 버려진 한양도성의 문들은 더러움의 상징, 사람들이 피하는 곳, 옆에 지나가는 차로 인해 먼지만 날리는 곳, 죽어버린 장소 일 뿐이었다.[18] 그리고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철사로 둘러치는 일까지 식민지 말기에 벌어졌다.[19]

한편 창의문은 혜화문이나 광희문처럼 문루가 사라지는 위험을 간신히 넘기긴 했으나, 문루의 간판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고적보존회라는 곳에서 관리는 한다고 했지만 전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창의문 간판은 시장 고물상에게 60전에 팔리기까지 했다.[20]

일제강점기 때 벌어졌던 이런 수난들은 해방 이후라고 달라지지는 않았다. 식민지시기를 지나며 고착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서울이 급격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성벽 주위에 판자촌을 이루었고, 성석을 건물의 축대로 가져다 쓰거나, 아예 성벽에 붙여 민가를 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성석의 무단 이용은 민간만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일


광희문 아래, 피난민 노점상(1953)

어났다.[21] 경신중고등학교 교사신축(1955), 남산 국회의사당 건립공사(1959), 남산 자유센터 건립(1964), 퇴계로 연장공사(1966), 남산 종합송신탑 설치(1972)로 한양 도성 성벽 철거는 계속 진행되었고 성석들은 축대로 함부로 사용되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광희문을 도로 연장공사를 위해 철거하겠다는 논의가 1962년에 일어나기도 했다.[22] 권력 주체가 바뀌어도 그 수난은 계속됐다.

한양도성 복원의 기치를 올리다.

도성 복원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 창의문 좌측 성곽 보수, 1962년 숭례문 해체복원에 이어 1963년에는 인왕산 구간 성벽을 정비했고, 1970년에는 창의문을 보수햇으며, 1972년에는 창의문 동쪽에서 백악산 정상까지의 성곽도 보수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인 정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도성 전체를 하나의 문화재로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를 진행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23]

한양도성 복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한양도성 복원에 관심갖게 된 것은 1968년 1월 21일 일어났던 1·21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조상이 물려준 관방官房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식 속에 국가안보정신을 심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정권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민족의식'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한 총력안보체제를 구



복원현장을 방문한 구자춘 서울시장

축하려던 것이 배경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 계획은 단순히 한양도성 만을 초점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방 유적 보수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되어 진행된 것이었다.[24)]

당시 사업은 대통령 지시로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며, 사업추진단으로 '서울성곽 복원사업추진본부'와 '서울성곽복원위원회'를 조직했다. 서울성곽복원사업추진본부는 복원사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책임과 체계있는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아래 성곽복원 담당관, 조경녹지담당관, 도시계획담당관, 건물철거담당관, 도로시설담당관 등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 해결과 사업을 평가 분석하도록 하였다. 서울성곽복원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서울성곽 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학자 언론인 문화재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조경전문가 건축토목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25)]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성 총 18.627km 중 7.287km가 현존하고 10.094km가 복원 불가능하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공보부와 서울시는 도성을 성북지구, 삼선지구, 광희지구, 장충지구, 남산지구, 삼청지구, 청운지구 총 7개 공사 지역으로 나누고 성곽 6.711km의 보수, 성곽 746m 및 여장 6.783km의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26]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복원공사의 결과 복원된 도성의 총 연장길이는 약 10km에 달했다. 공사에 들어간 총 비용은 55억 5,906만원이었다. 각 지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27]

〈1975~1982년 서울성곽 복원사업 내역〉

지구	구간	공사기간	사업비 (천원)	복원내용
삼청	창의문-숙정문	75.9.18~76.10.18	363,360	성곽 1,994m 및 여장 1,403m 복원 숙정문 문루와 홍예문 석축해체 복원
성북	숙정문-혜화문	76.10.18~78.3.20	394,569	성곽 1,429m 복원
삼선	혜화문-낙산 정상	79.6.1~80.8.12	932,019	성곽 1,037m 및 여장 1,033m 복원
동숭	낙산 정상-동대문	80.9.30~81.8.1	1,480,612	성곽 543m 복원
		81.9.19~82.6.16	986,090	성곽 508m 및 여장 520.5m 복원 옹벽 20m 및 성곽통로 2개 개설
광희	광희문 남쪽	74.12.11~75.11.15	139,086	광희문 홍예석문 이전 복원과 문루 복원 여장 30m 복원
		76.11.22~77.2.28	11,213	여장 25.6m 복원
장충 남산	장충체육관 북쪽-남산서쪽	77.10.4~78.12.31	470,272	장춘지구: 성곽과 여장 1,053m 복원 남산지구: 성곽과 여장 1,639m 복원
청운	돈의문-창의문	77.12.26~78.7.15	62,744	1지구: 성곽과 여장 203.5m 복원
		78.4.12~79.6.30	609,648	2지구: 성곽과 여장 1,242.5m 복원
		79.7.1~80.4.30	109,447	추가지구: 성곽과 여장120m 복원



복원된 성곽 중간중간에 설치된 초소가 보인다(백악 구간)

1970년대 시작된 대규모 복원공사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낳았다. 이전까지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한국사회에서 문화재 행정을 확대시켰다. 한양도성에 인접해 있던 유·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도성의 훼손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성곽 복원을 하면서 기존 성곽의 원형을 고증하여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여러 측면에서 원형 복원의 성과를 남겼다.[28)]

그러나 이 시기에 행해진 한양도성 보수·복원 사업은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문화재 가치 보존보다도 안보의식 고취 목적이 더 강했고, 충분한 원형 고증 없이 비체계적인 복원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결과, 인왕산과 백악 구간에는 성벽 복원 시에 성벽 안쪽으로 군 초소를 설치해 복원공사가 오히려 한양도성의 원형을 파괴하고 미학적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문화재 복원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기에, 대통령 지시 이후 겨우 2달 만에 광희문 공사에 착수하고, 삼청지구, 성북지구 등은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광희문은 도로 교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전 복원되었다. 문화재 보수에 성급하게 콘크리트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다.[29] 이러한 한계점들은 1970년대 한양도성 복원이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며 추진되기보다는 일정하게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데 연유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해 급박하게 추진되었고, 원형을 복원하기보다는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많다. 문화재 원형보다는 안보가 앞섰고, 도시의 교통이 앞섰다.

현재의 한양도성, 미래의 한양도성

박정희시대의 한양도성 복원공사 이후에도 도성에 대한 복원과 수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3년 창의문의 부분 보수가 있었고, 1985년에는 숙정문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창의문 출입문 수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숙정문 지붕과 단청 보수 작업이 있었고, SK빌딩 앞 성벽 95m와 삼청·청운지구 성벽 47m, 인왕산~치마바위에 이르는 인왕산 구간 성곽 100여m가 정비·보수되었다. 그리고 1993년 남산 제3봉수대(서울특별시기념물 제14호) 복원과 1994년 혜화문 복원은 이 시기 행해진 대표적 복원공사였다. 다만 혜화문은 원위치에 이미 도로가 깔려있어 그보다 북쪽 언덕으로 옮겨져 복원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복원·보수 작업은 2000년대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진행중이다.[30]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복원에 치중하는 것을 넘어 한양도성에 대한 다양한 발굴조사가 병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발굴조사의 중심지는 남산과 동대문 일대였다. 이 두 곳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신궁과 동대문운동장을 지으면서 많은 훼손을 당한 지역이었다. 조선신궁과 동대문운동장 모두 사라졌다. 그 둘이 세워지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믿었던 한양도성의 터는 땅 속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건립부지내 발굴

에 남아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음이 최근의 발굴들에서 드러난 것이다.

한양도성 발굴의 역사는 다음 표와 같다.[31)]

〈한양도성 발굴 연혁〉

연도	조사명	발굴기관
1999년 10월~1999년 10월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립예정 부지 시굴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년 12월~2001년 12월	서소문지구 잔존 서울성곽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년 02월~2005년 04월	서울상공회의소 구간내 서울성곽유구 시굴조사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년 10월~2003년 11월	장충동 서울성곽 시굴조사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3년 12월~2004년 07월	청계천 유적 발굴조사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년 08월~2008년 11월	서울 타워호텔 서울성곽 유적 발굴조사	한울문화재연구원
2008년 01월~2009년 02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내 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년 03월~2008년 06월	서울성곽 근린공원부지 발굴조사	한울문화재연구원
2008년 07월~2008년 11월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09년 03월~2009년 07월	아동광장 발굴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09년 11월~2010년 07월	백범광장 발굴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13년 06월~ 현재	남산 분수광장 발굴조사	서울역사박물관

초기에 이루어진 발굴은 전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구제조사적 성격이 강했다. 아직 본격적이지 않았으며 시굴조사 정도로만 그친 경우도 많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적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청계천 유

적 발굴조사에서는 오간수문의 수문 바닥석과 홍예 기초석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08년부터 진행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부지 내 발굴조사에서는 이간수문 및 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치성의 경우에는, 영조대 도성 수축공사에서 동대문~광희문 구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치성을 설치했는데 그 중 하나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었다.[32)]

그러던 중에 서울시 산하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구간의 발굴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조사보다 기간이 더 길고 정밀한 조사 및 복원이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 대상지는 남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아동광장과 백범광장 발굴이었다. 이 발굴에서 한양도성 성곽이 땅속에 파묻혀 있던 부분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한양도성 성벽을 파괴했던 흔적 또한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1939년 조선신궁 진입부에 세웠던 황국신민서사지주皇國臣民誓詞之柱의 기단부였다. 식민지 조선인을 제국 일본의 황국신민화하려고 세웠던 이 비석은 해방 이후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비석이 올라서있던 자리 아래에는 콘크리트 기저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양도성 건설과 훼손의 역사가 한 장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되는 순간이었다.



황국신민서사지주 기단부

한양도성은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이면 한양도성 순성을 해 서울의 여기저기는 붐비고 있다. 이제 한양도성이 단순히 낡아빠지고 더러워서 버려야할 '과거'만을 상징하던 시절은 끝났다. 현재 서울시는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준비중



발굴로 복원된 이간수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동대문 밀리오레와 공존한다.

이다. 조선의 멸망과 근대의 유입 속에서 갖은 수난을 겪었던 한양도성은 파괴되어야 할 대상에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며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최우석)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황성신문』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나각순,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2011.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발굴의 기록 Ⅱ 백범광장발굴조사보고서』, 20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성을 품다』, 2012.

中井喜太郎, 『朝鮮回顧錄』, 糖業研究會出版部, 1915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 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009.

도면회,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초기 형성과정-1905~1910년을 중심으로」, 『일제식민통치연구 1:1905~1919』, 백산서당, 1999.

박은숙, 「개항 후 서울 도시 공간의 재편과 성곽 철거」, 『내일을 여는 역사』 제33호, 서해문집, 2008.

장하나래, 「서울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1975~1982)의 성과와 한계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인영, 「일제시기 京城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 2010.

최인영, 「동대문 밖 전차의 도입과 역할 - 청량리선과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7, 2009.

太田秀春, 「日本의 「植民地」 朝鮮에서의 古蹟調査와 城郭政策」,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주석

1. 「電車來往」, 『독립신문』, 1899년 8월 11일.
2. 박은숙, 「개항 후 서울 도시 공간의 재편과 성곽 철거」, 『내일을 여는 역사』 제33호, 서해문집, 2008,178~179쪽.
3. 도면회,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초기 형성과정-1905~1910년을 중심으로」, 『일제식민통치연구 1:1905~1919』, 백산서당, 1999.
4. 太田秀春, 「日本의 「植民地」 朝鮮에서의 古蹟調査와 城郭政策」,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8~11쪽.
5. 최인영, 「동대문 밖 전차의 도입과 역할 - 청량리선과 왕십리선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7, 2009, 92쪽.
6. 太田秀春, 앞의 논문, 27~29쪽. 中井喜太郎, 『朝鮮回顧錄』, 糖業研究會出版部, 1915, 167~169쪽.
7. 『조선왕조실록』 고종44년(1907) 3월 30일.
8. 太田秀春, 앞의 논문, 17~20쪽.
9. 박은숙, 앞의 논문, 181쪽.
10. 최인영, 앞의 논문, 2009, 93쪽
11. 박은숙, 앞의 논문, 181쪽.
12. 「경매훼철에 처한 서소문」, 『매일신보』, 1914년 11월 25일. 「나는 경성 서대문이올시다.」, 『매일신보』, 1915년 3월 4일.
13. 「서대문의 낙찰 205원-육일에 경매한 새문 목재만 205원에」, 『매일신보』, 1915년 3월 7일.
14. 「오백년의 역사가진 동소,수구양문 철훼, 돈이 없어 보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역사 긴 동소문과 수구문을 헐어버려.」,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15. 「풍우 오백년의 노문, 동소문은 헐렸다. 부근 일대 시가정리로」, 『동아일보』, 1938년 5월 25일. 「대경성의 내일 위하여 희생되는 동소문, 간선도로 공사 착수」, 『매일신보』, 1938년 5월 26일.
16. 「新裝한 京城驛」, 『동아일보』, 1925년 10월 8일. 「京城府 落成式 사무개시는 래월 삼일」, 『동아일보』, 1926년 10월 29일.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 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009.
17. 「훈련원운동장 불일공사착수」, 『동아일보』, 1925년 3월 23일.
18. 「사랑과 죄 (5)」, 『동아일보』, 1927년 8월 19일. 「사랑과 죄 (6)」, 『동아일보』, 1927년 8월 20일.
19. 「封鎖된 南大門-李朝建築의最高齡者」,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20. 「오백년의 역사가진 동소,수구양문 철훼, 돈이 없어 보존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역사 긴 동소문과 수구문을 헐어버려」,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팔자지구한 창의문간판」, 『동아일보』, 1930년 1월 20일.
21. 장하나래, 「서울 한양도성 보수 복원 사업(1975~1982)의 성과와 한계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8쪽.
22. 「臨終앞둔 늙은城郭, 水口門」, 『동아일보』, 1962년 10월 10일.
23. 장하나래, 앞의 논문, 8쪽.
24. 서울역사박물관,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2011, 39쪽. 장하나래, 앞의 논문, 12쪽.
25. 나각순,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4, 283쪽.
26.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39쪽. 장하나래, 앞의 논문, 13~21쪽.
27.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39~40쪽.
28. 장하나래, 앞의 논문, 53~57쪽.
29. 장하나래, 앞의 논문, 58~66쪽.
30.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40~41쪽.
3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성을 품다』, 2012, 84쪽.
32. 『도성 발굴의 기록 Ⅰ 아동광장발굴조사보고서』, 60~65쪽.